

# 청 · 장년 성경공부

로마서 : 어지러운 세상을 향한 복음

<성경 주해>

지은이 : 해리 루스네이

밥 캠벨

로벗 슬론, 주니어

Baptist Way

달라스, 텍사스

성경 주해, 로마서 : 어지러운 세상을 향한 복음

판권소유 © : 2001 BAPTISTWAY PRESS ®

모든 권리 소유.

교회사역을 위해 필요한 만큼 교회에서 복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출판물의 복제판은 간략한 인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면을 통한 허용 없이 매매되거나 유통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BAPTISTWAY, Baptist General Convention of Texas, 333 North Washington, Dallas, TX 75246-17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APTISTWAY PRESS ®는 미 특허. 상표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성경 인용은 개혁한글 성경  
, 1967 에서 했습니다.

초판 : 2001년 3월

#### BAPTISTWAY 운영위원

주총회(BGCT) 행정책임자 : 찰스 웨이드

교회 성장 및 건강 코디네이터 : H. 린 이크버거

주일학교 / 제자훈련 책임자 : 버날드 M. 스푸너

출판 고문 : 로스 웨스트, 다국적 언어 사역부

#### 한국어 집필위원

단원 1, 1-2 성경주해 번역 :

로버트 변 관섭 - 새마음침례교회, 휴스턴

단원 1, 3-13 성경주해 및 단원 1-3, 1-13 인도자 지침서 번역:

죠슈아 최 - 새누리침례교회, 달拉斯

단원 1-3 성경주해 및 인도자 지침서 편집

조낙현 - 새누리침례교회, 달拉斯

한국어 집필 고문위원

로이스 로즈, 신학교육 코디네이터, 텍사스 주총회

패티 레인, 텍사스 주총회 다민족분과 고문

넬다 피 월리암스, 텍사스 주총회 주일학교/제자훈련 분과 고문 코디네이터 및 상담위원장

## ♣ 01 교재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 ☞ 교사 혹은 학생일 경우

1. 주중에 일찍 준비하라.
2. 공부할 내용을 개괄적으로 훑어 보라, 목차와 머리말을 읽고, 공부할 각 단원의 도입부를 읽도록 하라. 각과가 어떻게 그 단원과 연관되어있는지 이해하며 각과를 끝까지 공부하도록 하라.
3. 각과에 해당되는 성경구절을 깊이 읽고 육상하도록 하라.(각 단원마다 저자가 좋아하는 번역본을 사용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번역본을 사용하여 비교해보는 것도 좋다)
4. 성경구절을 모두 읽고 난 후, 저자의 해석을 읽도록 하라. 그 해석은 여러분의 성경공부를 돋는데 목적이 있다.
5. 각과의 참고자료들을 읽도록 하라. 그 내용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해주며 많은 교훈을 줄 것이고, 육상하며 적용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6. 각과의 질문들을 스스로 답해보도록 노력하라. 좀더 깊은 생각과 적용을 하게 하며 성경공부 자체에 도움을 줄 것이다.

### ☞ 만약 여러분이 교사일 경우

1. 위에 언급된 사항들을 실천해야 한다.
2. 첫 시간에는 각과마다의 학과일정을 언급하며 간단히 개요만을 설명한다. 4페이지에 있는 목차와 각과마다의 첫 페이지에 학과일정을 적게 한다.
3. 여러분은 *Baptist Standard* 나 인터넷에 제공된 많은 성경공부를 위한 도구들의 정보를 얻기 원할 것이다. *Baptist Standard*를 구독하기 원하면 전화 214-630-4571로 연락하고, 인터넷 정보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기 원하면 baptistway@bgct.org로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다른 참석자들도 이러한 정보들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4. 각과마다 지침서 역할을 하는 **교사용 교재**를 구입하라. 교사용 교재 자료들은 분반공부에 실제적이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원리들을 제공한다.
5. 성경구절, 본문, 그리고 다른 자료들을 살펴보고, **교사용 교재**에 있는 다른 자료들을 이용해 각과를 공부함으로 성경공부를 위한 계획들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라.
6. 성경구절의 의미를 깨닫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 구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라.

## 로마서 : 어지러운 세상을 향한 복음

### 페이지

지도자 교재를 잘 활용하는 방법	00	
<b>단원 1,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b>	00	
<b>과</b>		
<b>수업일</b>		
제 1 과	복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롬 1:1-17)	00
제 2 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왜 소용이 없는가? (롬 1:18-32)	00
제 3 과	종교적인 것이 왜 충분하지 못한가? (롬 2:1-13, 28-29; 3:19-20)	00
제 4 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하나님의 해결책 (롬 3:21-4:12)	00
<b>단원 2,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인가?</b>	00	
제 5 과	기뻐 하라 (롬 5:1-11)	00
제 6 과	자유 하라! (롬 6:1-14, 20-23)	00
제 7 과	승리하며 살라! (롬 8:1-2, 12-28, 38-39)	00
<b>단원 3,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b>	00	
제 8 과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책임 (롬 9:1-8; 10:1-21)	00
제 9 과	하나님의 긍휼 (롬 11:13-36)	00
<b>단원 4,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b>	00	
제 10 과	당신 자신을 드리라 -- 모두 함께 (롬 12:1-8)	00
제 11 과	사랑으로 살라 (롬 12:9-21; 13:8-10)	00
제 12 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부에 대한 관계 (롬 13:1-17)	00
제 13과	나와 다른 그리스도인을 인정하라 (롬 14:1-4, 13-19; 15:1-17)	00
<b>Bible Study for Texas 주문 방법</b>	00	

머리말

## 로마서 소개 : 어지러운 세상을 향한 복음

바울이 쓴 로마서는 바울의 복음의 이해에 있어서 가장 질서 있고 온전하고 논리적인 서신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약 30년경에 쓰여진 책으로 그리스의 모든 것에 관한 최고의 서신이다.

로마서는 바울이 썼고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읽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참으로 "문제가 많은" 사회에서 살고 있었다. 역사의 전후가 그랬듯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다. 바울은 우리의 문제의 핵심을 바로 짚었다.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말한다. 바울은 인간의 더러운 죄에 대해서 특히 이방인들인 로마인들의 죄를 로마서 2:1-3:20을 통해 묘사해 놓았지만 결코 유대인들도 예외가 아님을 말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바울은 이러한 논점을 통해서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든지 죄인이다"로 결론을 내렸다.(로마서 3:23)

오늘날 우리가 죄를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바울은 죄에는 항상 무서운 결과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로마서 3:23) 바울은 진정으로 죄의 문제가 크고 위협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재앙에 빠져있는 인간의 상태를 보았다.

로마서는 어쨌든 우리에게 나쁜 소식만을 말하지 않는다. 책의 맨 첫 부분부터 바울은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기쁜 소식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로마서 1:16-17에서 로마서의 주제와 함께 문제 많은 세상의 해결책인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 기쁜 소식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1:16)

로마서는 죄에 관해서 말하고 있지만 또 은혜에 관해서도 말하고 있다. 텍사스의 성경 주석자인 J.W. 맥고먼 박사는 "신약전서 저자들 중에 로마서의 바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 가게 쓴 저자가 없다"라고 로마서를 높이 평가한다.

로마서는 1장에서 8장까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즉 인간의 죄의 문제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해결책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이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바울 자신의 질문과 깊은 관심사를 해답 받은 것에 대해서이다. 바울이 고민했던 질문은 유대인들에 대해서이다. 바울이 선교사로 여러 지역을 다니며 사역할 때 많은 유대인들을 보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점에 대해 기이하게 생각하였고 자기 동족이 복음에 대한 불신 상태에 빠진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그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사색을 우리들이 당면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기도 하다.

로마서 12장에서 16장은 인간의 정욕과 어지러운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기쁜 소식에 대해 더 자세히 썼다. 이 장들은 세상의 일들을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독교 신학과 철학으로 경솔하게 설명하려는 시도를 할 수 없게 해 놓았다. 진정한 신학은 인간이 살아야 할 기본 원리를 정의해 놓는다. 바로 로마서

12장에서 15장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히 살아야 할 길들을 제시해 놓았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공부하려고 한다. 매 과마다 선택한 성경구절들은 텍사스의 우선 순위에 가치를 두었다. 로마서를 4단원으로 나누고 13과를 단원에 맞게 서로 연관성 있게 만들었다.

**단원 1.**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에 대한 것이다. 제 1과는 로마서에 관한 바울의 복음에 대한 개요이다. 2과와 3과는 인간의 저면에 깔려있으며 동시에 표면에 나타난 이 2가지 부문에 대한 문제의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평계할 수 없으며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 4과는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하나님의 단순하고 능력 있는 해결책에 대해서이다.

**단원 2.**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인가?"는 로마서 5장에서 8장에 대해서이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하신 일에 대해서이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안에서 출길 수 있으며(제 5과),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제 6과),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통해 승리하며 사는 삶에 대해서이다.(제 7과)

**단원 3.**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두 과로 나누었다. 이 단원은 유대인등의 현재와 미래의 역할에 대해서이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과거의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심을 부인하는 유대인들에 대해 다루었다. 이 단원은 바울이 그의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그들에 대한 바울의 결론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일들을 썼다. 제 8과는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책임", 그리고 제 9과는 "하나님의 긍휼"이다.

**단원 4.** 로마서 12장에서 15장까지이며 주제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이다. 이 단원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적용에 대해서이다. 4과로 이루어진 이 단원은 "당신 자신을 드리라 - 모두 함께."(제 10과), "사랑으로 살라."(제 11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부에 대한 관계"(제 12과), 그리고 "나와 다른 그리스도인을 인정하라"(제 13과)이다.

## 도서 목록

※ 아래의 주석들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윌리엄 바클리. 로마서. 매일 성경 공부. 필라델피아 : 웨스트민스터 출판사, 1975.

저랄드 브레이(편집)와 토마스 C. 오던(편집장). 로마서. The Ancient Christian Commentary on Scripture, New Testament. 4권. 다우러스 그려브, 일리노이스 : Inter Varsity Press, 1998

제임스 D.G. 던 로마서 1-8 Word Biblical Commentary. 38a 권, 달拉斯 : Word Books, 1998.

허셀 H. 합스. 로마서. 에이코. 텍사스 : Word Books, 1977.

잔 맥아더, "로마서 1-8" The Mac Arthur New Testament Commentary. 시카고, 일리노이스 : The Moody Bible Institute, 1991.

J.W. 맥고맨. 로마서 : Everyman's Gospel. 나사빌 : Convention Press, 1776.

로벗 H. 마운스. 로마서. The New American Commentary. 27권. 나사빌, 테네시 : Broadman and Holman Publishers, 1995.

1.J.W. 맥고맨 로마서 : Everyman's Gospel(내사빌:Convention Press, 1976)

2. 책을 열거하는 것은 저자들이나 BAPTISTWAY 의 모든 비평들과 완전히 동의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단원 1

###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자동차는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차안에서 갑자기 집을 향해 총알이 날라 왔다. 학교에서 총격소동이 일어났다. 교회에서도 기도하는 시간 중에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

죄없는 사람들을 향해 총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커피잔을 비우며 헛된 시간을 소모 해봤을 것이다. 이 질문에 '우리는 파괴된 가정이 많아서 그렇다' 또는 '폭력물을 주제로 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헐리웃의 영화 때문이다'라고 쉽게 비난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우리 자신도 이러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제 1 단원은 로마서 1장에서 4장을 공부한다. 그리고 이 장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현재 당면하는 모든 문제들을 풀 수 없다는 것을 공부하게 된다. 이 장들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죄성을 다루게 된다. 그리고 이 죄성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완벽한 사람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심지어는 성경 인물 중 많은 존경을 받고있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었던 길은 그의 행위로 이루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었다는 것을 공부하게 된다.

이 단원의 제 1과는 로마서의 소개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된다.

제 2과와 제 3과에서는 인간의 저변에 있는 큰 문제에 대해 바울의 두 가지의 성명을 다루었다. 제 2과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비추어진 문제, 제 3과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비추어진 문제를 다루었다.

결론으로는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하며 하나님 앞에 평계 할 수 없다. 제 4과는 인간이 풀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해 단순하고도 능력 있는 해결책을 보여준다.

로마서의 첫 번 몇 장들을 공부할 때 우리는 스스로 다른 사람들보다는 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비추어보면 죄는 죄이며 우리가 변명하고 정당화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새롭고 감격스러운 방향으로 믿음의 여행을 할 것이다.

#### 단원 1. --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제 1 과 : 복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로마서 1:1-17)

제 2 과 :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왜 소용이 없는가? (로마서 1:18-32)

제 3 과 : 종교적인 것이 왜 충분하지 못한가? (로마서 2:1-13, 28-29, 3:19-20)

제 4 과 :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하나님의 해결책 (로마서 3:21-4:12)

# 단원 1

##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 제 1 과

#### 복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 핵심 본문

로마서 1:1-17

##### 배경

로마서 1:1-17

##### 주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떠한 과거를 가지고 있든, 어떠한 상황에 빠져있든 복음을 받아들이면 상하고 깨진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한 삶을 주신다.

##### 탐구 질문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그리고 당신을 위해 -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 - 하시려는 핵심은 무엇인가?

##### 학습 목표

반원들이 복음이 그들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있도록 인도한다.

##### 강조된 텍사스의 우선 사역들

- \* 텍사스와 국내 그리고 세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 \* 교회와 세상 속에서의 사역을 위해 사람들을 훈련시킨다.
- \*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발전시킨다.
- \* 지금 있는 교회를 강화시키고 새로운 교회를 시작한다.

##### 개요

하나님은 당신을 완전히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신다.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물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선물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눌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

밥은 교회 다니기를 원하지 않았다. 어렸을 때 그는 어머니 옆에 앉아서 알아들을 수 없는 목사님의 설교와 지루한 예배시간을 보냈다. 성장하자마자 그는 교회를 떠날 자신의 결심을 했다. 이러한 그의 청소년 때의 반항심은 대학에 가서도 계속 됐다.

밥의 첫 번째의 결혼생활은 완전히 엉망이었다. 그는 술로 위로를 삼았지만 그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는 없었다. 그가 두 번째 맞이한 아내는 혼자 교회를 다녔다. 둘 사이에는 아들을 두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교회 갈 것을 권했다. 밥은 큰마음 먹고 교회에 이끌려 나갔다. 교회의 분위기는 어렸을 때 기억과는 달랐다. 그의 공허함은 복음에 대해 이번에는 다르게 들렸다. 옛날에 귀에 익었던 단어들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었다.

곧 밥은 그의 부서진 인생을 주님께 고백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를 간구하였다. 단순히 기도함으로 밥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다. 그리고 밥은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 것을 약속했다. 밥은 침례를 받을 때 감격스러워 큰 소리를 지를 뻔했다. 곧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으며 성경의 모든 말씀이 전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의 인생의 경험은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도움이 됐다. 가정도 변화가 되었다. 직장동료도 새롭게 변화된 밥을 볼 수 있었다. 심지어는 이를 아침 조깅을 할 때 만났던 사람들도 밥의 새로운 모습에 영향을 받았다. 복음의 능력은 죄 징에 놀렸던 밥을 해방시켜주었다.

### 복음 (1: 1-6)

사울은 그의 마음이 무거웠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다 벌을 받아야 한다고 믿었다. 그의 의도는 좋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에 실패하고 말았다. 사울의 판단은 직접 자기 손으로 사람들에게 벌을 주기 위해 나섰다.

하루는 큰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엎드려졌다(행 9:1-19). 하나님께서는 이 자고한 사람을 갑자기 장님이 되게 만드셨다.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방향을 재조정 하셨다. 교회의 필박자로 유명했던 사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었다(롬1:1). 사울은 한 때 그의 로마 시민권, 그의 교육 또 그의 종교지도자의 위치를 크게 자랑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됨으로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 더 이상 그는 세상을 향해 교만하지 않았다. 그리스도 예수의 매인 종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큰 값으로 샀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를 그리스도인의 적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지도자로 바꾸어 놓았다.

바울은 자기의 사도로의 부름을 확신하였다(1:1, 갈 1:11-2:16). 이 복음이 그에게 설교와 가르치는 것과 서신을 쓰는 일에 권위를 주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울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구별 하셨다. 이 구별이 바울에게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였다. 이 세상 어떤 것도 그를 이 직책에서 분리시키지 못하게 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는 이 복음이 그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 당시의 많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처럼 종교적이었으나 그리스도 예수와는 개인적인 관계는 없었다. 회심하기 전에는 기독교를 필박하는 일을 널리 펼치고 있었다. 바울의 회심의 경험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일을 전과는 다르게 보도록 만들었다. 로마서 1:16-17에서 복음을 "하나님의 기쁜 소식"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1:1)이라고 정의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까지 분명하게 말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1:1)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내포함을 말한다. 바울은 유대인 신자들이 이로마서를 읽을 때 구약에서의 선지자들의 글을 상기하기를 바랬다(1:2). 예수님은 "그분으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고"(1:3) 유대인임을 말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다(1:4).

바울은 예수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큰 죄인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크게 거역하고 있는 가장 큰 죄인임을 깨달았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도록 하는 직책을 받았음을 알았다(1:6). 그래서 그는 자신을 종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때 노예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표현하였다. 그는 예수님께 완전히 순복하고 그의 인생의 모든 구석까지 하나님께 내놓았다.

### 인사(1:7)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1:7)신도들을 위해 1세기 중반에 쓰여졌다. 로마교회는 오순절날(사도행전2:10)에 방문했던 로마에 살던 유대교인들이 세운 교회일 것이다. 아니면 로마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 살던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세운 것일 수도 있다. 베드로가 세웠을 것이라는 성서적인 증거도 있다.

로마 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도 받고 "사랑"도 받았다(1:7).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사랑하신다는 것과(요일4:19) 부르신다는 것(마가복음1:17)을 가르치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자들을 부르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한 사람도 빼지 않으시고 "성도"로 부르셨다(1:7). 성도, "제인트"란 꼭 훌륭한 신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즉, 세상 사람들과 분리된 모든 신자들을 성도라고 하였다. 성도들은 하나님과 능력있는 교제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한다. 교회의 모든 교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이다.

구약의 아론이 말한 축복 가운데 "은혜"와 "평강"(민수기 6:25-26)이란 말이 있다. 아마 이 축복의 말을 인용하여 바울은 그의 편지의 인사말을 한 것 같다(1:7). 은혜는 바울이 경험한 그리스도 예수의 용서다. 이 은혜가 바울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놓은 죄의 장벽을 허물어 놓았다. 바울은 항상 완전하게 의로워야 한다는 큰 짐으로부터 해방 될 수 있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평강이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평강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장벽도 무너뜨리게 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더 이상 국가, 인종, 민족을 나누어 생각하지 않았다. 오늘도 이 기쁜 소식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한다(1:7)

## 증인(1:8-13)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목하고 있었다. 로마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의 활동에 대해서 듣고 있었다. 그는 "너희 믿음이 온세상에 전파됨이로다"(1:8)라고 말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로마 교회 증인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바울은 예수님께 감사하였다.

한 젊은 여성도가 음악예배를 드리는 중에 나에게 다가왔다. 예배를 마친 후 관중들은 찬양을 한 사람, 악기를 연주한 사람, 지휘자에게 각각 박수를 쳐주었다. 그리고 관중들은 예배당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에게 물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박수를 친다는 것은 나에게 조금 어색한 일이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때는 습관적으로 예수님께 박수를 쳐드리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 설교를 잘할 때 박수를 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감사의 박수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자주 잊어버린다. 바울은 나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다.

바울은 설교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을 자기인생의 우선순위로 정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했다(1:9-10).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알지는 못했지만 그는 그들과 동역을 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항상 기도했다.

텍사스주의 침례교인들은 다른 나라 침례교인들과 서로 동역하고 있다. 최근에는 큐바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 공산당이 큐바를 장악했을 때 우리는 큐바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예를 사용해서 우리도 다른 나라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 서로 기도의 동역자로써 기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바울은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기도해 주었다. 우리도 다른 나라에 있는 성도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동역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나누기를 원했다(1:11). 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기가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나누어준다는 뜻이 아니고(12:1-8; 고린도전서12; 에베소서4:11-16), 그가 "신령한 은사"에 관해서 가르치고 권면하기를 원했다. 또한 그는 그들과의 교제가 일방적이 아닌 쌍방으로 교제함이 있기를 원했다.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함이라"(로마서1:12).

나는 한번 말라위에 선교여행을 간 일이 있었다. 우리가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얼마나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지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같이 갔던 모든 전도팀들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 오후에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시간에 그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복음의 진리를 들으려고 빽빽하게 둘러 앉아있었다. 이 전도 여행은 성공적이었고, 그곳에는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였으며 복음을 전하러간 우리들도 믿음으로 더 강해져 돌아왔다. 바울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1:12) 한말을 증명 할 수가 있었다.

## 모두에게 빛진 자가 됨(1:14-17)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심을 확신했다. 그는 그가 빛진 자라고 생각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1:14)고 말했다. 바울은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았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고 믿었다.

텍사스주에 날로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길 원하신다. 물론 자연히 문화적으로 그들과 벽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벽을 넘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벽을 넘어서야 한다(요한복음4:1-42; 누가복음19:1-10). 마찬가지로 바울도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

로마사람들은 그들의 탁월한 정치제도와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었다. 바울도 복음을 자랑했다(1:16). 이 복음은 자신의 추잡한 죄를 깨닫게 해 주었으며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아름다움을 예비해 주었다. "죄인 중의 교수"라고 자신을 서술하였다(디모데 전서 1:15).

구원은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다(1:16). 이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의지하는 것이다.

바울은,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것임을 설교하였다(1:16).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을 향한 것임을 말했다(요한복음3:16).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텍사스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이 필요한가?'에 대답을 해야 한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더 필요하다. 우리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우리들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이 자기들이 자녀와 손자손녀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 가족의 한 세대에서 다음세대로 이어지기를 원하신다(신명기6:4-9).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원하신다.

바울은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라고 선포했다(로마서1:16). 바울은 구원은 유대인 가족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님을 말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오셔서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였다. 그는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설교하였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당신 사이에 바른 관계를 갖게 하시기 위한 시작을 먼저 하셨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완전히 요구하신다(1:17). 순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로 상처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나 자격, 가지고 있는 재산 또는 무엇으로든지 하나님의 공의를 움직일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용서를 살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는 길 밖에 없다(1:17).

## 복음의 힘력

우리교회에서는 침례식 때 침례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먼저 회중 앞에서 고백하게 한다. 그리고 물에 들어갈 때 "이전의 모든 삶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됩니다" 이렇게 나는 말하고 침례 받는 사람을 물에 담근다. 그 상태에서 나는, 우리는 죽은 것은 물에 다 묻고, 즉 장사지내는 일을 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한 후, 물에 서 사람을 다시 일으킨다. 이렇게 해서 침례 받는 사람에게 예수님 없이 살았던 생애를 장사지냄을 확실히 알게 해 준다.

바울은 예수님 없이 살았던 그의 생애를 장사지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씻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난 모습이 깨져가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해지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바쁜 길로 가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항상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텍사스 침례 교인들은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죽어 가는 영혼들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 질문

1. 바울은 자신을 "예수그리스도의 종"(1:1)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종"이란 단어의 뜻은 노예란 뜻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예수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합니까?
2. 침례교회에서는 "쎄인트"(성도)의 직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3. 교회 밖의 사람들이 당신의 교회교인들이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4. 최근에 믿음 안에서 믿음의 친구들과 서로 권면했던 일이 있으면 나눠보십시오.
5.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당신의 교회에서는 어떤 장벽을 넘고 있습니까?

##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은 동성연애자요 또 에이즈환자라는 것을 밝혔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상한 심정과 또 그 아들의 건강을 위해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는 서로 기도하였다. 일요일 아침, 나는 교회 예배당에 함께 앉아 있는 그 아버지와 아들을 만났다. 그의 아버지가 나에게 그 아들을 소개 해 주었다. 우리는 서로 악수를 나누었다. 문제는 보통 때는 다른 사람들과 악수할 때 나의 팔에 특별한 감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나의 팔에 이상한 전율이 전해 왔다. "왜 이럴까? 왜 그 아들과의 악수가 그렇게 어색하였을까?"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큰 차별 대우가 있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장벽을 넘어서 복음으로 다리를 놓기를 원하심을 알았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지금 어떻게 그 차별의 장벽을 넘기를 원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다른 무리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가?

##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1:16)라고 말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 아침에 "나같은 죄인"을 자랑스럽게 찬송한다. 그러나 토요일 저녁에도 월요일 아침에도 그렇게 할 수 있나? 예수님은 자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마가복음8:38). 어떤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감추는 것을 보았는가?

## 제 2 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왜 소용이 없는가?

### 핵심 본문

로마서 1:18-32

### 배경

로마서 1:18-32

### 주제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핑계치 못한다.

### 탐구 질문

자기 맘대로 사는 것이 어떤 해가 있는가?

### 학습 목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왜 핑계치 못하는 가를 반원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돋는다.

### 강조된 텍사스의 우선 사역들

- \* 텍사스와 국내 그리고 세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 \* 교회와 세상 속에서의 사역을 위해 사람들을 훈련시킨다.
- \*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발전시킨다.
- \* 지금 있는 교회를 강화시키고 새로운 교회를 시작한다.

### 개요

사람들은 선택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대신 우리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기뻐할 수도 있다. 만일 우리가 후자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수많은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고칠 수가 없다. 바울은 하나님 알기를 거절하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과에서 경고하고 있다. 우리는 비판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 할 수 있지만 다음 과에서는 좀더 분명히 우리의 생각이 틀림을 말해 줄 것이다.

## 하나님의 진노(1:18-20)

나는 성격이 과격해서 자신 스스로 부끄러울 때가 있다. 나는 때때로 화를 냄으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다. 나는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 나의 화내는 것을 연구했다. 그리고 내가 화를 내는 이유는 전부 나의 이기적인 욕구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우리 인간처럼 당신의 이기적인 것으로부터 오지 않았을까 생각하며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을 더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화내는 것은 서로 아주 다른 차이가 있음을 배웠다.

"하나님의 진노"(1:18)는 독이 없는 반면에 인간의 화냄은 독이 꼭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의 진노는 그릇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화내심은 감정적인 착오, 편견적인 착오, 잘못된 표현, 판단 착오, 시간착오, 증거착오 등이 없다.

하나님의 화냄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1:18)에 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능동적으로 거절하면서 산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범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상처 주면서 살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1:18)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다.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진리를 무조건 막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은 없다(1:19-20). 자연 상태가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 음악, 시 예술을 생각해 보라. 하고 있는 것을 잠시 중단하고 잘 보고 들어보라. 예술가들의 창조하는 마음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를 표현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을 알 수 있다(1:19).

어떻게 하면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1:20)을 볼 수 있는가?

코퍼스 크리스티 해변가에 앉아서 파도치는 것을 보라. 모래 위에 발자국을 내고 없어지는 것을 보라.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상상해 보라.

포트 데이비드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라. 그리고 그 높은 산꼭대기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의 산을 해결하시고도 남으신 분이심을 인식하라.

팔로드로 캐년 밑에 앉아서 하늘의 천장을 바라 보라, 하나님의 창조의 기이함을 볼 것이다.

텍사스 동부의 봄에 말체 나무(dogwood)의 꽃길을 보라, 그리고 들에 수레국화(blue bonnet)가 피어 있는 장관을 보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새로 시작 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질 것이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기주의자들은 자연의 장관을 설명할 수 있는 지식도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지구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보여주고 우리보다 더 큰 그 누군가(하나님)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 인간의 교만(1:21-23)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을 알되"(1:21)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나타내시는 일반 계시에

대해 이해하는데는 한계를 가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바울은 자연의 질서와 또 아름다움에 끌려 자연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비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알아 볼 수 있지만 이 일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다(1:21). 그 대신 이들은 하나님 없는 생활을 하면서 그 결과로 암흑에 처해 있다. 몇 년 전에 나의 가족은 주일 아침 어떤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자동차에서 내려 교회를 향해 가는 길에 재미있는 광경을 보았다. 그것은 몇몇 가족들만 성경책을 들고 가고 다른 사람들은 성경책 없이 교회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다. 물론 성경을 갖고 있어도 몇 사람이나 성경책을 매일 읽는 가의 질문도 필요하다. 우리가 이과를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성경책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도 어두움 속에서 공생할 수도 있다.

"스스로 지혜 있다하나 우준하게 되어"(1:22) 이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거절했다. 이들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모실 자리가 없었다(1:23). 바울은 여기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썩어질 형상"을 서로 대조하고 있다. 사람들은 부패하지 않는 것을 부패할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 창조주께서는 한 피조물마다 자기의 모든 속성을 나타내지 않고 많은 피조물을 만들었으므로 이들은 많은 신들을 만들었다. 어떤 신은 사람형상으로 만들어 졌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드셨다(창세기1:27). 어떤 신들은 새 형상, 네발 달린 짐승, 기어다니는 것으로 만들어 졌다(1:23).

하나님을 대신하기 위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그 결과로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가 하나님과 이들의 사이를 가로막았다. 이들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무엇인지 알려하기보다 자신들 생각에 맞는 종교를 창조하였다.

지금도 이런 일들은 계속되고 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죄를 알려 고백하기보다는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재창조하던지 아니면 하나님을 지워버린다. 또는 자기 자신들을 자기들의 우주의 하나님으로 만든다. 이러한 종교는 이기적, 공포, 정욕, 힘, 마술, 아름다움 등을 만들어내지만 결코 그들은 만족하지 못한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힘, 목적, 용서, 내적 평화를 찾을 수 있다.

### 죄의 댓가(1:24-25)

"그러므로"(1:24)라는 단어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선택하면 고통의 결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1:19-20)는 말씀을 기억하라.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절했다(1:21). 어리석게 다른 방법을 통해 자신들을 지혜롭게 하려고 했다(1:22). 그리고 많은 형상들을 만들어 자신들의 신들로 삼았다(1:23). 그 결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의 표현이 3번이나 나온다(1:24,26,28).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사람들은 그들의 정욕을 선택하여 죄에 빠졌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들의 정욕을 실컷 범하게 내버려두셨으며 그 결과 그들 자신들을 멸망으로 인도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지은 결과로 고통스러운 길로 가는 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우리를 망하게 하심을 아신다. 죄는 죄인을 더럽힌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상기시켜 주신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그 죄의 피해자가 된다. 바로 죄의 최후는 심판이다.

나의 외조부님은 막대기로 조각하는 것을 좋아하셨다. 외조부님은 나에게 막대기 조각하는 기술을 가르쳐주시면서 칼을 바깥쪽으로 향해서 깎아야 한다고 주의 사항을 주셨다. 그 후 수년동안 조각 할 때마다 나는 그 주의 사항을 기억하여 조각을 하였다. 최근에 나는 이 막대기 조각을 하다가 그만 외조부님의 주의 사항을 잊고 칼을 안쪽으로 향해 깎다가 나의 엄지손가락을 베어 피가 났다. 지금 이 과정을 쓰면서 아직 아울지 않은 그 상처를 보고 있다. 법을 지키지 않을 때의 결과를 다시 기억하였다. 잠깐 내가 내 방법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모험을 한 것이다.

나는 나의 모든 모험들이 이 엄지손가락 상처처럼 처리하기 쉬운 일이라면 좋겠다. 불행히도 나의 잘못들을 뒤돌아보면 그러치 못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한번 더 생각해 보라. "그러므로" 전에 구절에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다고 써 있다. 그 결과는 사람들이 음란하게 되고 "모을 서로 육되게 하고" 우상과 부도덕한 일을 일삼아 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성도덕이 문란해지면 교회가 크게 고통을 겪게 된다.

하나님은 성 관계를 결혼을 통해서만 하도록 거룩하게 만드셨다. 혼외 정사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을 거룩하지 못하게 만든다. 성교는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방법으로 거룩하게 사용되어야 하면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결혼을 통해서만 사용하는 것이다. 혼외정사는 여자를 더 가치 있게 만들거나 남자를 더 남자다운 남자로 만들지 못한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꿀 수 있다(1:25). 아담의 방법대로 할 때에 창조주의 계획으로부터 반대의 길을 가게 한다(창세기 2:16-17; 3:1-6).

사람들은 성에 관한 하나님의 법칙에 대해 고민한다. 청소년들은 성장기의 훌몬 상태, 성인들은 더 좋은 상대를 갈망하는 문제, 중년들은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 심지어는 노인들까지 이 성문제로 인해 선을 넘을 때가 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성 관계의 선을 넘을 때는 좌절, 피곤, 실패감이 따르게 된다. 마귀가 사람들에게 하는 유혹은 마치 낚시하는 어부가 호수에서 농어를 잡기 위해 플라스틱 지렁이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 신나게 물고 있지만 그 플라스틱 지렁이에는 낚시 바늘이 줄에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들은 뒤늦게 낚시에 걸렸다는 것을 깨닫지만 농어보다도 못한 감지력을 갖고 낚시에 걸린 채 계속 사단의 종이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멋대로 하게 두심(1:26-27)

음욕은 사정없는 주인이다(롬1:26). 성욕으로 다른 사람을 소유하면 낙원과 같은 재미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음욕은 순수한 사람을 부패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탐내는 일로 가득차게 한다.

바울은 예를 들어서 여자와 여자사이를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성을 역으로 쓰는 것을 설명한다(1:26). 어느 문화든지 남자들에 비해서 여자들이 동성연애자 또는 성도착증세 자들이 적은 편이다. 그런데 바울은 여자들 사이의 부조리한 성행위를 말함으로서 우리들을 깜짝 놀라게 한다. 아마 바울은 여자 동성연애자들을 먼저 언급함으로 당시의 성의 부패와 심각성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남자들도 역시 성적으로 엄청난 부패에 있었다(1:27).

나는 서남 침례신학대학원의 졸업장을 막 받은 오후에 달лас 포드 워스 도심지역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통화를 한 사람은 술 취해 있었으며 매우 마음이 상해있었다. 그를 찾아갔다. 문에서 분홍빛의 의상이 걸려 있었고 벽에는 레스링 장면 사진이 사방에 붙어 있었다. 그는 솔직하게 그가 동성연애자임을 나에게 말하였다. 그는 남자로서 다른 남자와 결혼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를 상담하려고 했지만 그는 나의 충고를 듣는 것보다는 자신의 문제만 나열해 놓았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하는 것처럼 이 청년은 새로운 삶을 자신의 인생을 개혁하는 것보다는 동정 받기만을 원했다.

동성연애자는 이제 텍사스 어느 곳에서든지 찾아 볼 수 있다. 텍사스 침례 교인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의 최종 권위는 성경임을 믿는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교합함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텍사스 침례교인들은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성연애를 지지할 수 없다는 것을 주정부의 법안에 표명하였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주 예수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돌아가셨음을 믿는다. 많은 텍사스 침례교인들은 동성연애자들에게 사역을 하고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제시한다.

### 죄의 길(1:28-32)

"상실한 마음대로"는 꼭 동성연애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1:28).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보다는 가지각색의 사악한 길을 선택한다. 때로는 사람들이 동성연애에 대해 심판하지만 자기들은 또 다른 죄악이 자신들을 멸망시키고 있다는 것을 잊고 있다. 바울의 21가지의 죄악목록은 이 악의 어두움이 빛을 구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1:29-31).

첫 번 네 가지 죄는 죄에 대한 방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1:29). "불의"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 밖의 것을 의미한다. "추악"은 불의에 사악함이 더한 것을 말한다. 죄보다 더한 것은 사악한 것으로 사람들과의 사이를 파괴시키는 일이다. "탐욕"은 텍사스의 많은 사람들을 죄의 종으로 만들고 있다. "악의"는 모든 일이 나쁜 쪽으로 시도하게 하는 행동이다. 이 네 가지 죄악이 바울이 편지를 보낸 사람들에게 가득 차 있었다. 불행히도 우리들에게 그들이 낯선 사람들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두 번째 죄에 대한 목록은 관계에 관한 것이다(1:29).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안에서 화목할 수가 없다(1:29).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싶어한다. 다른 사람의 지위, 재산,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사람을 탐낸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들을 자신의 능력으로나 노력으로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면 불법으로라도 가지려고 한다. 그들은 화를 내며 교묘하게 본 의도는 감추고 다른 트집을 잡아 싸움을 한다. 그 결과로 남을 괴롭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이다(1:29-30). 바울은 남의 뒤통수를 치는 자들을 평소에

많이 만났다.

세 번째 죄의 목록들은 교만함으로 생긴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들이다(1:30). 이런 사람들은 자기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은 죄인으로 취급하는 사람이다.

30절에 악을 도모하는 자는 부모를 거역하는 자와 함께 나와있다. 두 부류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주는 일을 한다.

31절에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자비한 자로 21가지의 모든 죄목이 끝이 난다. 이 구절을 통해 죄의 장성을 볼 수 있다. 우매함이 배약하게 되고 배약이 부정함을 낳고 부정함이 무자비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들은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착취한다.

바울이 나열한 죄 목록들은 바울 때에 살던 로마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죄들은 살아 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들을 보기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다. 바울은 이 로마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이런 죄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이미 알고 있다고 했다(1:32). 그러나 상관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을 용호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 결론

바울은 옳고 그른 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별다른 차이 없이 해당되는 말이다. 여기 나온 모든 죄들이 텔레비전을 통해 매일 우리들의 삶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 사람들은 갈수록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 또는 성경 읽는 시간보다 훨씬 더 텔레비전 앞에서 시간을 보낸다.

우리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성경 읽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보다 얼마나 더 유익한가를 따져 볼 수 있어야 한다.

바울은 하나님을 무시해 버리는 것은 결코 우리를 돋는 일이 아님을 말한다. 바울 시대에도 그러했고 지금 우리시대에도 마찬가지이다.

## 질문

1.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의 진노는 어떻게 다릅니까?
2.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하며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3. 자기 자신은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나 바보짓임을 알았을 때의 일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4. 진리대신 거짓을 행하였을 때를 설명해 보십시오.

5. 오늘 21가지 죄목을 통해 어떤 죄목이 가장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였습니까? 왜입니까?

### 하나님을 무시해 버리기

달лас 북쪽에 조그마한 동산이 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비함을 찬양하는 문구들이 돌비에 여기 저기에 새겨져 있다. 이 아름다운 동산 한 가운데 우리가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신비하신 솜씨를 무시해 버릴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비하신 솜씨를 무시해 버린다고 불평하기보다 먼저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자. 예를 들어 나는 아침에 일어나 주님과의 경건 시간을 갖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일주일 동안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읽는 양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는다. 그러나 나의 생활 가운데 많은 부분을 필요 없는 시간으로 소비한다. 너무나 많은 시간을 텔레비전 앞에서 보낸다. 가족들과 함께 서로 다정하게 대화하는 시간은 너무나도 적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그리스도인으로써 당신의 삶의 여정은 어떠한가?

### 부정

부정이라는 단어를 나는 싫어한다.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최악의 경우만을 생각한다. 나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나는 채스(서양장기) 선수이다. 채스는 모든 가능성을 생각하며 해야 한다"라고 나를 위로한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곧 발견한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말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어떠한가?

## 제 3 과

종교적인 것이 왜 충분하지 못한가?

### 핵심 본문

로마서 2:1-13, 28-29; 3:19-20

### 배경

로마서 2:1-3:20

### 주제

어느 누구도 그것이 종교적이든, 선한 행위이든 진실한 믿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는 길은 없다.

### 탐구 질문

어떤 경우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대신에 선을 행하려고 하는가?

### 학습 목표

반원들이 인간적인 방법들이, 선행이든 종교적이든 간에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 강조된 텍사스의 우선 사역들

- \* 텍사스와, 온 나라와 세계의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라
- \* 교회 안과 온 세계에서의 사역을 위해 성도를 준비시켜라
- \* 기존 교회들을 강화하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라

### 개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특별히 편애하시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상태다. 이러한 단절을 극복하는 것은 개인의 삶을 그리스도께 진실하게 드림으로써 가능하다. 진정한 믿음의 헌신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함으로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이 날마다 성장함으로써 표현된다.

"글쎄요, 저는 텍사스 사람입니다." 이 것이 내가 책상 맞은 편에 앉은 사람에게 당신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처음 들었던 말이다. 순간, 나의 마음은 몇 년 동안 사역했던 미시시피로 달려갔다. 거기서 나의 친구들은 종종 "자네 텍사스에서 텍사스 사람들을 꺼낼 수는 있어도 텍사스 사람들로부터 텍사스를 꺼낼 수는 없을 거야." 라고 말했다. 텍사스인들은 Lone Star State (텍사스 주의 별명)에서 사는 것에 대한 특별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그것은 좋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자부심은 얼마나 가져도 될까? 바울은 유대인 성도들의 지나친 자부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이방인 성도들보다 더 사랑 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전 과에서, 우리는 악한 자들의 비판을 공부했다. 이 과에서는 아무런 관계없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잘못을 연구 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겪었던 것들을 공부하면서, 그와 같은 일들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과 21세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하자.

### 진리는 종교성을 노출시킨다 (2:1-4)

바울은 "네가"라는 말로 우리의 의식을 연다 (2:1). 본래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썼던 그의 글들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필요하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명수였다.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2:1)라고 우리를 상기시킨다.

로마서 1장은 사악함과 동성연애에 대한 타락된 생활 양식을 말해준다. 교회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죄악을 짓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정죄하는 것을 듣는 것은 쉬운 일이다. 의심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져야 하고 선포되어야 한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이 싫어했던 이슈들 중의 하나가 예수님께서 그들이 비판했던 바로 그 사람들을 구하려고 했었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당신이 다른 사람을 판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하셨는가?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작은 실수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주기적인 잘못들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 세밀하게 알려고 하는 호기심은 당신 안에 있는 비난하는 영이 아닌가?

개인적인 편견들은 우리가 정해 놓은 어떤 표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쉽게 정죄 하도록 만든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잘못 한 것들은 작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크게 생각한다. 잠언은 기록하기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21:2)라고 했다.

"하나님의 판단은 ..... 진리에 근거한다" (롬 2:2). 나는 사물들을 볼 때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한다. 불행이도, 어느 누구도 객관적인 사실만을 구분하는 기술을 마스터 한 사람은 없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사실의 전부가 아닌, 일부분들만 관찰 할 수 있다. 우리의 최선의 관찰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의 범주에 제한 돼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객관적이고 온전한 시각으로 사람이나 상황을 보실 수 있다. 하나님 출로 모든 사실들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시편 19:1-2절을 보라).

왜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그리고 "우리는 피할 수 있다" (2:3)고 생각할 때 "같은 일을 행하는" (2:1) 것일까? 텍사스 침례교인들은 선교적 열정과 복음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 로마서 1:29-30절의 합당치 못한 어떤 특성들이 우리 안에서도 발견되어질 수 있다. 탐욕은 수많은 우리 가족들을 신용카드 빚의 노예로 만든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지위를 시기할지도 모른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사이에 갈등이 존재한다. 속임수가 진리의 깃발 아래 숨어있다. 잡담과 비방이 교회 주차장에서 오고간다.

바울은 진리의 핵심을 설교하기 위해 문화적 기독교의 가면 뒤에 서기를 원했다. 그는 지금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를 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두 개의 다른 표준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상기시키고 있다.

물론 신자들은 "비난" (2:4)하려는 마음으로 그들의 날을 시작하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의도적인 죄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거부이다. 우리 신자들은 우리 사회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표면적인 죄들을 쉽게 지적할 수 있다. 우리 입술의 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지, 혹은 어떻게 그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지 나와 함께 생각해보자. 어느 주일 아침, 한 중년 남자가 에베소서 4:29절에 대한 토론에 끼어 들었다. 어떤 사람들은 저주하는 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에 대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느꼈다. 그들은 계속해서 말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는 저주할 우리의 필요를 이해하신다" 라고 한 쪽에서 말했다.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은 사실 신성모독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쓰는 용어를 "죄"라고 부르신다고 논쟁했다. 이번 수업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의 자리에 서기전에 우리의 가정에서 허용되는 용어를 잘 평가해보자. 우리는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쓰는 온갖 더러운 말들을 마시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신성모독을 책망하는 이중적인 표준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가족의 귀로 들어오는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비난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인자"는 그분의 창조물 위에 부어주신 많은 선물을 속에서 흐른다 (롬 2:4; 행 14:17). 음식으로부터 용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하나님의 "인내"는 심판의 손을 막으신다 (2:4). 반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못 박힌 손들을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을 향해 열어 주신다. 그분의 "오래 참으심"은 성령께서 죄로 말미암아 깨진 우리의 영혼 속으로 말씀이 역사 할 수 있도록 하신다 (2:4). 하늘이 인자는 우리를 "회개"로 향하도록 하신다 (2:4).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는 인생의 극적인 변화를 체험한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한때 우리를 지배하고 인생의 방향을 조절했던 그 죄는 더 이상 힘을 못 쓴다. 그 대신,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겸손하게 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특별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교만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찼다 (2:5). 선입견이 그들의 결정들에 영향을 미쳤다. 그들이 택한 받은 백성으로서 주장했던 그 권리들은 사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들의 사역을 방해했다. 왜?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은 기쁘게 받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누는 데에 있어서는 단지 수전노가 되었다.

나의 어머니는 내가 훌로 슬퍼하고 있었을 때 나를 불잡고 인생이 얼마나 선한 것인지에 대해 말해 주었었다. 작년에 나는 한 작은 아프리카 나라에서 남여가 모여 있는 현관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들의 겸손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하려는 열심을 보았다. 이 사람들은 물이나 전기도 공급되지 않는 옷장만한 집에서 살았다. 그들은 내가 한 끼 식사로 먹는 것보다 적은 양으로 하루를 살았다. 그들은 너무나 적게 가지고 있었다. 내가 그들의 삶을 들여다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 나에 주어졌던 놀라운 축복들을 더욱 더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텍사스 침례교인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을 위하여 우리에게 쏟아주신 그 풍부함에 우리의 눈을 뜨도록 초대하고 계신다.

### 하나님께서는 이중성을 심판하신다 (2:5-13)

로마성도들은 "고집"스러웠고 "회개"하지 않았다 (2:5). 그들은 그들의 문화를 따랐고 그들의 영혼의 전쟁 가운데 있는 죄들을 가리려고 했었다. 행적 위주의 이기주의적 죄인들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는데는 빨랐지만 자신들의 실수들을 가리는데는 모든 수고를 다했다.

고집은 인간이 진정 무엇인지, 즉 인간의 불 완전성을 가리려는 마음을 갖게 했다. 그 결과, 고집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 내면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막았다. 바울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독자들을 갈라지게 했던 문제들을 설교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그는 성도들을 영적인 정직함으로 이끌고자 하는 심정으로 그들의 판단하는 태도와 행적 위주의 생활을 대면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받을 "진노"를 쌓고 있는 로마 성도들을 고발했다. 죄는 결과를 낳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조해왔던 부분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략해왔던 부분들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심는 대로 심판의 날에 우리의 삶에 어떤 것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잘 기억한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 하신다고 했다 (2:6). 텍사스 침례교인들은 각 사람은 그가/ 그녀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써 구원받는다고 믿는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엡 2:8-9).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실재를 판단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은

단지 수련회나, 여름 성경학교나 혹은 교회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행하는 방식은 우리가 한 말들의 진정한 의미를 나타낸다 (엡 2:10).

바울은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에 대하여 긴 안목을 갖기를 원했다.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했던 책임을 기억하는데 실패했다. 심판의 날에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그녀가 하나님의 은사들을 어떻게 다루었는가에 따라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2:6).

심판의 날은 꾸준히 선을 추구하고, 세상이 그에게 던진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성도들이 누구였는지 드러낼 것이다 (2:7; 8:31-39절을 보라). 이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역사 하시도록 함으로써 "영광"을 구한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인격을 경험한다. 하나님은 그럴게 사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그들을 사랑하고 높이신다.

유혹은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온다. 나는 항상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기를 구하고자 하는 도전을 받았다. 만일 우리가 7절 말씀의 도전을 받아들이고 21세기에서 그대로 실천에 옮길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그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함으로써 훌륭한 시작을 할 수 있다.

또한 심판의 날을 당하는 것은 "자신을 구하는" 자들이다 (2:8). 자신을 구하는 자들은 그들의 세상을 조절하기를 원한다. 돈 받고 일하는 병사들처럼 그들은 해를 당하는 것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들이 관심은 오직 그들을 위해 무엇이 이득이 되는가만 생각한다.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는 하지만 (요 3:16), 이렇게 자기만을 구하는 자들은 꺾으신다. 그들은 자신들을 특권 계층에 올려놓고 차별을 둔다. 그들은 말씀을 무시하고 "악을 따르며"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는 다른 법칙들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행동한다. (롬 2:8). 바울은 말하기를 "틀렸다!". 하나님의 "분노"는 특별한 차별 없이 휘몰아치는 심판으로 폭발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순서 외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를 구분하지 않을 것이다 (2:10). 유대인들이 "먼저" 심판 받을 것이다. 인종과 배경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하나님께서 행위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주목하라. 하지만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토론은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라.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사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믿음을 선으로 나타내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 (2:10)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 문장은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상기시킴으로써 마무리한다 (2:11).

우리의 세상이 우리의 눈앞에서 변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차별을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그분이 보시는 텍사스를 보여 달라고 간구하자. 그리고 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손들의 펴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평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 받을 수 있다. 이방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갖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자연과 (1:19-20) 그들의 마음 (2:15)을 통해 계시한 법을 통해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핑계도 허락치 않으신다.

###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를 높이신다 (2:28-29)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현신의 실재를 단지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시지 않는다 (2:28-29). 물론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이 외적인 표식을 그들의 내적 신념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사용하기를 의도하셨다 (신명기 10:16). 우리 침례교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현신의 표식으로써 침례를 행한다. 하지만, 침례가 만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내적 현신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때때로 사람들은 그들이 수년 전 받았던 침례가 그리스도께 대한 진정한 현신의 표로써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들은 단지 "교회에 가입"하는 한 과정으로써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변화되지 않았다. 침례는 내적 현신을 나타내도록 의도 된 것이다.

###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 (3:19-20)

바울은 자연과, 성경과, 그리고 마음에 있는 법을 탐구했다. 하나님의 계시가 이러한 수단들을 통해 확장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아무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입을 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3:19). 비윤리적인 이방인들은 핑계를 댈 수 없다 (1:20). 도덕주의자들은, 그것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변호할 수 없다 (2:1). 심지어 유대인일지라도 예외가 없다 (2:9-11).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도덕에 대한 어떤 것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지식을 무시했다. 모든 사람들이 각기 제 길로 갔다.

바울은 특권이나 차별에 근거를 둔 구원의 교리 속에서 안전을 발견하려는 사람에게 어떠한 여지도 남겨두지 않았다. 율법은 모든 사람의 죄를 드러낸다 (3:20).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십계명 (출 20:1-17)에 대해 공부했다. 율법의 문자가 고려될 때까지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에 대하여 아마도 매우 선하다고 느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율법의 정신을 연구했을 때, 우리가 율법의 파괴자라는 것을 발견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3:20).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것이다.**

내가 어렸을 때, 동부 텍사스 깊은 곳에 사시는 할아버지를 방문했었다. 할아버지는 당신의 어머니에게 나를 데려가곤 했었다. 그녀는 내가 그녀와 같은 계통의 침례교에 속해 있는지 물곤 했었다. 나는 그렇지 않았었다. 그녀는 나의 어머니에게 말할 기회를 기다리곤 했었다. 그리고 그녀의 강의는 항상 같았다. "만일 네가 바른 교회를 가지 않으면 너와 너의 가족은 모두 지옥에 떨어질 것이야."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인지하는 대로 이런 저런 결핍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한다. 하지만 바울은 교만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 바울의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서만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관계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시작된다. 뿐만 아니라, 헌신의 진위는 우리가 차고 있는 인식표 -- 교파, 혹은 다른 표식 --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헌신을 다짐하고 그대로 사는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이다.

### 질문

1. 모든 사실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떤 사람이 당신을 판단했던 경우를 묘사해보시오.
2. 당신은 평계를 달 만한 죄의 영역이 당신의 삶 속에 있습니까? 당신의 죄의 영역과 당신이 갖고 있는 평계를 묘사해보시오.
3.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원하셨던 죄의 영역을 알게 해주셨던 때를 묘사해보시오.
4. 어린 아이였을 때 당신은 얼마나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까?
5. 책임을 지기 위하여 당신은 어떠한 질문들을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까?
6. 당신은 하나님께서 차별을 가지고 계신다는 인상을 준 적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 [보충]

###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

어느 수요일 밤, 한 초청 강사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나는 예배당 뒤쪽에서 어떤 소음을 듣기 시작했다. 뒷줄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주의 깊은 시선이 한 집사 부인의 뚫어지는 듯한 눈에 이르렀다. 나는 움직이는 그녀의 입술을 통해 그녀가 "어떻게 좀 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나는 무엇이 진행되고 있었는지 몰랐기 때문에, 설교가 끝날 때까지 "어떻게 좀 하는" 것을 기다려야만 했다. 잠시 후, 나는 한 걸인이 예배 중 들어왔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설교 중 자유 분방한 그 친구는 그 설교자에게 아주 상스러운 언어로 되받아 치고 있었다. 몇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그의 언어에 대해 매우 화가 났다.

신도들은 어떤 용어들을 경건치 못한 것으로 한정짓는다. 하지만 상스러운 것을 비난하는 얼마나 많은 신도들이 진정한 의미도 모른 채로 "주님"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면, 우리는 그의 이름을 거룩한 존경으로 행해야 되지 않는가? 행동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대적하는 우리의 행동들이 우리에 대하여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 [보충]

### 책임감

어느 여름, 나는 한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했다. 나의 수퍼바이저는 나에게 내가 해야 되는 것으로 정해진 것과 나의 방식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보여 주었다. 주기적으로 그는 갑자기 방문해서 내가 한 일들을 점검했다. 그는 하얀 장갑을 끼고 벽과 선반, 그리고 침대 밑 마루까지 점검했다. 비록 우리는 친구는 아니었지만, 그는 나에게 어떤 책임감을 갖게 했다.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산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질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다.

## 제 4 과

###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하나님의 해결책

#### 핵심 본문

로마서 3:21--4:12

#### 배경

로마서 3:21--4:25

#### 주제

비록 모든 사람이 평계할 수 없고 죄에 대하여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신다.

#### 탐구 질문

하나님 안에서 믿는 것으로 충분한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밖에 요구되는 것은 없는가?

#### 학습 목표

구원받기 위하여 믿음 외에 그밖에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보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것만을 믿도록 한다.

#### 강조된 텍사스의 우선 사역들

- \* 텍사스와, 온 나라와 세계의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라
- \* 교회 안과 온 세계에서의 사역을 위해 성도를 준비시켜라
- \* 기존 교회들을 강화하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라

#### 개요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에 빈손으로 그분 앞에 나온다. 비록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부족하다. 하나님 훌륭한 그분의 뜻대로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온다.

우리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나는 미시시피에서 한 교회를 섬겼다. 1년 뒤, 아내와 나는 아이들에게 텍사스의 뿌리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우리는 샌 안토니오에서 휴가차 머무를 계획을 가졌다. 글로리에나, 뉴 멕시코로부터 샌 안토니오로 여행하면서, 우리는 알라모(Alamo)의

이야기를 자주 했다. 호텔을 잡은 후, 영화를 보기 위해 아미맥스 (imax)로 갔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아이들을 샌 안토니오 가운데에 놓여 있는 옛날 선조지를 돌아보게 했다. 그 여행 안내자는 사람들이 텍사스 자유를 위해 알라모에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아이들에게 말해 주었다. 불가능한 일들을 접하면서, 그들은 어떤 사람이 그들을 구제하려 올 것이라는 불가능한 희망을 기대하면서 죽었다.

바울은 죄가 슬며시 스며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상기시켰다. 바울은 그들이 어떤 행함이나 존재를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어떤 희망도 주지 않았다. 오직 독자들이 그들이 지은 죄를 피할 수 있는 어떤 길도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한 뒤에, 바울은 그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하여 썼다.

###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셨다 (3:21-26).

의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선한 말들 중의 하나로 서있지만 여전히 나에게 어려운 말이다. 내 인생 가운데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싸우는 자들에게 그들의 교만을 토했고, 이 선한 말의 순수성을 왜곡시켰다고 추측한다. 의의 성서적 개념은 성서의 계약과 관계 속에 뿐리를 둔다. 신약 성경에서, 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온전한 믿음과 헌신을 묘사한다. 바울은 "의"를 "하나님"과 연결시킨다 (롬 3:21). 그러한 의는 율법의 문자를 지킴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의로와 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직 예수님만이 온 율법을 지키실 수 있었고 항상 그가 원하시는 모습으로 계실 수 있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온전한 신실과, 생명의 순수함, 그리고 느끼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완전함을 보여주실 수 있었다.

신자들이 경험하는 오직 참된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3:22) 온다. 이러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떤 사실들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사람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게 한다.

많은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열린 크루세이드 (Crusades)와 T.V를 통해 빌리 그래험 (Billy Graham) 설교를 들어왔다. 그래험 박사는 그리스도를 믿도록 전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초빙했다. 종종 그의 메시지는 믿음의 헌신은 마음과, 감정과 뜻이 함께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진정한 의는 개인적 믿음의 헌신과, 신자의 삶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우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로마서 1장은 이방인 세상에서 발견되어지는 많은 죄들을 제시한다. 이러한 죄들은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시켰다. 로마서 2장은 유대인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한 죄들을 제시했다. 로마서 3장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어떠한 차이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3:22). 각 사람의 죄는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시켰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 죄의 문제 속에 포함시킨다 (3:23). 곁으로 훌륭하게 보이고 행동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주일 학교에 앉아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모든"이라는 단어에 무언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각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각 사람 안에는 죄와 관련된 마음이 놀여 있다 (예레미야 17:9). 우리의 죄는 사람이 다양한 만큼 그렇게 다양하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지나치게 사악하고 명확한 잘못이다. 어떤 죄들은 실수로 -- 생각이나, 말,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에 있어서의 잘못으로 -- 묘사될 수 있을 것이다. 리 하비 오스왈드 (Lee Harvey Oswald)는 달拉斯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그가 존 에프. 케네디 (John F. Kennedy)를 암살했을 때 미국인들의 심장을 찢어 놓았다. 그의 죄악은 그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다행히도 우리 대부분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죄들로 살아가지는 않지만, 우리는 죄의 고통과 슬픔을 경험할 것이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상에 못 미치게 한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미워하시며, 그의 거룩하심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자복 하도록 요구하신다.

수년 전에 제시카 (Jessica)라고 불리는 한 작은 소녀가 텍사스 미들랜드에 있는 한 우물에 빠졌다. 사람들은 그 소녀가 다시 뛰어 놀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시간 동안을 애썼다.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어두운 늪에 빠져 있도록 내버려두시지 않는다. 그는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3:24).

구원을 이루는 것은 한 개인과 하나님 사이의 상호 협력적인 노력이 아니다. 하나님 훌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선하게 보여 지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다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3:24)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다.

자유롭게 되기 위해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는다. 그러나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값없이 의를 얻도록 하기 위해 그분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지불하시도록 했는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선하심의 렌즈를 통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마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던 사람처럼 보는 것을 선택하신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보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해 그 분의 자리에서 내려 오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다 (3:24).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죄를 헤아리셨고 그것과 관련된 모든 범죄들을 헤아리셨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에 대한 댓가를 완전히 치르시도록 하셨다 (벧전 2:24).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베풀시고 미래를 주신다.

로마서 3:23-24절 말씀의 연합성을 주목하라. 우리 모두는 죄인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마치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보시기를 선택하신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어느 늦은 오후 두 남자가 내가 막 교회를 떠날 즈음에 다가왔다. 그들은 두렵고 배고파하는 모습이었다. 나는 그들을 근처 식당에 데리고 가서 저녁을 사주었다. 그들의 식사비를 치르고 곧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나는 다시 그 두 남자를 보지 못했다. 그들이 한 끼의 식사를 원했다는 것과 내가 그것을 지불했다는 사실이 내 쪽이나 혹은 그들의 쪽에서 더 깊은 관계를 갖는 어떠한 열망 속으로 들어가게 하지는 않았다. 하나님의 방법은 얼마나 다른가!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보여줄 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말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부터 용서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 굶주린 남자들과 있었던 나의 경험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와의 어떤 관계를 원하신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화목 제물 (sacrifice of atonement)" 이셨다 (3:250). "화목 (Atonement)"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화해 사역 위에 세워진 조화로운 관계를 의미한다 (고후 5:19).

오직 죄가 올바르게 다루어질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 된 인간과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십자가는 죄의 공포를 영상화 시켜주는 죄의 기념비로써 서있다 (시편 51:7; 벤후 1:9). 그 속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봐 주시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심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가? 바울은 하나님의 칭의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그렸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삶에 있는 그림자를 드러내신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에 초점을 맞추는 한 그리고 마치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꾸미는 한,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안에 있는 우리를 만날 유일한 길을 제공하신다. 십자가는 우리 죄의 결과들을 드러낸다. 우리 죄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상상할 수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죄들은 그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이른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남아 있지 않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개인적인 죄를 숨기려는 어떤 사람의 주도, 주인도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의 두 팔을 여시고 그의/ 그녀의 죄의 추악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통제에 모든 삶을 맡기려는 모든 사람을 받으신다.

## 어떠한 대체물도 허용되지 않는다 (3:27-31)

한 친구가 나를 초대해서 어떤 달拉斯 하키 경기에 갔다. 지금까지 나는 하키 경기를 단 몇 분도 구경하지 못했었다. 그 팀이 그들의 첫 스탠리 컵을 향하여 질주 할 때 팬들은 더욱 더 그 팀이 승리하기라도 한 듯 나팔을 불어댔다. 몇 달 후 같은 응원을 샌 안토니오 스퍼 팬으로부터도 들을 수 있었다.

스포츠 세계는 단지 사람들이 응원하는 장소는 아니다. 나는 자신의 믿음이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아직은 성숙되지 못한 많은 논쟁들을 기억한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들에게 — 유대인이나 혹은 이방인이나 — 하나님이 자신들만을 위한 분이라고 주장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려는 여지를 조금도 남겨 놓지 않았다 (롬 3:29). 성경은 우리 중 누가 다른 사람과 반대되는 어떤 식으로 믿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어떤 침례교인들은 그들의 전도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은 사회 봉사를 자랑한다. 어떤 이들은 주일 학교에 그들의 자부심을 두고, 어떤 이들은 그들의 예산에 대해 자랑한다. 우리는 강단에서 전파되는 메시지의 종류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르고 부르지 않는 어떤 음악의 종류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가 어떤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어떤 성경을 다니지 않는 것으로 천국에 이르는 사다리를 오를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읽는 것"으로 말하지 않았음을 주목하라.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보다 그것에 대해 논쟁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주장하는 원리나 명령하는 행동들이 좋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개인적인 자랑을 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작년 여름 우리 교회는 텍사스 밸티스트 챌린저 (Texas Baptist Challengers)를 통해 4명으로 이루어진 한 팀을 케냐에 보냈다. 16살 된 소년들 중 하나는 많은 케냐인들이 자신들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깜짝 놀랐다. 이 초 신자들은 그들의 이름을 밝히고 나서 말하기를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소개할 때 이름을 밝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써 말한 적이 거의 없다. 나는 우리가 복음을 나눠준 그 사람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운다.

바울은 그들의 할례나 무할례로 자랑스러워하는 자들에 관하여 썼다 (3:30-31). 인간의 어떤 표식이나 활동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가?

##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라 (4:1-12)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써 그려진다. 유대인, 무슬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생애와

믿음을 연구한다. 하나님은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 아브라함을 계약백성의 아버지가 될 인물로써 선택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에 대한 그들의 혈연 관계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그가 행한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하는 데 실패했다 (눅 3:8).

비록 아브라함이 율법이 쓰여지기 전에 태어났지만, 그의 생애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도 역시 죄인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죄를 지었다.

때때로, 우리는 다른 영역에 사는 사람들을 장미 빛 안경을 끼고 쳐다본다. 내가 샌 안토니오에 살았을 때, 나는 알라모 (Alamo)에 관한 몇 권의 최신 책들과 기사들을 읽은 적이 있다. 그들을 중 어느 것은 그 싸움과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준다고 주장했다. 알라모 영웅들의 인간적인 약점들을 드러낸 책이나 기사가 나올 때마다, 야유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텍사스를 위해 싸웠던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보호하기를 원했다.

성경은 죄를 달콤하게 덮어두지 않는다. 아브라함은 죄를 지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롬 4:3). 비록 아브라함이 그의 생애 가운데 많은 선한 것들을 했지만, 그가 행한 어떤 한가지의 일이나 혹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지는 못했다. 만일 아브라함이 한 어떤 일이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할 수 있었다면 아브라함의 의는 선물이 아니었을 것이다 (4:4).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로서의 의에 대한 이 개념은 때때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야한 개인주의자들인 우리는 우리가 지킨 것을 얻기를 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통해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완성된 믿음의 시작 단계를 그의 말씀으로 단련시켜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그의 의를 개발시킬 수 있도록 하신다.

다음으로 바울은 개인적인 죄와 싸운 다윗의 이야기로 초점을 돌린다 (4:6-8). 비록 다윗은 자기의 죄를 숨겼다고 생각했지만, 그 죄는 매일 그의 마음을 괴롭혔다. 그는 그것을 피할 수 없었다. 그는 스스로 그것을 벗어나 보려고 애를 썼다 (시편 51). 도움이 될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았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양심의 가책이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다윗은 하나님께 그의 죄를 자백했고 하나님은 다윗을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셨다.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어느 것도 그의 이기심과 기만으로 인한 결과들을 바꾸어 놓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택하셨다. 용서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다시는 다윗의 죄를 그에게 거론하지 않기로 하셨고, 다시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 속으로 가져오지 않도록 하셨고, 그 죄가 다윗 안에 머물러 있게도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용서는 다윗에게 선물로써 왔다.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올바르게 하는데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하나님의 선물로써 왔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다. 유대인들이나 혹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할례를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표시로써 사용했고, 그들은 의가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선물이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실패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그의 몸에 그의 믿음의 상징을 가지기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상기시켰다.

### 고려해야 할 것

한 때 나의 가족이 살았던 그 낡은 집은 노쓰 왜코(North Waco) 마을에 서있었다. 엄마는 아이들이 얼마나 컸는지 나타내기 위하여 문설주에 표시를 하곤 하셨다. 나는 내가 나의 형제 자매들보다 키가 크다는 사실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뽐내며 걸어 다녔던 것을 기억한다. 그때 나는 내가 얼마나 크냐 하는 것에 아무런 것도 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었다. 나의 키 인치 인치마다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온 선물이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사람 저 사람들과 영적으로 비교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키 재기가 끝날 품이면, 우리가 거듭났을 때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부터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판단이 온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함은 우리 위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고, 믿음으로 성장한다. 그 밖의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열매이다.

### 질문

1. '의'란 무엇입니까?
2. 믿음의 헌신은 어떻게 지, 정, 의와 관련을 맺습니까?
3.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마치 죄를 한번도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간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 어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4. 당신과 예수님의 관계는 지금 어떻게습니까?
5. 당신이 어떤 것을 하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자부심이 그리스도인으로써 증거하는 삶에 어떠한 영향을 줍니까?
6. 다른 신도들의 삶에 있는 죄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보충]

### 서로 화해 하기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였다. 어떤 사람들은 이쪽 편에 앉았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쪽에 앉았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집에 모였지만, 한 안건에 대해 나뉘어져 있었다. 양 측 모두 그들의 표를 세고 있었다.

한 침례교 목사가 그 회중 모임을 중재하기 위해 초청됐다. 그는 강단에 올라서면서, 의자 하나를 강대상 옆으로 옮겨놨다. 그는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 모였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대상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런 후, 발언하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회 앞으로 나와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들을 대면하며 말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억하게 하는 그 의자 위에 한 손을 얹고 있어야지 말할 수 있었다. 그의 지혜롭고 온전한 말들은 싸움장과 같았던 그 곳에 평화를 가져다주었다.

그 중재자는 그리스도의 화목 사역을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문을 열어 주셨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함께 일하자.

## [보충]

### 진정한 용서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서 용서했다고 어떤 사람에게 말한 적이 있는가? 아마도 당신은 말로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말했지만, 그가/그녀가 당신에게 행한 잘못의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신은 여전히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저지른 죄의 길에서 우리를 만나시지만 진정으로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의 용서는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마치 우리를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대우하신다.

당신의 인간 관계에 있어서 당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당신의 삶 속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확장하기 위하여 어떤 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는가?

## 단원 2

###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로마서 5-8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 있는 구속 행위가 우리의 진 빛을 완전히 갚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풍부한 유익을 제공한다는 것을 증언했다. 인간에 대하여 처음에는 절망적인 분위기로 나타났던 것이 희망으로 바뀌었다. 사람들은 --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 죄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푸시기 위해 인간의 드라마에 들어오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두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구원은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유익을 가져다준다. 바울은 로마서 5:1-11절에서 최소한 세 가지의 유익을 언급했다. 이러한 유익들은 참된 기쁨을 가져다준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은 하나님의 "평화"를 제공한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끝이 난다. 두 번째 유익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소망은 단지 갈망이나 기원 이상의 어떤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곤란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확신이다. 세 번째 유익은 구원의 확신이다. 완전한 구원은 믿는 자들을 위한 실재이다.

로마서 6-7장에서, 바울은 새로운 생명 안에 있는 기쁨으로부터 그리스도가 제공하는 자유로 화제를 옮긴다. 침례의 의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줄거리의 하이라이트이다. 우리가 받은 침례 의식을 통해,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새로운 삶에 대하여는 부활한, 그리고 죄의 사슬과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림을 보게 된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하여 가르쳤다. 그는 하나님에 의한 양자 됨의 유익을 설명했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상속자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자녀로써 우리의 신분은 영원한 것이다.

이 단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것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가능해진 풍부한 축복들에 대하여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기뻐할 수 있고 (제 5과), 죄의 노예였던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고 (제 6과),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통해 승리하며 살 수 있다.

#### 단원 2: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제 5과 기뻐하라!

로마서 5:1-11

제 6과 자유하라!

로마서 6:1-14, 20-23

제 7과 승리하며 살라!

로마서 8:1-2, 12-28, 38-39

## 제 5 과

### 기뻐하라!

#### 핵심 본문

로마서 5:1-11

#### 배경

로마서 5:1-11

#### 주제

믿음을 통해 당신과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현재와 미래까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한다.

#### 탐구 질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좋은가?

#### 학습 목표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케 되는 것이 가져다주는 혜택을 표현할 수 있게 한다.

#### 강조된 텍사스의 우선 사역들

- \* 텍사스와, 온 나라와 세계의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라
- \* 교회 안과 온 세계에서의 사역을 위해 성도를 준비시켜라
- \* 그리스도인 가족들을 개발시켜라
- \* 기존 교회들을 강화하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라

#### 개요

사람들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 기쁨을 추구했다. 우리는 부와, 명예, 아름다움, 지혜, 마약, 알코올, 섹스, 군사적 힘, 쾌락, 정치적 위치, 그리고 심지어 가족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려고 시도해왔다. 어떤 영화 배우들과 운동선수들, 정치가들, 그리고 다른 많은 유명한 사람들의 비극적인 삶은, 세상은 이러한 순간적인 추구를 통해 영원한 기쁨을 성취하는데 있어서 거의 아무 것도 가져다 줄 수 없음을 보여 주었다.

어린 시절에 진흙 빵을 만들어 본 적이 있는가? 진흙을 가져와서 빵을 만들고 그것을 태양에 말렸던

것들을 기억하는가? 우리는 보통 그 빵에 나뭇잎들과, 도토리, 가지로 장식을 하고 그림을 그려 넣기도 했다. 아무리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해도 그것들의 실체를 바꿀 수는 없었다. 우리가 그것들이 찐빵, 호빵, 혹은 개떡이라고 말할 수는 있었어도, 마술을 부려서 그것들을 우리들의 엄마가 구워주신 빵들로 바꿀 수는 없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성취는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참된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다.

###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5:1-2)

여기까지, 바울은 칭의 (Justification)에 대해 고려했다. 칭의의 필요는 로마서 1:18-3:20에서 볼 수 있으며 칭의의 과정은 3:21-4:25에서 볼 수 있다. 이전의 말씀과 오늘 배우는 말씀 사이의 연결은 한글, 혹은 영어 성경보다 헬라어 성경에서 더욱 명확하다. 로마서 4:25절은 두 단어 "우리의 의롭다 하심 (Justification)"으로 끝난다. 로마서 5:1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으로 시작한다. 바울은 이제 칭의의 유익들을 설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칭의의 가장 첫 번째 결과는 우리가 기뻐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단어 "즐거워 하라"는 이 출거리에서 세 번이나 나온다 (5:2-3, 11).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즐거워하는 축복을 지적하고 있다.

"We have peace" (5:1, NIV)라는 구절은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다. 많은 고대 학자들은 그 구절에 King James 역이나, NIV, 그리고 다른 근대의 번역과 같은 의미로 해석했다. 다른 고대 학자들은 다른 식으로 읽는 것을 좋아한다 -- "let us have peace". 이것은 NIV와는 다른 식으로 이해하며 다른 현대의 번역판들이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New English Bible 과 Moffat).<sup>1)</sup>

왜 두 번역판들이 잇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아주 쉽다. 바울은 "칭의"의 개념을 복음의 생명적인 요소로써 결정적으로 확립하였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율법의 형벌로부터 벗어나 그들이 새로 얻은 자유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자주 충고했었다. 그 뒤에 따르는 구절로 볼 때 이 부분은 우리의 상태에 대한 묘사인 "우리가 평화를 갖는다 (We have peace)"로 보는 것이 권면의 묘사인 "우리가...화평을 누리자 (let us have peace)"로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같다. 하지만 양 측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이 있다는 것은 명료하다.

단어 "화평"은 그 의미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신약 성경에서 "화평 (peace)"은 절대 관계의

1) 한글 개역 성경은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로 번역하여 후자를 따르고 있다 (역자 주).

종식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그 의미뿐만 아니라 조화, 축복, 화해, 그리고 질서를 의미한다. "화평"은 그리스도인의 인사가 되었다. 바울은 그의 편지 인사말에서 자주 이 단어를 사용했다. 그러한 인사말을 할 때마다 바울이 그 서신의 독자들에게 적대관계를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도록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 단어를 인사말로 사용하면서 독자들이 잘 지내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기도를 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구절의 문맥 속에는 분명히 적대관계의 종식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의로와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다 (엡 2:14-16절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에 놓여 있다. 우리는 이제 화평의 유익들, 다시 말해서 조화, 축복, 화해, 그리고 질서를 누릴 수 있다.

게다가 그 평화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 (롬 5:2).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를 가로막는 것은 없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이 교제는 우리에게 가능해졌다.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걷고 말할 수 있다.

"소망"은 이 구절의 중요성을 더해주는 두 번째 단어이다 (5:2). "소망"은 단순한 기대나 갈망이 아니다. 신약 성경 기자들은 그 단어를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에 대한 확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했다. 내가 만일 나의 가장 좋아하는 팀이 올해에 챔피언컵을 얻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어떤 갈망이나 꿈 -- 그 팀의 실제 재능에 달린 -- 일 것이다. 내가 만일 이번 학기에 좋은 성적을 얻기를 기대한다면, 그것도 또한 어떤 기대나 꿈일 것이다. 좋은 성적의 실재는 나의 공부하는 습관이나 능력에 달린 것이다. 하지만, 신약 성경 기자들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그 이상을 의미했다. 그들은 사실이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개념을 믿었다.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지만, 어떤 미래에 완성될 것이다.

바울은 우리가 이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 (5:2; 3:23절을 보라)이 이제 우리의 청의로 말미암은 확실한 결과라고 우리에게 확증시켜준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하셨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회복된 것이다.

###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즐거워 할 수 있다 (5:3-8)

청의의 첫 번째 유익으로부터 두 번째 유익으로 바울 사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은 쉽다. 그는 이 주제에 대한 도입 부분에서 명확한 아웃라인을 제시한다. 그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유일한 유익이 아니라는

의미로, "다만 이뿐 아니라" (5:3)라는 말로 시작한다. 두 번째 유익은 이 같은 소망은 고난과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확신을 준다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어려움을 바라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당신이 곤란을 당하는 것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 그 고난의 삶을 인내로써 이겨낼 때 얻을 수 있는 강건함을 말해 줄 수 있다.

인생이 순조로울 때 소망을 갖는 것은 쉽다. "맑은 날씨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것도 새롭지 않다. 진정한 기독교는 단지 교회 예배당 의자에서가 아닌, 전쟁 참호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그 특성을 증명해야 한다. 사탄은 매주 주일 교회에 참석한다. 그는 모든 찬송가를 알고 모든 성경 구절들을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며, 종교적 믿음에 대한 그의 지식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갖고 있는 진정한 믿음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당신의 믿음은 순조로울 때나 괴로울 때나 당신을 떠받쳐 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권능과 열정 가운데서 즐거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새로운 관계가 제공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역경 가운데 있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준다. 바울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행 과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그의 독자들을 이끌어 가고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은 고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으로부터 만들어 낼 수 있는 결과 속에 있는 것이다. 영적 성장의 지속적인 진행은 우리의 당하는 고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인내 (perseverance)"를 낳게 할 수 있다 (5:3). 인내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헬라어로 이 단어는 참음(patience), 지탱(endurance), 인내(fortitude), 그리고 확고함(steadfastness)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고난은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인생에 심각한 실망을 야기 시키는 영향을 준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비록 우리의 현재 환경이 어두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인생의 불행 가운데서도 함께 계심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우리 안에 참는 확신을 낳게 함으로써 이것을 행하신다.

인내는 다시 "연단 (character)" (5:3)을 낳는다. 이 영어 단어 뒤에 숨어 있는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서 오직 바울에 의해서만 사용되어진다. 그 의미가 영어로 잘 번역된 것이다. 고난은 사람을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 속에서, 건실한 인격이 개발된다. 물론 환란이 자동적으로 좋은 인격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다. 인격의 개발은 그리스도인이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노냐에 달려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믿는 자의 협력이 필요하다.

건실한 인격은 "소망"을 낳는다 (5:4). 이것은 바울이 5:2절에서 언급했던과 같은 종류의 소망이다. 바울은 그 시대에 유행하던 철학을 뛰어넘어 말하고 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문제를 극기로 써참아 내거나 혹은 숙명적으로 어려움을 받아들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인 고난을 점증되는 경험으로써 보기를 원했다. 고난의 각 사건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전의 경험 위에 세워진다. 하나님께서 어제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고난을 위해 더욱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시켜 준다. 그리하여 그것은 인격을 세워나가도록 한다. 이러한 점증적인 효과는 어떠한 불행 중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이다.

"소망"은 인격 (연단)을 낳는다. 이 "소망"은 사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책임지시고 계시다는 조용한 확신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준비가 돼있는 수많은 천사들로 둘러싸여 그의 왕좌 위에 앉아 계신다. 결국에는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우리가 원했던 것과 정확하게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종종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그 고통을 멈추게 하는 유일한 길은 그 사람이 정상적인 건강을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환자의 고통이나 슬픔을 인간의 집에서 천국으로 부르는 것을 통해 끝나게 하실 수도 있다. 때때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품으로 보내도록 허용하는 것이 더욱 자비로울 수도 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요구에 No 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응답이 좋은 건강이든, 죽음이든 혹은 계속적인 고통이든 간에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심으로써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인생의 시련들을 당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기약대로 (at just the right time)" (5:6) 라는 구절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대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너무 빠르거나 혹은 너무 느리게 보내시지 않았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극적으로 죽었고 어떤 사람들은 말로 할 수 없는 공포가운데 죽었다.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청하는 것을 듣기를 그치지 않으셨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인내, 연단, 그리고 적당한 시간까지 참을 수 있는 소망을 주셨다. 많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약속을 성취할 것이라는 소망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갔다. 바울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그리스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는 아직 회개조차 하지 않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었다. 그리스도의 피 -- 그것을 죄의 댓가를 지불한다 -- 는 이미 믿었던 사람들에게 만 그 혜택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 심지어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지만, 믿음과 예수께 대한 헌신이 없이는 그들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게 된다. 구원은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예수 안에 그들의 믿음을 놓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 그는 모든 역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보시고 그로부터 이 것이 지나가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것은 죄가 어떠한 느낌을 주는 것인지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짐이었다. 그는 한번도 그의 영원 가운데 죄를 지으신 적이 없다. 그것은 거대한 고통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것을 하셨다. 그리고 그는 오직 한 가지 이유 -- 사랑 때문에 그것을 하셨다. 만일 이것이 기쁨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면, 인간에게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주는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즐거워 할 수 있다 (5:9-11)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또 하나의 유익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과의 완전한 조화는 훈들리지 않는 것이라는 확신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바울의 용어는 "화목"이다 (5:11). 바울은 이 단어의 형태를 두 구절 (5:10-11) 속에서 세 번을 사용했다. "화목"은 더 나아가 5:1에서 언급한 "하나님과 화평"을 정의한다.

"화목"이란 싸움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적대적이고 원수 관계에 놓여있는 두 나라, 혹은 두 사람 사이로 우리를 이끈다. 그 용어에 대한 바울의 용례에 있어서 그 단어는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 사람들의 불순종을 언급한다. 율법에 의해 정해진 의로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한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해 놓으신 과녁을 놓쳤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이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중재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 온전한 지불을 제공하신다. 우리가 진 빚은 완전히 갚아진 상태이다. 우리는 이제 의로와 진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니다.

칭의와 화목 사이에 커다란 차이를 만들려는 유혹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두 성서적 개념 사이에는 아무런 구체적인 차이가 없다. 그것들은 비슷한 것이다. 그 개념들은 서로 떨어진 것이 아니다.

다른 한쪽 없이 어느 하나를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죽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유익이 더해진다. 우리는 "그의 죽으심을 통해" (5:10) 구원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이 마지막 구절은 어떤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여 잘못된 신학적인 사상에 이르게 했다. 그 잘못된 사상은 구원은 사실 두 가지를 통해서 온다는 것이다 -- 하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죄 없는 삶을 통해. 하지만,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의한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죄 없으신 삶 이상 가는 것으로 용서를 받는다.

그 구절에 대한 보다 더 좋은 이해를 얻기 위해 바울이 이 구절에서 "생명"이라는 단어로 의도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을 일컫는다. 예수님은 살아 계신다. 그러한 사실로 인해 우리는 즐거워 해야 할 더 큰 이유가 있다. 살아 계시는 그리스도는 우리 기쁨의 근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죽음 이후에 생명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은 범죄의 종식을 의미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 "더욱 (how much more)" (5:10)이라는 구절은 우리 안에 내재된 풍부한,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고 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가로막거나 우리를 위협하지 못한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기뻐할 참된 이유인 것이다.

화목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이다. 우리 스스로를 축하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신다. 우리의 책임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가 받아들일 때, 기뻐하는 것이 시작된다.

## 질문

1. 로마서 5:1-11절에 따르면 의롭다 하심(칭의)을 받은 자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2. 당신의 구속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발견해보셨습니까? 왜 기쁠테니까? 왜 그렇지 않습니까?
3. 인생 가운데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얼마나 잘 극복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이 인내에 대하여 제시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4. 인생 가운데 심각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다양한 도움의 종류들을 말해보시오.

5. 개인적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에 대한 더 깊은 이해 속으로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 [보충]

#### 기뻐하라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의 너무나 많은 즐거움을 제거해버려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써 사는 삶에 매력을 잃도록 해버렸다.

올리버 웬델 홀즈 주니어 (Oliver Wendell Holmes, Jr. 1841-1935)는 수년동안 미국 최고 법정의 한 멤버였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존 마샬 (John Marshall) 이후 가장 위대한 재판관이라고 말했다. 홀즈는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그의 직업 선택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고 전해진다. "나는 내가 알고 있던 한 성직자가 장의사 같이 보이거나 행동하지 않았다면 성직자의 길을 걸었을지 모른다."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모든 면에서 가장 행복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생 고난의 끝이 무엇인지 확신에 찬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우리는 인생이 어떻게 끝나는지 안다. 그것은 실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승리로 끝난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은 단지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뿐이다.

진정한 기쁨의 원천을 발견해서 당신의 친구들, 가족, 그리고 동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보여주도록 하라.

### [보충]

#### 인내, 연단(인격), 그리소 소망

초대 침례교도들은 텍사스에 침례교회들의 설립에 대한 계속적인 장벽에 부딪쳐야만 했다. 1824년 멕시코 법정은 로마 카톨릭을 유일하게 승인된 국가적 종교로 설정했다.

조셉 L. 베이즈 (Joseph L. Bays, 1796-1854)는 텍사스에서 처음으로 알려진 침례교 설교자였다. 그는 사빈 강 (Sabine River)을 따라 돌아다니며 설교했고 1820년에는 텍사스 땅에서 그의 첫 설교를 했다. 1823년, 샌 펠립 (San Felipe)에서 설교할 때 멕시코 정부는 그를 체포했다. 그는 탈출했고 루지애나 (Louisiana)로 돌아왔다. 나중에 그는 텍사스로 돌아왔고 샘 휴斯顿 (Sam Houston)과 친구가 되었다. 베이즈는 샌 안토니오에서 설교했으나 정부로부터 중단 명령을 받았고 그 지역을 떠나야만 했다. 그와 그의 아들은 1836년 샌 자킨토 (San Jacinto)의 전쟁에 참여했다.

당신이 1820-1823년에 텍사스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다면, 당신은 그만 두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용기를 가졌을 것 같은가? 초기 침례교도들은 어떤 장벽에 부딪칠 때 하나님께서 "인내와 연단과...소망" (로마서 5:4)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다.

## 제 6 과

### 자유 하라

#### 핵심 본문

로마서 6:1-12, 20-23

#### 배경

로마서 6

#### 주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능력으로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하며 사는 것이다.

#### 탐구 질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 당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당신을 자유하게 했는가?

#### 학습 목표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를 주장해온 정도를 스스로 평가하고 이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돋는다.

#### 강조된 텍사스의 우선 사역들

- \* 텍사스와, 온 나라와 세계의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라
- \* 교회 안과 온 세계에서의 사역을 위해 성도를 준비시켜라
- \* 그리스도인 가족들을 개발시켜라
- \* 기존 교회들을 강화하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라

#### 개요

그리스도인 생활의 자유는 종교적인 규칙과 인간이 만든 종교적인 관습으로부터 해방시켜 준다. 종교적 사상 안에 기독교인의 생활을 규칙이나, 의식, 그리고 교회 전통의 준수 정도로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예수님이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틀에 박히고, 지나친 행동 규례들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이다.

기독교는 종종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의 어떤 리스트로 축소된다. 내가 어렸을 때 사람들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춤을 추어서는 안되고, 술, 담배를 하면 안되며, "저주"하거나

성적인 문란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던 것이 생각난다. 오늘, 나는 그 리스트에 대하여, 그리고 나의 개에 대하여 생각해본다. 내 개는 춤추러 가지 않고,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고, "저주"하지도 않으며, -- 수술을 해서 --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을 하지도 않는다. 그 리스트에 따르면 나의 애완견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임이 틀림없다.

확실히, 이것은 비상식적인 생각이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행동규범이 예수님과의 진정한 관계에 대한 대치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 또한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한 사람의 예수님과의 관계는 -- 단지 "규범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된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새로운 생명과 함께 시작한다 (6:1-7)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남겨 놓은 주제를 6장에서 곧 시작한다. 그는 죄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해방된 것이다. 죄는 더 이상 우리를 노예로 삼지 못한다. 우리는 새 주인을 만난 것이다.

바울은 두 가지 질문과 로마서 6장을 시작한다 (6:1). 그 질문들은 바울이 조금 전 로마서 5장에서 말했었던 것이 토론할 가치가 있다는 바울의 인식을 보여준다. 그는 전에 3:8절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으나, 거기서는 그것을 곧 접어두었다. 하지만, 로마서 6장에서 그는 더욱 상세한 설명을 제시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같은 죄를 짓는 것은 바울에게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다. 바울은 어떤 자들이 죄의 형벌로부터 새로 발견한 그들의 자유를 앞으로 저지를 죄악 된 행동을 정당화하는데 사용할 것이 염려되었다. 이러한 생각의 흐름은 마치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죄를 짓기를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나도 모두 좋게 하자. 나는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 것이다. 바울은 그러한 논리적인 쇼킹을 발견했다. NIV 는 6:2절 "결코!"라고 번역한다. KJV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라고 번역한다. 이러한 단어들 뒤에는 강한 헬라어 구절이 있다. 아마도 우리 식으로 한다면 "결코 아니다!" 혹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써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다.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졌다. 결과적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죄 안에서 행복할 수 없는 것이다. 양이 돼지 무리 가운데서 행복하기란 불가능한 것이다. 양이 돼지 무리 "안"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양은 매우 불행한 동물이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의 하나인 침례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옮긴다. 침례의 상징은 로마서 6:3-5절에서 명확하고도 아름답게 설명되어진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는 죽은 것이다. 침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의 그림이다. 그리하여, 오직 침수에 의한 침례가 침례(baptism)의 정확한 그림인 것이다. 침례 받을 사람은 물 속에 똑바로 서 있게 된다. 죽음을 상징하기 위하여, 그 후보자는 물 아래로 잠긴다. 사람은 그 속에서 살 수 없다. 만일 사람이 거기에 너무 오래 머무르게 되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 후보자는 마치 무덤에서 사람이 일어나듯, 물 속에서 물 밖으로 일어난다. 그리하여, 침례교인들은 우리가 침례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지낸바 되었다가 일어나서 새로운 생명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을 믿는다.

침례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물은 특별한 힘을 갖고 있지 않다. 침례를 주는 사람은 죄를 용서하기 위한 아무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침례 받을 후보자는 그가/ 그녀가 침례탕에 들어갈 때 이미 그리스도인이 돼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침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침례 (baptism)의 다른 어떤 형태나 방법 속에서는 그 상징을 잃어버린다. 침례의 다른 어떤 형태로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묘사했던 그림을 보여줄 수 없다. 결과적으로, 침례교도들은 침례의 참된 그림으로써 침수를 주장해왔다.

신약 성경에서 침례는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결단한 사람의 신앙 위에서 즉각적으로 행해졌다. 기다리는 시기들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결국, 그리스도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은 즉각적으로 침례를 받았다. 옛 것은 버려졌다. 새로운 생각과 행동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을 따르고 그 이후 즉시 침례를 받는 것이다.

새로운 사고 방식 중의 하나는 그리스도의 명령과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다. 성기고, 순종하고, 그의 뜻을 수행하려는 우리의 열망이 가득 차야만 한다. 죄악 된 생활을 계속 하려는 바로 그 생각은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상한 일이다. 우리는 돼지 무리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죄악 된 행동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6:6-7절을 보라). 감사하게도,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유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는 경험이 거의 혹은 한번도 없다. 하지만, 바울 시대는 노예는 평범했다. 주인은 자기 맘대로 노예를 사거나, 팔거나, 때리거나, 담보로 물리거나, 죽이거나 혹은 무시할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노예는 그의/ 그녀의 소유자의 자비 아래 있었다.

로마법은 노예에 대해 명확했다. 노예들은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주인은 노예를 자비와 온유로 혹은 고통과 잔혹함으로 다룰 수 있었다. 노예들은 많은 돈이 들여야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인들은 좀처럼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노예는 결코 개인적인 관심을 추구하는 자유가 없었다. 주인의 규칙들은 아무 말 없이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바울은 노예의 비유를 사용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주인으로써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오시기 전 우리의 상태를 지적했다. 우리는 죄의 멍에 아래 있었다. 그것은 잔인한 주인이었다. 죄는 우리를 남용했다. 그것은 자비가 없었고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었다.

이제 그것이 모두 바뀌었다. 삶에 대한 우리의 옛 방식은 지나갔다. 우리는 새로운 주인을 모시고 있다. 우리의 옛 주인(죄)이 나타나서 우리를 잡아당기려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우리의 새로운 주인에게 맞추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이나 혹은 죄인 되었던 과거를 따르지 않는다. 우리는 해방된 것이다.

#### **자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 속에서 성장할 때 자란다 (6:8-14).**

로마서 6:8-14절에서 바울은 삶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논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온 것이다 (6:8). 침례 의식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 일어난다. 그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해주는 것으로써 우뚝 서 있다.

바울은 "우리는... 안다"라는 말로 6:9절을 시작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상식이다. 그것은 아무도 논쟁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이다. 그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고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가 다시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망은 지나갔다. 사망은 그리스도에 대한 주인이 아니다.

죄는 항상 그 종말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 그래서, 만일 죽음이 정복당하면, 죄도 정복당하는 것이다. 사망은 죄가 패배한 곳에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사망에 대한 그리스도의 정복은 결정타였다.

바울은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도덕적 결과들을 강조했다 (6:11). 우리가 얻은 새로운 자유는 자라서 우리의 행동과, 생각들과, 삶을 위한 방향들에 스며든다. 행함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선행은 구원받은 생명 안에서 자라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단과, 죄와 죄된 삶을 물리칠 것인가에 대한 이해와 지식 속에서 성장한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번의 행위였다. 그는 죄와 사망을 이기기 위해 죽으셨다. 그는 다시 그러한 행위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식 때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신다고 가르친다. 그러한 시각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 문자 그대로 다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몸 안으로 들어온다고 보는 것이다. 침례교인들은 강력히 반대한다. 이 구절에 근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형을 오직 한번만 겪으셨다는 것을 안다. 그의 단번의 죽음과 부활은 모든 시대를 위해 충분하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모든 믿는 자들은 영원토록 죄와 그 모든 요구들로부터 해방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살아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산 자로 여겨야 한다 (6:11). 헬라어 본문에서 문자적으로 바울은 "그러므로 또한 너의 자신을 산 것으로 간주해라" (저자 역). 이 문장은 헬라어로 명령어이다. 그것은 순종을 위한 명령인 것이다. 그것은 논쟁을 삼을 수 있는 단순한 말이 아니다. 그것은 확증을 요구하는 생각이나 혹은 개념인 것이다.

이 명령구 뒤에 나오는 말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과 성숙으로 자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종교적인 용어로, 이것은 "성화"이다. 우리는 미숙한 신앙과 부족한 지식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해 갖고 계신 진리의 확신을 향하여 나아가야만 한다.

로마서 6:12절은 전에 언급한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이다. "그러므로"는 바울의 사상에 대한 극치를 가리키고 있다 (6:12). 죄는 사람이 죄의 요구를 따를 때만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권세를 깨드리는 방법들을 주신다. 우리는 거부할 수 있는 도움을 갖고 있다.

우리 몸의 어떤 부분도 죄를 다루시는 그리스도의 도움 밖에 있지 않다. 우리의 마음은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한다. 전에 우리를 죄로 이끌었던 우리의 몸의 각 부분들은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죄의 요청을 따르는 압도적인 유혹을 막아낼 수 있다 (6:12-130. 하지만, 이것을 이루는 것은 평범한 의지력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의 몸을 드려야만 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은 이제 우리 안에 살아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 도움을 받는다. 성령님은 우리의 양심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

이 예화를 생각해보라. 모든 성공적인 다이어트는 배고픔을 만족시키면서 건강한 습관들을 유지할 수 있는 절제와 격려의 형태로 진행한다. 하지만, 종종 사람은 어떤 종류의 음식에 대해 못 참는다. 그러한 지나친 탐닉은 다이어트를 실패하게 만든다. 쵸콜렛, 스테이크, 감자, 칩, 더블 미트, 더블 치즈 햄버거들로 배를 가득 채우는 일은 건강을 해친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들이 이러한 탐닉의 사이클을 끊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대부분의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음식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변화시킨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은 음식이 자신의 탐닉을 위해서가 아니라 에너지와 좋은 건강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필요하다는 태도를 개발시켜야 한다. 먹는 것은 자루함이 닉칠 때 하는 어떤 것이다, 보상이 아니다. 이와 같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 그들의 몸을 맡기는데 그 이유는 그분을 섬기는 것이 이러한 죄의 유혹들을 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의 자유는 인간이 만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의 목록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교제를 필요로 한다.

## 참된 자유의 결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6:20-23)

의로운 삶은 죄악 된 삶과 반대되는 것이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옳은 행동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다. 우리는 오직 무언가를 기대하고 옳은 행동에 대해 생각했었다. 우리가 만일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심각한 처벌을 받게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제하곤 했지만, 오직 그때뿐이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모른 때일지라도 옳은 것을 행한다. 그는/ 그녀는 처벌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다.

그러한 생각은 6:20절의 바울의 언급 속에 들어있다. 6:21-23절에서 바울은 더 나아갔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써 우리는 과거에 저질렀던 많은 악행들에 대해 이제 부끄러움을 느낀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행한 것들에 대해 후회할 것들을 가지고 있다. 만일 우리가 다시 그것을 행하면, 우리는 다르게 행동할 것이다. 어떤 과거의 행동들은 만일 오늘 다시 행하게 된다면 커다란 부끄러움을 야기 시킬 것이다. 우리의 부끄러움은 그리스도인으로써 이제 그러한 행동들에 대해 커다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실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써 우리의 새로운 신분은 그러한 무절제한 행동들의 어리석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어떤 그룹에서든 과거의 삶이 대체적으로 선행의 모델이었던 개인들도 있다. 최소한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다. 그러한 사람들은 선택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어떤 행동, 생각, 혹은 죄악된 말을 기억하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3:23). 아무도 완전히 의로운 사람은 없다. 욕심이나 질투는 탐욕의 한 형태이다. 절제되지 못하는 분노는 사악한 것이고, 심지어 살인과 같은 것이다. 거짓말은 비난받을 만한 일이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이나, 헐뜯는 것이나, 혹은 지나친 잡담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죄를 너무 나누어서 죄의 겉모양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보다 더 의로운 것처럼 느끼도록 허용하지는 않는가?

모든 죄는 불순종이다. 사람은 그가/ 그녀가 자신을 나쁘다고 생각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죄인이다. 모든 죄는 사망과 지옥으로 이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죄의 범주를 나누는 것은 죄의 본성을 잃어 먹도록 할 수도 있다. 죄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범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삶을 바라볼 때,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얻었는가를 물어보아야 한다 (6:21). 죄로 얻은 그 것들은 영원한 것인가? 우리가 천하를 얻고도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22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는 비유를 주목하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축복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이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6:22).

로마서 6:23절은 경건함과 선행의 유익을 요약한 것이다. 죄는 댓가를 지불한다. 죄로부터 받은 댓가는 죽음 -- 영원한 형벌 --이다. 그것은 고통이지만 단지 처벌이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먹어서는 안될 열매를 먹으라고 했을 때 범죄 한 것이다. 그는 하와에게,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거짓말을 했다. 죄는 눈에 보암직하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과 떨어져 영원토록 고통의 세계에서 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또한 댓가를 지불한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우리는 죄와 그 형벌인 죽음으로부터 보호받는다. 죽음 대신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받는다. 그러한 생명은 아름다운 생명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이고, 보상과 즐거움의 생명이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생명인 것이다.

로마서 6장의 핵심적인 줄기는 죄의 권세와 지배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다. 죄는 이전에 노예 된 우리의 주인이었다. 죄는 우리를 그 권세로 끌어 놓았었다. 죄의 그 잔혹한 소유력은 우리를 짓밟고 남용했다.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댓가를 지불하셨다. 구속의 빛이 갚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자비로운 주인 밑에 있는 것이다.

우리의 새 주인은 우리에게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죽음은 더 이상 지옥에 이르는 문이 아니다; 그것은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 질문

1. 당신이 침례 받았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어디에서 침례를 받았습니까? 몇 살이었습니까? 강이나, 시냇물, 연못, 호수, 혹은 육조에서 침례를 받은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2. 누가 당신의 영혼의 주인입니까 -- 죄? 아니면 그리스도?
3. 전에 당신이 죄를 저질렀던 영역에서 승리한 적이 있습니까?
4.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죄의 이름들을 거론할 수 있습니까? 또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죄들을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각각의 범주들을 어떻게 보신다고 생각합니까?

5. 당신을 압도하는 죄의 유혹을 느낄 때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까?

### [보충]

#### 침례

침례는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산물이 아니었다. 그리스도 시대에 많은 이방 종교들은 침례와 같은 어떤 의식들을 행했다. 대체로 그것은 그 종교의 신앙에 들어오는 신분을 입증해주는 의식이었다. 흔히 그것은 정결을 나타냈다. 어떤 종교는 피의 침례를 행했다. 신도들이 구덩이에 들어가면 그 위에서 황소가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하면, 그 황소의 피가 그들 위에 떨어졌다.

그리스도 시대에 유대인들은 침례를 행했다. 그것은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기 위해 진행되는 한 과정이었다. 그 새로운 입교자는 할례를 받아야만 했고, 침례를 받은 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드려야만 했다. 나중에는 그것이 느슨해져서 실제로 제물을 드리지 않고 그 대신에 돈을 내게 하는 것이 허용됐다.

요한이 침례를 주러 왔을 때 그의 대적자들은 침례주는 것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들이 물었던 것은 그가 육신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난 자들에게 침례를 준다는 것이었다. 그는 유대인들이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공격했다.

침례는 항상 침수에 의한 것이었다. 성서시대에 다른 침례에 대한 다른 어떤 형태의 기록도 찾아 볼 수 없다. 유아 침례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 [보충]

####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아무 것이든 하라?

성 어거스틴 (St. Augustine, 354-430 AD)은 괄목할 만한 초기 기독교 시대의 지도자요 사상가이었다. 그가 남긴 한 말이 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아무 것이든 하라." 언뜻 보면,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자기 멋대로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듯 하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반대인 것을 알 수 있다.

어거스틴의 말을 다시 한번 살펴 보라. 그는 말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결혼 생활에 있어서 자기 짹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행동을 절제하게 만든다. 아내에 대한 혹은 남편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무관심한, 상처를 주는 혹은 신뢰할 수 없는 행동들을 못하게 한다.

어거스틴이 "당신이 원하는 아무 것이든 하라" 앞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놓은 것은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결혼의 비유로 돌아가서, 결혼에는 많은 자유가 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이기적인 생활로 이끄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즐거움을 찾기 앞서 먼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당신은 어거스틴이 제시한 것과 같이 살 수 있는 충분한 자유가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가운데 여전히 당신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가?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전에 원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써 하고 싶은 새로운 것들이 있는가?

## 제 7 과

### 승리 하며 살라

#### 핵심 본문

로마서 8:1-2, 12-28, 38-39.

#### 배경

로마서 7-8

#### 주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통제하에 사는 것을 허용할 때 삶의 문제들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

#### 탐구 질문

삶의 어려움들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면 살 수 있는가?

#### 학습 목표

반원들이 하나님의 통제하에 사는 것을 통해 얻는 유익을 깨닫고 그들이 그렇게 살수 있도록 결심하게 한다.

#### 강조된 텍사스의 우선 사역들

- \* 텍사스와, 온 나라와 세계의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라
- \* 교회 안과 온 세계에서의 사역을 위해 성도를 준비시켜라
- \* 그리스도인 가족들을 개발시켜라
- \* 기존 교회들을 강화하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라

#### 개요

오랜 투쟁 끝에 승리가 찾아 올 때면 축제의 분위기가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이 순조로울 때 즐거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순조롭게 가지 않을 때는 어떠한가?

여러 면에서 볼 때, 우리의 삶은 2차 대전 후 패전국가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과도 같다. 1945년 5월 7일, 독일군은 유럽전역에서 완전히 항복했다. 1945년 9월 2일, 일본이 항복문서에 조인했다. 이로 인해 온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었다. 패전국가에 사는 사람들조차 자유를 느낄 수 있었다. 승리한 연합국의 보복이 우려되었지만, 아마도 역사상 처음으로 승자의 용서와 관대함이 나타났다. 이들

승전국들은 민주주의의 기초가 확고히 되는데 이바지했다.

연합군의 승리는 적대국들에도 그 영향을 미쳤다. 패전국들의 영토뿐 아니라 연합군의 영토 내에서도 해방과 자유를 기념하며 즐거워하기 시작했다. 회복의 길은 힘들고 요원하게 보였지만, 새로운 강대국들은 엄청난 관대함을 보여주었다. 독일과 일본은 비록 전쟁에서는 졌지만 여러 면에서 활기차게 살았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했었지만,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로 우리가 이제는 그 분에게 속하게 되었다. 승리자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관대했고 은혜를 베푸셨다. 진정한 축제의 날인 것이다.

### 죄는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힌다(7:7-25)

우리는 바울을 "신격화"- 죄 없는 사람처럼 묘사하려는 시도- 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하늘 문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여느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그도 죄와 싸웠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이러한 죄와의 싸움을 묘사하고 있다. 그는 헬라어의 현재시제 동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14-23절에서 더욱 그렇다. 현재시제는 현재 시간에 일어나는 행동을 언급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삶 속에서 죄의 욕망들과 싸우고 있음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고백함으로 죽음의 형벌에서 자유로와 지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을지라도, 죄의 경향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다. 죄는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한다.

자신도 탐심의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바울은 이 끊임없는 싸움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7:7-12). 율법이 그의 선생이었다. 율법은 바울에게 두 가지의 길을 가르쳐 주었다. 첫째, 율법은 욕심 내는 마음이 무엇인지 바울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가 율법을 알기 전에는 탐심을 무엇이라 불러야 할지 몰랐었다. 율법으로 말아암아, 자기를 괴롭히던 죄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게된 것이다. 둘째, 율법은 바울로 하여금 탐심을 갖도록 부추겼다. 율법은 "탐내지 마라"(7:7) 가르친다. 무엇이 탐심인지 알게 되었을 때, 바울은 이 마음을 갖게된다. 그는 금지된 것을 구했다. 율법은 바울 안에 있는 탐하는 욕망을 일깨워주었다.

어린아이들에게 하지마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어린아이로 하여금 그것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의 목록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한 행동을 더욱 하도록 원인을 제공한다. 이런 금지된 행동들에 매료되도록 사람을 이끈다.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바울의 갈등은 7:14-23에 아주 자세히 나타나 있다. 그는 옳은 일을 하기로 결심하였지만, 자신의 결심을 지킬 수 없었다. 다시는 탐내지 않기로 맹세했지만, 옛 사고로 급격히 추락하곤 했다. 자신이 미워하는 그 행위를 하였다. 죄된 생각을 멀리하려고 시도한 선한 일들은 할 수 없었다. 자신의 힘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절망 가운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7:24)이라고 절규하는 것이다. 그러자 영웅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예수그리스도께서 달려가 바울을 구하고 그에게 응답을 주셨다(7:24-25).

삶 가운데서 죄와 싸우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누구도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보살펴 주지 못한다. 누구도 그리스도가 이룬 기적을 행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급히 우리에게 달려와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해주신다.

###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신다(8:1-2)

로마서 8장은 1-7장 이후에 비추는 환한 빛과 같다. 바울에게 주어진 계시의 최고봉인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 확신을 주는 등대와도 같다.

로마서 8:1의 처음에 '그러므로 이제' 라 번역될 수 있는 헬라어가 나온다. 바울은 이 말을 로마서 곳곳에서 사용하고 있다(5:18; 7:3, 25; 8:1, 12; 9:16, 18; 14:12, 19). 그는 이 말을 사고의 연속이 아니라, 반대되는 생각을 보이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바울은 바로 전에 나오는 7:25에서 '나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말했다. 바울이 '그러므로 이제'라 말했을 때는 반대되는 생각이 나옴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

8:1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정죄함이 없음"이다. 기쁨에 겨운 눈물과 흥분, 그리고 웃음을 자아내는 말이기에 분명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는 안도감인 것이다. 이는 모든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의 평결을 기다리는 법정과도 같은 장면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는 평결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속하게 우리를 도우신다. 그는 깨끗이 도말 하시고, 값을 다 지불하시고, 모든 기록에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므로 더 이상의 사망선고는 없다. 죄책감조차도 사라져 버렸다. 우리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나, 잘못, 실패함, 참혹함 등의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제 그리스도안에 있음으로 우리의 죄는 사라졌다. 그의 보혈이 우리의 잘못을 덮어버린다.

그리스도인만이 이 평결에 온전히 감사할 수 있다. 죄에 빠진 영혼을 소유한 사람은 여전히 자신이 저지르는 잘못을 보지 못한다. 마음속에 즉시 변호하는 생각이 떠오른다, "난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아무개만큼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왜 그 사람을 구원하셨죠?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그 아무개가 더 나쁜 짓을 한 것이 사실 일수도 있다. 그러나 그 아무개는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한 그리스도의 역사를 믿었다. 그 아무개는 죄인이었지만, 새롭게 태어남으로 인해 죄를 용서받고 다른 평결을 받게 된 것이다. 그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에 대한 죄의 선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속함을 믿는 성경공부반 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이기도 하다.

8:1-2에 나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는 성령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다. 우리 안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신다. 그리스도인이 된 각 사람은 "생명의 성령"을 받는다(8:2). 생명의 성령은 사망의 율법과 다르다. 율법은 사망을 낳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생명 그 자체이다.

그러나 성령님도 한 가지 '법'을 가지고 온다. 율법이 죄를 통치하듯이 성령님은 생명을 통치하신다. 죄의 법은 사망이다. 성령의 법은 생명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사망이 없다. 진실로, 하나님은 모든 믿는 이들의 생명 안에 계신다. 그러기에 영생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것이다.

###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상속자로 삼아주신다(8:12-17)

8:10에 나오는 '그러므로 이제'를 뜻하는 헬라어가 8:12에도 나온다. 마찬가지로 이 말은 극적인 대조를 보여준다. 바울은 계속되는 그의 가르침 속에서 새로운 사고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이다. "성령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8:13).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사는 것은 영생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하나의 유익을 준다(8:14).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이나 악한 욕망의 자녀가 아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가족으로서 새 가정에 대한 충성과 의무를 지닌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것이 사실이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태어난 사실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서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된 양자이다.

바울이 로마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입양에 대한 로마의 가족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로마인은 아버지가 절대적인 권위와 통솔력을 가지고 있었다. 초기 로마법에는, 아버지가 문자그대로 자녀들이나 노예들에 대한 생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아들이 나이가 얼마나 들던지 간에 여전히

아버지의 절대조정 하에 있었다. 아버지는 원하기만 하면 자녀들을 노예로 팔 수 도 있었다. 노예를 사들이는 자가 밟아야 할 적법한 절차이기도 했다.

정말로 놀랄 일은 입양에 따른 결과들이다.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결과가 뒤따른다.

\* 입양된 사람은 그전 가족과 관련된 모든 권리들을 잃는다. 그러나 그 집에 태어난 사람과 똑같이 입양된 집안의 모든 권리를 누린다.

\* 다른 아들이 태어나도 아버지의 재산을 분배함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 입양된 자녀의 모든 빚은 탕감된다. 그는 더 이상 과거와 관계가 없다-부채라도.

\* 입양된 자녀는 새 아버지의 전적인 자녀가 된다. 새 아버지는 입양된 자녀의 합법적인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 그 아버지는 입양된 자를 다시 팔 수 없다. 그 관계는 영원하다.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도 적어도 이 만큼의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abba)"라(8:15)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은 어린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는 '아빠'라는 말이다.

나는 아빠(dad)를 부를 때 "아버지(Father)"라 불러본 기억이 없다. 그 말을 쓴 유일한 때는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였다. "아무개씨, 이 분이 저의 아버지입니다." 가정에서 아빠와 함께 있을 때는 그냥 "아빠"라 불렀다. 나와 남자 형제만이 그 말을 쓸 수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아빠"가 아니었다.

###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신다(8:18-28)

에덴동산에 나타난 인간의 죄가 창조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계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 인간의 부주의한 죄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창조계에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피조물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8:19). 피조계의 현상은 역사가 그 종말을 향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시이다. 결국에, 하나님은 피조계를 바꾸실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새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이다. 우리의 새로운 미래는 현재 시작된다. 그러나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우리도 하나님의 최종적인 영광의 행위를 고대하며 기다린다. 피조물이 마지막날 다시 회복됨을 기다리는 것과 정확히 동일하게 우리도 그 날을 고대한다(8:22-23). "우리가 알거니와"(8:22)라는 말은 이것이 널리 알려진 사실임을 말해준다. 이사야는 "새 하늘과 새 땅"(사 65:17)에 대해 예언하였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첫 시작인 것이다.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이다(8:23).

비록 우리의 양자 됨이 매우 분명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우주 전체가 알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

현재로서는 우리는 아직 시간과 역사의 마지막에 다다르지 않고 있다. "소망"이 필요로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8:24-25).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소망은 단순한 소원이 아닌 확신이다. 소망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요소를 품고 있다. 소망은 보이지 않는다. 소망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일뿐더러 아직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확실한 일이다. "우리가 소망한다"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안다"는 말이다.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성취됨을 인내하며 기다려야만 한다.

또 한편으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오신다(8:26).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최선의 것인지를 알지 못할 때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지만, 그 뜻이 우리의 것과 맞지 않을 수 있다. 성령께서 도와주신다(8:26). 성령님은 우리의 이해의 범주를 벗어나는 거룩한 언어로서 우리를 중재해 주신다. 인간의 표현을 넘어서 어떤 것들을 말씀하신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제목이 되어야 할 것들을 정확하게 꼭 집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8:27).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 드려진 기도를 아신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 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8:28). 성경의 본문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선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음에 주의하라.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라도 그것을 사용하셔서 좋은 일들이 되게끔 하신다는 것이다.

또한 주의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일들을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8:28)을 위해 하신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안에 있다면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29-30절은 예정과 선택에 대한 교리를 언급하고 있다. 이 교리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일반적으로 침례교인들은 하나님에 의한 선택과 하나님에 반응하는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 이 두 가지를 다 믿는다는 것이다. 곁으로 보기에도 모순되는 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 이 두 가지가 다 성경에서 분명히 발견되는 것들이다.

###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확실히 보장하신다(8:38-39)

이 두 구절은 침례교의 중요한 교리중의 하나로 믿는 자들의 구원이 보장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시므로 어느 것도 그것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시험에 들었을 때 이 구절이 큰 위로의 말씀이 된다. 로마서 1-8장의 절정이다. 마귀도, 하늘에 천사도,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떤 권세도,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안에서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

믿는 자의 구원은 너무나 확실해서 믿는 자 자신도 천국에 거하게 될 운명을 스스로 바꿀 수 없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으며, 또한 행위로 인해 잃어버린바 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이는 그리스도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 질문

1. 로마서 7:7-25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죄에 대한 고민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까?
2. 오래 전에 지은 죄로 인해 괴로워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가? 오늘 본문이 어떤 도움을 줍니까?
3. 집안에 입양한 아이가 있습니까? 친부모들과 비교해 볼 때 그 아이가 더 사랑 받는다고 생각하는가 혹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동일하게 사랑 받습니까?
4. 하나님께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할지 몰라하던 때가 있었습니까?
5.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가운데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 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셨습니까?
6. 그리스도안에서 있음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의심해 본적이 있습니까? 로마서 8:38-39절이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 【보충】

#### 성령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내주 하심은 신약성경의 중요한 교리중의 하나이다. 성령님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다. 성령의 역할은 죄를 가르쳐 주고, 힘들 때 격려해 주며,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하며,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다양한 은사들을 공급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에 대한 보증수표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가운데 항상 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맛보게 해 준다.

침례교인들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극단적인 교리들을 따르지 않아 왔다. 대부분의 침례교인들은 아픈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와 이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 많은 이들이 기도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병 고침을 받는 것들을 목격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소위 말하는 faith-healers( 즉, 아무 다른 도움을 구하지 않고 믿음으로만 병을 고쳐야 한다는 주의자들)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나타내 보이는 양으로 하는 병 고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의로운 사람의 간단한 기도로도 충분하다. 어떤 다른 병고침의 수단들은 침례교인들의 예배에서는 낯 설은 것이다. 병고침의 천 조각, 기도냅킨, 병고침의 기름이나 기도보다 특별한 효과가 있다는 여겨지는 주문 등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긴다. 성령님께서 행하지

않을 일도 올리브 기름을 사용함으로써 행하게 만든다는 것이 가능한가?

방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 지나치게 강조하지 말라고 고린도 교회에 주의를 주고 있다. 바울을 염려케 했던 지나친 정도는 여전히 이 시대에도 존재한다. 방언을 말함이 때로는 교만케 하고, 당파를 만들고, 혼란케 하며, 성도간의 교제를 해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4:9,23에서 말한 것과 같이 세상 사람들을 어리둥절케 만든다. 이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혼란을 일으킨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령의 은사들을 질서 있게, 알맞게 주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고 성령님이 계시는 유익이고 기쁨이다. 분열케 하는 은사들보다는 덕을 세우는 것들을 사모하라.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한 은사들 중에 당신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 [보충]

### 입양

텍사스 침례교는 입양을 돋는 일을 오랫동안 지속해 왔다. 미 전역에 걸쳐 많은 부모들이 텍사스 침례교가 운영하는 입양기관들을 통해 자녀들을 입양하였다. 또한 예전의 철의 장막이라 불리는 나라들을 통해서도 입양을 추진해왔다. 텍사스 주총회 산하의 복지부는 공산권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을 입양하기 위해 유럽 침례교 연맹과도 협력하고 있다.

대충 말하자면, 아이를 낳는 것보다도 아이를 입양하는 것이 돈이 훨씬 더 듦다. 재정적인 부담은 차라리 부수적인 사항이다. 부모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모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들의 집, 취미, 생활양식, 재정상태, 그리고 인격 등을 세심히 관찰하게 된다. 이 모든 것들이 만족되더라도 오랫동안 기다려야 한다. 임신해서 기다리는 9개월 정도 보다 더 기다릴 때도 있다. 또한 입양할 아이가 있어야 하는 가도 변수가 된다. 또한 아이가 그 집에 온 이후에는 담당관이 입양 후 방문을 수 차례 실시한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가정은 입양 후 2년 정도까지 아이를 기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 **단원 3,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이 단원은 로마서 9 - 11장을 다루고 있다.. 이 단원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 공부하게 된다. 또한 구약에서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신 것에 대한 그들의 거부에 비추어서, 유대인들의 현재와 과거의 역할에 대한 바울의 질문을 다루고 있다. 즉 바울은 9 - 11장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들을 다루었다: 하나님께서 족장들과, 사사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게 약속을 하신 이후, 이방의 신자들을 통해 주로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한 현재,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한 약속들을 수행하고 계시는가?

이 단원은 두 과로 만들어졌다. 이 과들은 반원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이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바울이 어떻게 조화시키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제 8과는 로마서 9 - 10장을 다루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위해 일하도록 어떤 사람을 예정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공부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하는가에 대해서도 고려할 것이다. 한편, 9 - 10장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복음에 반응하게 해서 그들이 구원의 사역에 한 부분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도 한다. 또한 사람들은 그러한 일에 선택할 자유가 있다. 여기서 대치되는 두 가지의 다른 교리가 확연하게 나타난다. 이것이 바울을 혼동스럽게 했고 오늘날 우리를 혼동시킨다.

11장을 다루고 있는 제 9장에서 바울은 그 두 가지 신조를 조화시키고 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스라엘과 일을 끝내지 않았다고 말함으로써 11장을 결론 짓는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을 구할 것이다.

이 단원은 당신이 바울의 주장과 결론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적용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제 9과는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책임," 그리고 제 10과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공부이다.

### **단원 3: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제 8 과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책임      (롬 9:1-8; 10:1-21)

제 9 과 하나님의 긍휼                          (롬 11:13-36)

## 제 8 과

###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책임

#### 핵심 본문

로마서 9:1-8; 10:1-21

#### 배경

로마서 9:1-10:21

#### 주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밭도록 선택한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나누는 책임이 있다.

#### 탐구 질문

구원의 메시지에 대해 반응하기 위해 사람들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

#### 학습 목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책임에 관한 바울의 논점을 정리하도록 돋는다.

#### 강조된 텍사스의 우선사역들

- \* 텍사스와, 온 나라와 세계의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라
- \* 교회 안과 온 세계에서의 사역을 위해 성도를 준비시켜라
- \* 기존 교회들을 강화하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라

#### 개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자유의 복합성은 수세기 동안 많은 신학자들을 혼란스럽게 해왔다. 성경에서 두 가지의 가르침에 대한 어떠한 쉬운 대답도, 간단한 설명도 찾아 볼 수 없다.

한 엄마가 옷 두벌을 내놓고 아이에게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엄마는 아이에게 물기를 "이 옷 두벌 중 어떤 것을 오늘 입고싶니?" 그 아이는 한 옷을 고르고 다른 것은 남겨 놓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반응에 대한 한 예이다. 그 엄마는 사실 그 아이가 입을 수 있는 옷을 두 가지로 제한 시켰다. 그 아이는 그 둘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요나를 생각해보자. 요나는 선택할 수 있었고 선택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그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특정한 결과들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어야만 했다. 우리를 모두도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과 같은 "자유 선택"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심각한 결과를 책임져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 우리가 아니라 – 그러한 결과들의 한계를 결정하신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무제한적인 자유는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교리 사이에는 어떤 긴장이 있다. 이 과는 이 긴장을 탐구할 것이다.

###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9:1-8)

로마서는 쉽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1) 교리적 -- (1-8장), (2)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 (9-11장), 그리고 (3) 윤리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들 -- (12-16장). 중간 부분인 9-11장은 논리적, 문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서신의 필연적인 부분은 아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관련시키기를 원했다. 이 부분이 사람들의 죄인된 상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같은 바울의 이전 설명에 필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는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알고자 오랫동안 기도해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얻고자 했다.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의 교회와 --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와 그것을 나누기를 원했다.

9-11장 전체는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즉, 유대인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다. 그들은 약속을 받았고, 계약과, 율법,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를 받아 왔었다. 하지만, 약속된 메시야가 왔을 때, 유대인들은 그를 거절했다. 이젠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끝장인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과 맷은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한 것인가?

바울은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장을 썼다. 로마서 9:1-5절은 바울의 고노를 보여준다. 그는 9:1에서 자기가 진실하다고 세 번이나 다짐했다. 먼저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참말을 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진실됨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의 신실함을 증명하기 위해 성령을 의지한다.

바울의 슬픔은 너무 커서 그는 만일 어떻게든 그들을 구원시킬 수만 있다면 자신과 동료 유대인들의 상태를 바꾸고 싶은 심정에까지 이르렀다 (9:2-3). 사도는 지금은 영어의 한 부분이 된 단어 -- 아나떼마 (9:3)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것은 헬라어에서 매우 강한 단어이다. 바울은 만일 유대인의 현재 상태를 바꿀 수만 있다면 자기가 영원한 "저주"를 받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바울은 그의 백성이 구원받는 것을 보기를 원했다. 동족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생각을 할 때마다 바울은 거의 참을 수 없었다.

오늘날 바울이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들은 아직 그리스도인 아닌

사랑하는 사람을 갖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 없이는 그들의 아들, 딸, 어머니, 아버지, 아내, 혹은 손자들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안다. 그들의 슬픔은 진정한 것이다. 그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간구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어떤 식으로든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모든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목사들, 성경공부 교사들, 집사들, 그리고 교회 친구들이 중보 기도팀 명단에 기록되어진다.

바울은 9:4-5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많은 특별한 권리들을 기록한다. 유대인들은 메시야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절이 되어야만 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31:33-34; 33:14-18에서 예언한 새로운 계약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 전파하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 이스라엘의 기쁨의 근원이기를 원하셨다. 복음은 먼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다 (롬 1:16).

바울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9:6-8에서 역설법을 사용했다. 실상,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하지 않았다. 바울은 그의 논점을 증명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족장을 --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 이야기를 했다.

먼저, 바울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9:6)라고 언급한다. 이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아니다. 야곱(이스라엘)로부터 나온 모든 사람이 그의 진짜 후손은 아니었다. (나는 9:6에서 처음 언급한 이스라엘의 의미는 야곱이라고 이해한다: 창세기 32:28절과 로마서 9:6-13절을 보라.)

바울은 그의 9:6에 있는 그의 사상을 다음과 같은 사실에 근거했다. 즉, 야곱의 모든 자손들이 야곱이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믿었던 것은 아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혈족을 근거하여 자신들이 야곱의 자손이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적인 유산에 근거해서는 그들을 야곱의 자손이라 할 수 없었다. 야곱은 하나님의 계시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이었다. 야곱은 윤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야곱은 구원받기 위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했다. 그의 종교적 행위로써 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야곱)의 어떤 자손들은 단지 가짜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었다. 12명중 단 한 명만이 야곱과 맺은 하나님의 계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이였다. 그것은 그의 네 번째 아들 유다였다. 역사가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은 실현되어졌다. 예수님의 가계는 유다를 통해 왔다. 게다가 유다는 예수님 시대에 남아 있었던 나라였다. 에브라임(혹은 북 왕국)은 사라진 상태였다. 심지어 베냐민 족속조차도 유다의 한 부분이었다.

바울은 또한 그의 논점을 증명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다 (9:7). 아브라함을 그들의 혈통적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주장할 수는 없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와 진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할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행해졌다. 아브라함은 할례가 행해지기 오래 전에 이미 믿는 자였다 (롬 4장).

게다가 아브라함은 한 명 이상의 아들이 있었다. 이스마엘 역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다. 하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노령이 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했던 아들이 아니었다. 이삭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었다 (9:7). 이스마엘이 아브라함과 하갈의 아들인 반면,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적의 아이"였다. 어느 누구도 -- 최소한 아브라함과 사라는 -- 사라가 임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것은 아브라함(창 17:17)과 사라(창 18:12) 모두에게 충격적인 일이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웃고 말았다.

그리하여,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자손들은 선택하셨고 어떤 자손들은 버리셨는지를 보여주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을 선택하셨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을 결정하셨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한 몇 가지 예화를 드는 것으로써 9장을 마무리한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고 에서를 버리셨다 (9:10-13). 바울은 9:16에서 깜짝 놀랄만한 언급을 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행위와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선택한 아무에게나 긍휼을 베풀 수 있고 그분이 선택한 아무에게나 자비를 보여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변덕스럽고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게 하는가 (9:19절을 보라)? "결코 아니다"라고 바울은 선포한다 (9:20절을 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 안 하시다 말할 수 있느냐? 바울은 그러한 교만한 생각을 꾸짖었다 (9:19-29).

그렇다면 바울의 결론은 무엇인가? 9:30-33절을 보라. 이 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선택하시고 유대인들을 버리셨다는 것은 명확하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선택하셨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버리셨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나오려고 했기 때문에.

### 인간의 책임 (10:1-21)

9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어떤 자들은 선택하고 어떤 자들은 버리시는 분으로서 설명한다. 9장을 읽고 어떤 다른 결론에 이르기는 극히 어렵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선택과 예정에 대한 바울의 견해에 움찔한다. 그들은 인간이 "자유" 선택권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은 구원 받을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을 예정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하나님은 -- 그들의 생각에 -- 예수님을 믿거나 그분을 거부하도록 사람들을 억압하지 않는다.

10장에서, 바울은 완전히 신학적인 국면에 들어선다. 바울은 10장에서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위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을 보기 갈망하는 언급을 다시 함으로써 10장을 시작한다 (10:1).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다고 인정한다. 거의 아무도 이 생각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의 그 어느 백성도 유대인만큼 하나님을 갈망하는 백성은 없다. 그러나 그들의 열망은 방향이 잘못 되었다.

바울은 기록했다,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좋은 것이 아니라." (10:2). 언뜻 보면 그 말이 이상할지 모른다. 어떻게 유대인들은 그 지식을 가질 수 없었을까? 하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었던 그 지식은 단지 율법과 그 요구들을 아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선지자의 가르침을 아는 것이 아니었다.

이 경우, 단어 "지식"은 "올바르게 아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바울의 이전 열심은 잘못 방향 되어진 것이었다. 이와 비슷하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구원을 보장해주는 이스라엘의 특별한 신분이 아니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 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613개의 세부 법으로 만들었다. 바울은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지켰다고 주장했다 (빌립보서 3:6절을 보라).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제사장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 온전함에 다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중요한 의와 긍휼의 문제들을 무시했다 (마태복음 23:23절을 보라).

반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셨다. 그러므로 그는 "율법의 마침" (로마서 10:4)이시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인간의 613개 법들을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의를 위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을 지키셨다.

구원은 인간의 의로움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해방을 얻기 위하여 율법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했다 (레위기 18:5). 그것은 사실 그대로의 진술이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바울에게는 성경은 구원이 그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다는 것을 명확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복음 (기쁜 소식)은 사람이 깨닫는 것보다 더욱 가깝다. 유대주의가 쳐놓은 모든 옮가미에 -- 규례들, 의식들, 그리고 관습들 -- 짜이는 것이 아닌, 자신의 마음과 혀가 구원에 이르는 통로인 것이다. 각 사람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제시에 반응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던 9장과 매우 다르게 보일지 모른다. 여기 10장에서 바울은 만일 믿기만 하면 복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해당된다고 말했다.

로마서 10:9절은 나의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다. 나는 이 한 구절을 전도할 때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사용한다. 대학생이었을 때 나는 설교학 강의를 택했다. 각 학생은 설교를 작성할 구절을 할당받았다. 그것은 내가 처음 준비하거나 처음 전한 설교는 아니었다. 그러나 설교 준비의 기술에 대한 지침을 받은 후 처음 준비한 설교였다. 나는 아직도 그 설교원고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그것을 사용한다. 아마도 이것은 내가 이 구절을 좋아하는 이유일 것이다. 그 말씀은 세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진다 (10:9): (1)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2)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3) "구원을 얻으리니." 그것은 마치 나에게 수학 등식과 같이 보인다. (1) + (2) = (3). 그것은 나에게 매우 간단하게 보인다. 침례식을 할 때, 나는 각 침례 받을 사람들에게 그가/ 그녀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그의/ 그녀의 마음에 믿는지 물어본다. 그들이 "예!"라고 대답하면, 나는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의 믿음의 고백 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라고 말한다.

어린이 부서에서 말할 때도, 나는 이 구절을 대화의 근본으로 사용한다. 그것은 아주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놓치고 만다. 그들은 구원이 좀더 힘들거나, 혹은 좀더 긴 과정의 일, 지식, 그리고 단계들이기를 원한다. 그렇지 않다. "그것은 당신의 입과 당신의 마음에 있다" (10:8).

이것은 마음이 의롭게 되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당신 안에 있는 믿음이 우선이다. 그리고 나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 스스로도 대중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셨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대중 앞에서 선포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의 믿음에 이상이 있는 것이다 (마 10:32-33).

바울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확증했다. 로마서 10:14-15절은 성경의 또 하나의 위대한 구절로 우뚝 서있다. 교회 안에서 성장한 우리들 대부분은 그것을 오래 전에 배웠다. 이 구절은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진정 사실이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 Everyone (NIV)"은 혹은 "누구든지 Whosoever (KJV)" 구원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반응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로마서 10: 14-15절에서 교회를 향한 선교적 명령을 발견한다. 이 구절들이 어떤 그리스도인의 생각 속에서 단지 "직업적" 선교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이 구절들은 교회의 전체를 향한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절들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의도하신 것이다.

대부분의 "직업" 선교사들, 혹은 "교회의 봉급을 받는" 사역자는 당신이 일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과, 혹은 당신의 이웃들과 이야기할 기회조차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어떻게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을 수 있겠는가? 교회는 모든 신자가 사역자이며 선교사임을 가르쳐야만 한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우리의 간증을 믿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과거에도 그랬다 -- 예를 들면, 이사야의 시대 (롬 10:16) -- 그리고 오늘날까지 사실로 남아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반응할 것이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신자들의 한 예로써 지적한다 (10:20).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안에 포함 될 것이라고 약속 하셨다 (10:19). 불행이도, 이 약속은 이스라엘에게 기쁨이 아니라 질투를 낳게 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국 안에 이방인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싫어했다. 그들의 시기와 질투는 불순종을 낳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이유였다. 그 결과는 그 자신들에게 돌아가고 말았다.

여기에 역설이 있다. 유대인들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질주했고 결국은 그것을 놓쳤다. 하지만, 구원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인준에 전혀 관심이 없이 행동해 왔던 그들에게 왔다.

바울은 비록 모든 사람이 구원의 올바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10:16-21절을 보라) 고 언급함으로써 10장을 마무리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사람들을 선택하시지만, 또한 인간이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을 통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신다. 이 가르침은 조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오, 그러나 그것은 조화를 이룬다!

서구 사고에 있어서, 두 개의 완전히 대치되는 말은 둘 다 사실일 수 없다. 그러나, 동양적 사고에 있어서는 -- 그리고 그것은 성경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 문화이다 -- 그것은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인간은 책임적이다.

## 질문

- 당신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거부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선택하시고 이스마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의 대답은 로마서 9:11-13, 16절과 조화를 이룹니까?
-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자유를 주셨습니까? 절대적인 자유? 아니면 제한된 자유? 자유가 없다? (답을 할 때 9:17-18절 말씀을 참조하시오)
-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5. 당신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에 대한 복음을 활발히 전파하는데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까? 왜 그럴습니까?

## [보충]

### 예정과 선택

"예정 (predestination)"에 대한 영어의 원어인 헬라어는 미리 구분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단어 (프로오리조, proorizo)는 신약성경의 바울 서신에서 주로 나타난다. 예정되는 것은 사람의 행위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다. 로마서 9:11-13절에서, 바울은 이 점을 명확하게 했다.

로마서 9장은 예정의 개념에 대한 바울의 가장 길고도 가장 알찬 설명이다. (그 단어 자체는 8: 29-30절에 나타난다.) 바울은 또한 그 교리를 에베소서 1: 4-11절에서 어느 정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예정에 대한 교리를 결코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모래에 머리를 파묻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 교리를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대개 그 가르침을 모든 성경 말씀 가운데서 만족시키려고 부적합한 대답을 발견한다.

헬라어 "선택 (election)"은 선택받음 (chosen)을 의미한다. 그 용도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가르침에서만 거의 발견되어진다. "선택하다 (elect)"는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할 때 두 번째로 자주 사용되는 단어이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성도"이다. 하나님의 백성들 -- 그리스도인들 -- 은 "택함 받은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다.

때로, 교사들은 하나님의 예지 (foreknowledge)가 어떤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선택의 이유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로마서 9:11-13절은 명확히 그 반대로 말한다. 하나님께서 미리 역사를 쭉 훑어보셨고, 유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기꺼이 이루는 것을 보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 하셨던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을 인간에 의지하게 할뿐만 아니라 성경과도 배치된다. 하나님은 인간에 의존하지 않는다.

싸우스웨斯顿 침례신학교에 있는 나의 신약학 교수였던 커티스 보건(Curtis Vaughn)은 이렇게 말하곤 했었다: "여러분, 그것은 마치 문 입구 위에 "어느 누구나 들어와도 좋다" 라고 써 있는 것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을 통과해 들어간 후, 뒤돌아 봤을 때 그 입구 문 반대 쪽 위에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하여 부른 것이다."라고 써어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Vaughn 박사는 비록 내가 성경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내가 말할 수 있도록 가르쳤다. 이것은 예정과 선택에 대한 지혜로운 설명인 듯 싶다.

## [보충]

### 우리의 선교사적 의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만일 우리가 텍사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 나가게 되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그리고 사역자로서 보기 시작해야 한다.

텍사스에 있는 사람들 중 약 800만 명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람들은 기독교에 능동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도 않거나, 혹은 단지 명칭 상으로만 "그리스도인"이다. 어떤 이들은 한 때 지역교회의 활발한 그리스도인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탈퇴 했거나, 혹은 기독교로부터 떨어져 나간 상태이다.

텍사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당신의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 제 9 과

### 하나님의 긍휼

#### 핵심 본문

로마서 11:13-36

#### 배경

로마서 11장

#### 주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구원받은 것이지 다른 사람보다 구원받기에 나온 것이 없다는 것을 경손히 기억해야 한다.

#### 탐구 질문

당신은 불신자들보다 얼마나 더 나은가?

#### 학습 목표

반원들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묘사할 수 있도록 한다.

#### 강조된 텍사스의 우선사역들

- \* 텍사스와, 온 나라와 세계의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라
- \* 교회 안과 온 세계에서의 사역을 위해 성도를 준비시켜라
- \* 기존 교회들을 강화하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라

#### 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당신의 약속을 지켜 오셨고 계속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져 나가지는 않았다. 복음으로부터 등을 돌린 지금의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은 이방인을 포함하여 그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다.

가족 안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아이를 가질 수 있다. 그 장애는 아마도 다른 아이들이 그와 비슷한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더욱 뚜렷하게 보일 것이다. 부모는 그 장애아이에게 더 많은 관심과, 시간,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해서 그 아이가 최고의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특별한

배려란 그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 그 아이의 다른 형제 자매가 받아야 할 어떤 관심, 시간, 그리고 자원들을 취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부모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할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 예화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한 배려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긍휼의 중재가 없었다면 이방인들은 희망이 없었을 것이다.

### 이스라엘의 남은자가 현재 교회 안에 있다 (11:1-12)

바울은 그의 독자들이 하나님께서 결코 그의 약속을 깨뜨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었고, 동시에 그는 그리스도의 새 나라에 속한 자였다. 우리는 초대 그리스도인의 대부분이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로부터 퍼져 나가기 전에 그것은 유대 땅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를 위해 일할 사람들을 모두 전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초대 교회 지도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나누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베드로, 바울, 바나바, 그리고 다른 지도자들은 복음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이라는 것을 점차적으로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다. 사도들조차도 그리스도의 전세계적 사명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다.

사도행전 15장에서 많은 토론과 논쟁 이후, 초대 교회는 이방인들이 먼저 유대인이 되지 않고서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모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결정을 따른 것은 아니었다. 유대주의자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선교적 열매들을 훼손 시켰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그들과 논쟁을 했고 그 논쟁은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 전서의 일부에서 계속 되었다.

로마서 11:2-4절에서, 바울은 인간을 구속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기 위해 엘리야를 예로 들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생각하고 오직 자기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아남은자로 생각했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엘리야에게 엘리야 외에 7000명의 참된 선지자들을 낭겨놓으셨다고 말씀하셨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남은자를 갖고 계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남은자를 통해 그분의 약속을 지키신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을지라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 돌아올 것이다.

## 돌감람나무 가지가 교회 안에 있다 (11:13-24)

바울은 이스라엘을 위해 감람나무(올리브 나무)의 비유를 들었다.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 많이 있었고, 지금도 역시 그렇다. 그 나무는 오늘날 이스라엘의 어떤 동전에도 새겨져 있다. 오늘날 이스라엘을 여행할 때, 민가의 뜰에서 자라는 감람나무뿐만 아니라, 이고 저곳에서 많은 감람나무 과수원을 볼 수 있다. 감람유는 일상생활에 필요했다. 그것은 많은 용도로 사용되었다. 연고(약)로 사용되기도 했고, 램프의 연료로서, 요리할 때의 기름으로서 사용되었다. 그래서 감람나무가 그 당시 매우 익숙한 것이었고 누구나 잘 아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한 예로 사용할 수 있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다 (11:13). 하지만, 이것이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전파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울은 이방인들이 복음에 매우 수용적이라는 것을 -- 유대인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 발견했다는 것이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심지어 바울의 회심 (사도행전 9:15; 15:7; 22:21; 또한 사도행전 13:46절을 보라; 갈 1:16; 2:7-9) 당시에도 언급되었다. 결국, 바울은 회당으로 설교하러 가곤 했다. 그가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두 거부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는 곧 이방인들에게 갔다. 어떤 지역에서, 그는 주로 이방인들에게만 전파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한 그의 설교가 유대인들이 그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도록 관심을 끌기를 원했다. 그리하여, 시기심이나 질투로서 유대인들을 자극시키면, 어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로마서 11:16절에서, 바울은 감람나무의 비유를 들기 위한 기초를 놓았다. "처음 익은 곡식"과 "뿌리" 첫 두 용어로, 바울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언급하고 있다. "떡덩이"와 "가지"에서 바울은 구약을 통해 쭉 내려온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하고 있다.

바울은 로마서 11:17-21절에서 감람나무의 비유를 계속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야기 방향을 바꾸었다. 그는 그 비유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시키기 위해 사용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태도에 잘못이 있었다. 그들의 교만과 오만, 그리고 자만심은 그들이 타락하게 했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돌감람나무" 가지에 비유했다 (11:17). 돌감람나무 가지들은 실제 환경에서는 본래의 감람나무에 접붙여지지 않았다. 바울은 이 것을 그의 예화를 완성시키는데 사용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그 과정을 비정상적이고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묘사했다. 그 묘사는 또한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커다란 감사의 빛을 쪘다는 것을 전달한다. 유대교는 기독교를 위한 풍부한 유산을 제공한다. 아브라함의 많은 믿음의 자손들은 진리의 횃불을 각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했다. 이방인 신자들은 이제 그 풍부한 유산을 물려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참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접붙이기 위해 참감람나무에 있는 몇 개의 가지들을

잘라냈다. 그 접붙임 과정은 간단했다. 농부는 그 가지를 잘라내서 그 잘린 끝 부분에 진흙을 발랐다. 그는 참감람나무의 구멍에 그것을 집어넣고 천이나 지푸라기로 그것을 둑었다.<sup>2)</sup> 11:24절에서 바울은 돌감람나무 가지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이는 그러한 과정이 자연적으로는 모순된다는 것을 가리켰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다 (11:17-22). 하나님께서 그 접붙임 과정을 마치기 위하여 참감람나무 가지를 제거했지만, 하나님께서 유대인보다 이방인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나은 것은 아니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다른 나라보다 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했다고 믿었다. 유대인의 그 교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한 이유를 잊게 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도록 유대인을 택하셨다. 예수님 -- 약속된 메시야 -- 은 세계 복음화의 촉진제였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믿음의 부족과 불신 때문에 제거 됐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다. 결국, 그들은 온 열방에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을 거절한 것이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역시 하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 그들을 이스라엘과는 다른 특별한 지위나 특권을 누리도록 한 것은 아니었다. 미래의 특권에 대한 보장도 역시 없었다. 이방인들은 특별한 지위나 편애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었다. 이방인들은 구원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받지 않았다. 구원은 그들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온 것이 아니었다.

이방인들이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권리이요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인 것이다. 바울은 감람나무의 뿌리가 그 가지들을 보전하는 것이지 가지가 뿌리들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환기 시켰다 (11:18).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최선의 것을 행하신다. 아무도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 무어라 할 수 없다. 과거에 가지들을 꺾으셨던 하나님께서는 만일 그렇게 하기로 결정만 하면 다시 그렇게 하실 수 있다 (11:21절을 보라).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 하나님의 인자로 인하여 구원을 누리는 것이다 (11:22). 11:22절이 하나님의 인자와 엄위를 모두 언급하고 있음을 주의하라. 너무나도 자주 기독교의 일부분만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면만, 혹은 엄한 면만 강조된다. 이것은 불행한 일이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시각은 하나님의 자비와 엄위가 공존한다는 사실의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며 동시에 엄하신 분이다.

---

2) Robert H. Mounce, Romans, The New American Commentary, vol. 27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5), 220.

진보주의적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의 관대하심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하나님이 오직 자비하시고, 선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용서하시며, 참으시는 분으로만 보이는 것이다. 때때로 사람들은 "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처벌하신다고 믿지 않아"라고 말한다. 이에 대한 나는 이렇게 반응한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파괴하시기 위해 바벨론을 보냈을 때 유다에 내린 그 심판은 얼마나 가혹했는지 아는가?" 유다의 패배는 유대인들에게 심한 고통을 가져다주었다. 어떤 이들은 죽었다. 다른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모두 다 자신들의 재산을 잃었고 자유를 박탈당했다. 또한 그 패배는 가족을 갈라놓았다. 하나님께서 오직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근본주의적 기독교는 하나님의 절대성만 강조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엄하고 완고하신 분으로만 비쳐진다. 죄뿐만 아니라 그러한 죄를 짓는 사람들도 비난을 받는다. 규칙과 법규만 철저히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최선의 삶인 것처럼 강조되어진다. 대부분의 규칙들은 오직 곁으로 드러난 행동에만 관여하고 그 행동 뒤에 숨어있는 생각들이나 느낌들은 전혀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한 그러한 배타적인 강조는 하나님의 자비만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잘못 된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성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갖게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부르는 자를 용서하신다.

바울은 하나님의 엄위와 자비 양면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시각을 선택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도록, 그들이 계속 믿음 안에서 거하도록 하기 위해 이방인들에게 자비로우셨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는 엄하셨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순종했고 불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준비하셨다, ".....만일 그들이 불신에서 떠나면"(11:23),<sup>3)</sup>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다" (11:23).

로마서 11:23-24절에서, 바울은 11:1절에서 했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버리셨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전의 상태로 회복할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

하나님께서 돌감람나무 가지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하신 것은 자연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이었다. 아마도 그 반대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참감람나무 가지를 돌감람나무에 접붙이기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하셨다. 그렇게 접붙이기하는 것은 자연과 위배되는 것이었다.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이기한다는 것은 비논리적인 행위였다. 한편,

3)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글 개역성경은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역자가 현대적 용어로 바꾸었다. 참고로 NIV는 "...If they do not persist in unbelief"로 기록하고 있다.

만일 하나님께서 참감람나무 가지를 가지가 잘려져 나간 참감람나무의 부분에 붙이는 것을 선택하신다면, 그 과정은 더욱 쉬울 것이다. 그 참감람나무는 자기 자신의 가지들과 더욱 잘 접붙여질 것이다 (11:24). 바울의 논점은 하나님께서는 진정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것이다.

###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11:25-33)

로마서 11:25-33절은 해석하기에 쉽지 않은 구절이다. 성경 주석가들은, 훌륭한 침례교 주석가들을 포함하여,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양하다. 그 다른 해석들은 다른 종말론 -- 최후에 일어날 일들의 교리에 대한 시각 -- 으로 인한 것이다.

어떤 침례교인들은 이 기본적인 종말론을 유대인과 연관된 것으로 본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만 천국으로 "휴거" 시킬 것이다.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이후 그리스도는 유대인을 구속하기 위해 일할 것이다. 어떤 침례교인들은 이것을 유대인과 연관시켜 다른 종말론적 시각으로 본다: 유대인들은 --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휴거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을 동시에 휴거 시킬 것이다. 그 다음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다른 침례교인들은 또 다른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종말론적 차이로 인해 이 구절의 근본적인 메시지를 잃지는 않는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한 구원의 계획에 유대인을 포함시키려 했다는 교훈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비록 바울이 "언제" 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어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언급한다 (11:25-26).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오기까지 그들을 잠시 제쳐놓기 위하여 "마음이 완악해 짐" (11:25)을 겪어야만 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런 식으로 이방인에게 다가 갈 수 있으셨다. 만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이방 세계에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추측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완악해진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 그리고 어떤 이들은 지금도 영접하고 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은 "더러는 완악하여 짐" (11:25)을 겪었다.

26절은 말하기를, "그리고 그렇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And so all Israel will be saved)." 누가 "온 이스라엘"인가? "온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나라도. 이 구절은 "또 그런즉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and thus all Israel will be saved)." 라는 의미인가, 아니면 "그리고 그런 식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and in like manner all Israel will be saved)."라는 의미인가?<sup>4)</sup> 헬라어 성경은 이 질문에 답하고 있지 않다.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 구절은

4) 한글 개역성경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번역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행위를 통하여 -- 예를 들어, 성전의 관습, 할례, 음식에 대한 규례, 혹은 안식일 규례 등을 통하여 -- 구원을 가져다주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예수님은 메시야이셨고 메시야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을 번복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는 그것을 지키실 것이다.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을 것이다.

### 바울의 결론: 하나님께 영광! (11:33-36)

이 구절은 성경의 위대한 송영 중의 하나이다. 바울은 -- 우리처럼 -- 하나님의 지혜와 결정을 째 수 없다. 육은 모든 사람이 역시 그렇다는 것을 알았다 (욥기 11:7-9절을 보라). 이사야도 이사야 55:8-9절에서 비슷한 주제를 반향 했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 넘는 것이다. 우리는 아이가 어른의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없다. 믿음이 요구된다.

9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절대적이시며, 그분이 택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실 수 있다는 것을 증거 했다. 10장에서 바울은, 인간은 영접할 책임이 있다고 증거 한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위대한 신비라는 사실로 결론을 맺는다. 그것은 결코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결코 이해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변증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옳은 것을 행하시기 때문이다. 인간이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행동에 대해 인간의 설명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 아니시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주셨다. 우리는 사람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파하여야 한다. 그것은 선교적 명령이다.

바울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조언할 수 없다고 결론 지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조언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유하심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자비를 베풀신다.

그렇다면, 이과의 질문인 "당신은 불신자들보다 얼마나 더 나은가?"라는 질문에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는가? 필자는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 대해 자랑할 아무 것도 없다고 믿는다. 우리는 다른 죄인들 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으로, 우리는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결말보다 더 좋은 것을 가졌을 뿐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유대인이나, 힌두교인이나, 무슬림이나, 혹은 불교신자들보다 더 낫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유일한

저자이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

## 질문

1. 당신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을 아십니까?
2. 당신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저버리셨다고 믿습니까? 당신의 견해로 볼 때, 하나님은 유대인이 구원받게 될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3. 당신은 어떤 성경 말씀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은 영원한 신비 속에 있다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4. 텍사스 침례교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충]

###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

최근 몇 년 들어, 몇몇 남침례교 지도자들은 고등 칼빈주의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도록 미리 예정되어 있음)에 새로운 강조를 두고 있다. 이러한 강조는 침례교인들 사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 어떻게 믿는가에 대한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대부분의 침례교인들은 그들의 믿음 안에 어느 정도의 칼빈주의를 가지고 있다. 성도의 견인은 5대 칼빈주의 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많은 -- 대부분이 아니라면 -- 침례교인들은 경직된 칼빈주의보다는 약간 느슨한 것을 따른다. 대부분의 침례교인은 계획과, 그리스도에 대한 소명과, 각 성도의 견인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인간이 믿음으로 반응할 기회와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구원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음을 믿는다.

두 가르침은 --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 은 모두 성경에 나온다. 우리가 어떤 진리를 받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조화시킬 필요는 없다. 어떤 것들은 결코 인간의 이해 범주 안에 들어 올수 없는 것들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신비도 그러한 것들 중의 하나이다.

## [보충]

### 유대인과 기독교

텍사는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은 눈감아 줄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과 그들의 신앙에 대해 건전한 관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나의 사역 속에서 나는 많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 중 적지 않은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한 명의 유대인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다른 한 사람은 성경 공부와 예배에 정규적으로 참석하고 있다. 또 한 명의 유대인은 내가 이 교회에 도착하기 직전에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유대인들은 매우 섬세한 사람들이다. 냉정함이나 비난은 그들에 대한 우리의 증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지 않았다. 나의 죄와 당신의 죄가 그를 십자가에 못박았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지, 유대인이나 로마인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 넣은 것은 아니다. 로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역사 속에서 그것을 수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죄와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 나는 빌라도와, 가야바와, 해롯,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박아라!"라고 소리쳤던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 책임을 같이 한다. 당신도 마찬가지이다.

유대인 친구가 있는가? 당신의 그 유대인 친구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고 기도해본 적이 있는가?

## 단원 4

###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단원 4는 로마서 12-15장까지를 공부한다. 이 단원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 속에 복음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집중되어 있다. 로마서의 이전 장들에 나오는 바울의 신학적 주장들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로마서 12-15장은 그리스도 몸 안의 연합을 위한 필요들을 지적한다. 이 연합은 개개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소유한 다양한 은사들을 활용할 때 필요하다. 바울은 우리가 서로 우애하라고 강조한다 (12:9-16). 그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며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제 14장은 교회와 다른 그리스도의 추종자들 내에는 예배 양식에 있어서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렇지라도, 결코 우리는 서로 비판적으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종교적 양식에 있어서 작은 차이점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쳐서는 안 된다 (14:20).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서로 용납해야 되며 그럼으로써 우리 주님의 본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분은 자신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종으로써 섬기기 위해 오신 것이다 (15:1-3).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용납해야 된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종으로 오신 것처럼 말이다 (15:8-9). 진실로, 그리스도를 통해 (3:21-22)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에게 (11:32) 자비를 베푸는 것은, 성경이 증거 하는 것처럼 (15:4, 9-12)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언제나 하나님의 목적이셨다.

오늘날 기독교가 갈라지는 원인 중, 예배 양식의 차이로 인한 것보다 더 큰 원인은 없을 것이다. 전통적인 찬송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좀더 현대적인 양식의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종종 서로에 대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초기의 침례교인들은 교회 의식과 정체에 대해 더욱 논쟁을 했었다. 더욱 근세에 들어서는 침례교인들은 다른 커다란 신학적 문제들, 특히 성령의 영감에 대해 논쟁을 했다. 아직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침례교인들 간에는 커다란 논쟁이 있다.

로마서에 있는 이러한 모든 교훈들은, 특히 로마서 12-15장에서 제시된 교훈들은, 우리는 밥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찬송가나, 음악 양식이나, 의식들보다 훨씬 더 큰 문제들이 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침례교인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증거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배우는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교훈들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어버린 세상에 함께 증거하며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 단원 4: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 10 과: 당신 자신을 드리라 -- 함께 (롬 12:1-8)

제 11 과: 사랑으로 살라 (롬 12:9-21; 13:8-10)

제 12 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부에 대한 관계 (롬 13:1-17)

제 13 과: 나와 다른 그리스도인을 인정하라 (롬 14:1-4, 13-19; 15:1-17)

## 제 10 과

### 당신 자신을 드리라 -- 모두 함께

#### 핵심 본문

로마서 12:1-8

#### 배경

로마서 12:1-8

#### 주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비추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함께 그들 자신을 드려야 한다.

#### 탐구 질문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받은 사람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하는가?

#### 학습 목표

반원들이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대한 반응으로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실제적인 길을 결정하도록 이끈다.

#### 강조된 텍사스의 우선 사역들

- \* 텍사스와, 온 나라와 세계의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라
- \*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간의 필요에 대해 사역하라
- \* 교회 안과 온 세계에서의 사역을 위해 성도를 준비시켜라
- \* 기존 교회들을 강화하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라

#### 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자비는 희생적인 반응을 요구한다. 이러한 반응은 우리의 뜻이나, 혹은 이 세상의 일시적 유행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헌신은 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의 역할에 대해 부지런히 이해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다.

최근에 나는 한 대학생이 자신의 지갑을 열어 도움이 매우 필요한 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보았다. 그 학생 자신도 재정적 후원을 받고 있었다. 도움을 필요로 했던 그 남자는 그 학생보다 약간 나이가 많아 보였다. 분명히, 이 남자는 이미 인생의 쓰라린 경험을 한 사람이었다. 그 대학생이 그의 마음을 열고

위해 지갑을 열었을 때, 그 남자는 이 관대한 대학생을 향해 벼락 소리를 질렀다, "이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다야?"

나는 얼마나 그 남자같이 굴었는지 모른다. 얼마나 자주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자비와 도움을 베풀었을 때, 단지 굳은 마음과 거부로 반응했는지 모른다.

###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반응함으로 영광을 드림 (12:1-2)

로마서 12:1절에 나오는 단어 "그러므로"는 한 결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에 대한 도입이다. 이 결론은 그 전제로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갖고 있다. 바울은 로마서 1-11장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주의 깊게 풀어놓았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모든 것을 근거하여, 바울은 그의 로마 독자들에게 그와 같은 신실함으로 반응하도록 고무한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만 했다.

바울은 제사에 대해 말할 때 유대인의 제사 제도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로마 교인들에게 그들 자신을 (곡식이나 동물이 아닌) 산 제사로 드리게 함으로써 창조적으로 차별화 시켰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죽음 (그러므로 제사)을 쫓아야 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는 산 제사이다)을 쫓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인간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자비로운 계획에 대한 반응으로써 우리가 감당할 그러한 헌신은 막중한 의무가 따른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독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12:1)라고 기록함으로써 그의 독자들에게 간청한다.

이러한 하나님께 헌신하는 새로운 생활은 영적인 변화가 연루된다 (12:2). 나는 바울이 성령의 사역이 이 변화의 요인이라는 것을 이해했다고 믿는다 (에베소서 4:23절을 보라). 그러한 변화의 결과는 우리가 계속적인 순종으로 나갈 때 성령님에 의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순종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믿음으로 이루는 것을 계속적으로 구하는 것이다. 그 것의 실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살아 나타나는 것이 순종이다. 그러므로 로마서 12:1-2절은 12장의 도입부일뿐만 아니라, 12장 이하의 로마서에 대한, 혹은 최소한 15:13절까지의 도입부일 것이다. 로마서 12:1-2절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림으로써 반응하도록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부르는 일반적인 격려이다. 바울은 세상은 우리의 모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 일반적 도입부와 함께, 계속해서 바울은 12:3-15:13절에서 그의 격려를 동료 그리스도인 사이와 그 가운데 있는 관계들, 정부 권세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관계들, 그리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있어서 매우 실제적인 문제들로 적용시켰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메시지의 중심은 우리의 조화로운, 그리고 서로에 대한 자발적인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께 우리의 헌신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조차도, 모든 인간을 묘사하는 바울의 두 가지 위대한 범주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가 되었다.

로마서 12:1-2절은 또한 모든 사람이 소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우리는 의무 아래 있다. 우리는 모두 부르심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보내심을 받았다. 그리하여, 세상에서 우리 인생의 전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여기까지, 그 격려는 일반적이지만, 그 적용은 매우 깊다. 12:1-2절의 이 일반적인 격려로부터 바울은 그의 유대적 배경의 위대한 지혜의 전통뿐만 아니라,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이끌어내기 시작한다. 로마서 12장에서 산상수훈의 메아리를 들어 보라. 바울은 또한 그의 선교적 경험을 이야기한다. 바울은 이 모든 것 -- 그의 유대적 배경,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 자신의 경험 --을 사용하여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서로 교제 속에서 살도록 고무하고 있다.

이 주제를 끝내면서 (15:1-13),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안에 함께 속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서로 교제하면서 주님 안에서 서로 봉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헌신자로써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입을 때, 우리는 그런 헌신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삶이 어우져야한다는 것도 깨달아야 한다. 개인으로써가 아니라 교회의 한 몸으로써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

로마서 12-15장은 대개 로마서 1-11장에서 가르친 교리들의 실제적인 적용들이다. 확실히 로마서 1-11장은 많은 신학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그것은 많은 격려가 들어있다. 한편, 12-15장은, 많은 격려가 들어있는 반면, 또한 매우 중요한 신학으로 가득 차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관계들이 단지 복음의 적용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한 관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의미의 중심에 있다.

### 영적 은사에 대한 건전한 자신 평가 (12:3-5)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다는 것 (12:3)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믿음의 분량"은 어떤 특별한 은사에 대한 설명이라기 보다는 모든 은사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각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몸이다. 각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신실함의 표현으로써,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 그리고 세상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고 특정한

역할들을 이루기 위해 성령의 은혜로운 능력을 덧입은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교만에 대한 여지는 전혀 없다. 그래서 바울은 교인들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12:3)고 당부한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거짓 겸손의 여지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진정 교회의 모든 각 구성원에게 어떤 은사, 혹은 은사들을 주셨다 -- "믿음의 분량."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정확한 판단을 하도록 생각해야 한다." (12:3)<sup>5)</sup>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작용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우리 모두는 성령님에 의해 은사를 받았다. 교회의 각 성도는 성령님에 의해 능력을 받았고 또한 받은 상태이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사역을 위해! 우리의 은사들은 확실히 다양하다 (12:4-5). 하지만 우리의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들은 공동의 유익을 위해 쓰여져야만 한다 (고린도 전서 12:7을 보라).

### 개인과 연합 (12:4-5)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커다란 다양성이 있다. 그리스도의 각 "지체"로써, 우리는 서로 다르다. 은사는 주어지는 것이다 -- 혹은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각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은 우리의 개성만큼이나,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이 다양한 만큼이나 그렇게 다양하다.

교회의 구성원으로써 우리 각 개인 안에서 나타나는 그 다양성은 불일치나 부조화를 이끌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다.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인간 몸의 비유를 든 것은 교회 각 구성원들 가운데 존재하는 다양성을 보여주며, 또한 연합의 필요를 지적한다. 우리의 영적 다양성은 전체의 유익과, 그리스도의 한 몸의 조화로운 기능을 위해 함께 일하도록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 안에 존재하는 두 가지 보완적인 요소들을 설명하고 있는 12:5절을 주목하라.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집합적인 헌신을 어우러지게 한다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표준 새번역). 우리의 정체성은 또한 각 개인으로서 교회의 다른 지체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지적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 은사는 쓰여져야만 된다 (12:6-8).

바울은 처음에 "믿음의 분량" (12:3)이라고 불렀던 것을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은혜" (12:6)로서 설명하고 있다. 이 구절들에서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특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활용에 있어서의 믿음을 권면한다.

5) 한글 개역성경: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는 본 공과 저자의 의도대로 NASB를 그대로 번역했다.

그 은사가 예언이든, 섬기는 일이든, 가르치는 일이든, 권면하는 일이든, 나누어주는 일이든, 혹은 자선을 베푸는 일이든 간에,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그 은사들을 믿음으로 나타내어 전체 몸이 조화를 이루며 기능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각각의 지체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셨던 책임으로 하나되어, 신실하게 그리고 열성을 가지고 교회의 생명력에 그의/ 그녀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로마 교인들에게 말한다. 각 사람은 세상에 있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이와 같이 하도록 명령받은 것이다.

바울이 로마서 12:에서 열거하고 있는 은사들은 신약 성경 다른 부분 (고린도 전서 12:4-10, 28-30; 에베소서 4:11; 베드로 전서 4:10-11)에서 열거된 은사들과 비슷하다 -- 그러나 정확하게 일치되지는 않는다. 나는 이러한 다양한 은사들의 열거를 우리가 마치 "은사들"의 어떤 완전한 목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틀린 것이라고 믿는다. 사실, 그 은사들은 본래 다양하다. 에베소서 4:11절에서, 그 은사들은 사람들 자신이다. 하지만, 여기 로마서 12장에서는 은사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에 나오는 은사들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최소한 두 가지 결론에 이르게 한다. 첫 째로, 나는 바울이 모든 은사들의 목록을 철저하게 쌓아 기록하려고 한 것은 아님을 확신한다. 만일 그가 은사들에 대한 하나의, 완전한 목록이 기록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바울이 어느 곳에서도, 어떤 한 교회에도 그 은사의 목록을 준 적이 없었다는 사실은 이상한 일이다! 이것은 두 번째 결론에 이르게 한다. 즉, 바울은 어떤 특정한 은사들 (예를 들어 방언 혹은 방언의 통역)이 어느 교회에서, 혹은 모든 교회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바울은 그 은사들을 어떤 특정한 영적 능력으로써 생각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드리려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혹은 자비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리스도의 임재에 의해 이루어진,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정도의 모든 행동적 표현은 -- 교회 안에서 예배의 삶이든, 혹은 세상에서의 더욱 광범위한 섬김의 삶이든 -- 영적 은사의 표현이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은사들"이 주님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곱게 포장되어진 꾸러미나 선물처럼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은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 타나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올바르다.

예수님의 생명과 그 영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들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대한 우리의 순종의 국면들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 (12:2)을 우리의 경험으로써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순종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은사들을 사용할 때 나타난다. 성령의 은사들은 하나님의 자비에 응답하기 위하여 12:1-2절에 있는 소명에 대한 반응으로써 이해되어져야 한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바울은 우리의 순종을 성령의 역사에 연결시킨다. 그리하여, 순종의 행위

속에서 -- 즉 우리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는 가운데 -- 하나님의 은혜로운 능력이 현재 우리의 순종을 격려하는 것이다.

### 질문

1. 로마서 12:1절에 나오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2. 우리의 온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판단할 수 있습니까?
3. 로마서 1-11장은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하여, 그리고 그들 모두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비의 수혜자들이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1-8절의 무엇이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일할 필요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4. 왜 당신은 로마서 12장에는 방언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충]

#### "자비"

단어 "자비"는 로마서 12:1절의 열쇠가 되는 단어일 것이다. 자비는 바울이 그의 청중들에게 자신들을 "거룩한 산 제사" (12:1)로 드리라고 권면한 기초이다.

"자비"라는 용어는 성서적으로 풍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히브리어 해세드 (*hesed*)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계약적 신실함을 일컫는다. 하나님께서는 한 계약의 수단으로 아브라함에게 그의 말씀을 주셨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 첫 째로 이삭, 그리고 야곱, 그 다음엔 12 지파들 -- 과 그것을 새롭게 하셨다. 그리하여, 비록 이스라엘이 주님의 은총을 받을만한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약적 신실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잊으실 수 없었고 신실함에 실수하지 않으셨다.

"자비"라는 용어는 또한 주님의 온유함을 내포한다. 그러므로 "자비"라는 단어는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매우 필요로 함을 나타낸다. 자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수감자들, 상처받은 자들, 잃어버린 자들, 그리고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들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잃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깨어진 자들을 싸매 주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며, 고통받는 자들을 위안하시며,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신다 (이사야 16:1-3절; 누가복음 4:16-19절을 보라).

이러한 모든 생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하나로 합쳐진다. 그리스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의 완성이며 그의 멀어진 백성들에 대한,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주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과, 불구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상처받은 자들을 구원하셨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비로운 사랑을 받기 위하여 믿음으로 돌아오는 모든 자들을 구원해 오셨다.

## [보충]

### 묵상하기

- \*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 조용히 묵상하라, 특히 어떻게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었는지에 대해 묵상하라.
- \* 인생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반응하는 것으로써 살아져야 함을 깨달아라.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들은 값으로 산 자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높고 유일한 의무이다.
- \* 당신의 육체적, 지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인 능력들과 기회들을 묵상하라. 당신 자신을 사실 그대로 점검 해보라. 교만이나 거짓 겸손을 피하라. 당신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경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당신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어떤 기회들을 사용해야 하는가? 당신은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있음을 기억하라. 당신의 인생은 사명과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살아가는 소명을 나타내는 것이다.
- \* 당신 주변을 돌아 보라. 당신 자신의 습관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며 살도록 바뀌어 질 수 있는지, 그리고 바꿀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라.
- \* 당신의 가족 관계를 돌아 보라. 회복해야 할 어떤 관계들이 있는가? 당신은 바뀌어져야 할 불순한, 혹은 더 나아가서 파괴적인 습관들이 있는가? 당신은 당신의 가족 누구에게 혹은 친구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는가?
- \*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 생활 가운데서 당신을 쓰실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라. 당신은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이다. 당신은 교회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은사들을 받았다. 당신은 당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 당신의 은사, 당신의 경험, 그리고 당신의 영적 능력들은 그리스도 전체 몸의 조화로운 기능을 위해 사용되어져야만 한다. 어떻게 당신은 이러한 일을 일어나게 할 수 있는가? 당신 교회의 필요는 무엇인가?
- \* 당신의 이웃을 돌아 보라. 가장 많은 관심이 필요한 곳은 어디인가? 당신 이웃 중 누가 아픔을 겪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필요한가? 당신은 당신의 이웃 중 가장 많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당신의 교회가 더욱 활동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는가?
- \* 당신은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살고 행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이웃 속에서 그렇게 행하기 위해 시간과,

자원과, 재능들을 드릴 수 있는가?

\*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자비는 섬김을 위해 당신을 구속하셨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다.

## 제 11 과

### 사랑으로 살라

#### 핵심 본문

로마서 12:9-21; 13:8-10

#### 배경

로마서 12:9-21; 13:8-14

#### 주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사는 것은 삶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싸는 것을 요청한다.

#### 탐구 질문

진실로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 학습 목표

반원들이 그들의 삶 속에 사랑을 실행으로 옮길 특정한 방법을 최소한 한가지씩 파악하게 한다.

#### 강조된 텍사스의 우선 사역들

- \* 텍사스와, 온 나라와 세계의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라
- \*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간의 필요에 대해 사역하라
- \* 교회 안과 온 세계에서의 사역을 위해 성도를 준비시켜라
- \* 기존 교회들을 강화하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라

#### 개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립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아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교제 가운데서 사는 것을 의미한다. 사랑, 봉사, 공감하는 것, 친절함,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결코 선택사항일 수 없다. 이것들은 명령이며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런 헌신의 표현이다.

몇 해 전에 필자는 한 리더쉽 컨퍼런스에 참석했었는데, 그 모임은 참가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하고 그리하여 자신들이 더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도록 돋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 필자는 행정, 경영 그리고 리더쉽에 관련하여 탁월한 능력과 경험을 갖춘 사업가들

속에 둘러싸여 있었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 우리들은 구체적인 행동지침에 관련하여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미래에 보다 나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돋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사용할 수 있는가? 필자는 우리 그룹에서 나온 몇몇 대답들을 듣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리더쉽이 요구하는 기본을 "사랑"이라는 말로 요약했다. 한 능력있는 최고경영자는 결심하기를 그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멀어졌던 몇몇 가족들과 자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시키겠노라고 했다. 그는 또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실재적일 수 있다고 믿는가? 오늘의 본문은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행동(12:9-13)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행동에 대해 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바울은 이 용어를 그리스도인의 활동들을 요약하는데 사용한다. 사실, 사랑이란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가장 잘 표현한 것이다. 사랑이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기대되는 행동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은 오염될 수 있다. 때문에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의 사랑은 "위선이 없어야" 한다.(로마서 12:9, NASB) 12장 9절에 이어서 나오는 구절이 위선 없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준다. 그것은 악을 미워하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세대의 사랑에 대한 생각은 여려모로 매우 약한 것이다. 성경에서는, 사랑은 강력한 것이다. 사랑은 희생적이다. 사랑은 훈련을 요구한다. 사랑은 궁극적으로 자신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된다.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그리고 교회와 세상을 위해 자신을 내오 주신 성자 하나님.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악에 대항해서 싸운다. 사랑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견디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다.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지 아니한다. 사랑은 영원한 유익을 위해 잠시 낙을 누리기를 거절한다. 사랑은강인하다. 사랑은 대속적인 것이다. 사랑은 언제나 순결함과 나란히 설뿐 아니라 오히려 함께 얹혀있다. 사랑에 서 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악을 미워한다.

언제나 구속적인 사랑 가운데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은 또한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거절한 사람들을 심판하시지만,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기까지 하신다. 심판은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이 아니다. 아마도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지막 표현일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완전함과 성실함 가운데서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것이다. 그분의 창조 목적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순결하며 완전하게 되는데 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신다. 동시에 선한 것을 추구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에 속하라"고 권면받고 있다.(12:9). 하나님의 사랑은 "위선이 없다"(12:9),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도 그려해야 마땅하다.

사랑은 관계에 있어 사용되는 용어이다.(12:10을 보라). 그것은 우리의 동기, 기질,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행동을 표현한다. 우리는 서로 서로를 사랑의 띠로 묶도록 헌신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랑의 띠는 가족적인 사랑에 의해 가장 잘 표현되어질 수 있다. 그리하여, "형제 사랑"으로의 부르심(12:10)은 영적인 사랑과 우정의 깊은 관계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혹은 가운데서 지배적인 것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해 준다.

이런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서로에게 우선권을 주어야만 한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것 보다 남을 더 낫게 여겨야 한다. 실로 우리가 주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과 관련하여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이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를 향한 헌신에서 사용될 수 있을 만큼 깊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서로 서로에게 헌신"되어야 한다(12:10, NASB).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서 실패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을 실패하게 된다. 실제로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종종 예수님의 산상수훈(마태복음 5장을 보라)의 가르침과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에 대한 바울의 설명과 비교되어진다.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義)보다 뛰어나도록 부름 받았다. 우리의 부르심은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의 소명이다. 우리는 너무도 급진적이고 사실적이어서 반드시 실재 생활 가운데 서로 서로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져야 하는 사랑으로 부름 받았다.

또한 우리는 서로를 향한 우리의 헌신이 시들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12:11) 우리의 주님을 향한 헌신은 우리가 태만해 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는 "게으름 가운데"(12:11) 뒤쳐져 있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의 주님을 향한 헌신의 뜨거움이 차가워지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쓰여져야 한다.(12:11)

"소망 가운데 기뻐함"(12:12)은 5장 1-4절의 말씀을 상기시켜 준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부활한 백성으로 사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망 때문에 우리의 삶은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쁨은 결코 표면적인 것이 아니다. 또한 말만 뻔지르르하거나 고지식한 행복이 아니다. 반면에 이러한 기쁨은 심지어 고생을 동반한 기쁨일 수도 있다. 우리는 심지어 고난의 시간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신실해야 한다. 이생의 어려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궁극적인 소망과 결코 비교할 바가 못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 악한 세대의 시련들을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이러한 폭풍들을 기도와 인내로 견뎌낸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반드시 사람들의 필요들에 대하여 반응하여야 한다(12:13). 우리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도록, 그분의 영원하신 임재 가운데 머물도록 초대받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항상 깨어있어 친절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

### 감정적인 그리고 영적인 공감(12:14-16)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 뿐 아니라 악한 사람들에게도 햇빛을 비주시고, 또한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골고루 비를 내려 주신다.(마태복음 5:45을 보라).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마태복음 5:43-48을 보라)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은 구원의 사역인 것처럼 우리 또한 축복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하다.(로마서 12:14보라) 우리는 악에 대하여 선으로 되 갚아야 한다. 우리는 오리를 가자하면 십리를 가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다른 뺑마저 돌려댈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우리를 박해하고 잔인하게 우리를 이용하는 사람들 또한 사랑해야 한다.(마태복음 5:44을 보라)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깊은 공감을 가져야 한다.(로마서 12:15) 주님께서는 우리 머리의 머리카락의 수를 셀 수 있는 분이시다. 주님은 공중의 참새가 떨어지는 때조차 아시는 분이시다. 그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할 때 우리는 그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울 때, 우리의 가슴은 그들의 고통과 슬픔에 참여하여 찢어져야 한다.

로마서 12장 16절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는 더 낮거나 혹은 높은 계급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여기에는 오만함의 여지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만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에게(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간에)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하여 구원을 거제 주시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거만함이나 사회적 편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는 모멸감이나 오만의 여지 또한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 분 자신을 공평한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다. 따라서 우리도 반드시 서로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 주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사람들, 죄인들, 사회적으로 버려진 자들과 사귀셨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천한 사람들과 사귀라"고 요구한다.(12:16, NASB)

###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 (12:17-21)

드물게 반복되는 극단적인 표현 "결코 하지 말라(never)"는 표현을 통해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에게든 악을 악으로 되 갚는 것을 금하고 있다.(12:17) 이런 강력한 요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기초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날을 의지하도록 의도하고 있다. 우리는 심지어 박해를 받고, 불의가 가득 찬 세상에 살지라도 의롭고 옳은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옳게 여기는 일을 하도록 기대되어 지는" 사람들이다.(12:17)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옳고 그름의 원칙에서 예외적인 사람들이 아니며, 특히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서는 더욱 그러하다.

예수님은 산상 수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누구든지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다가 누구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그 사람에게로 가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가르치셨다. 이 이후에야 우리는 돌아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마태복음 5:23-24) 사람들 가운데서 화목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로마서 12:18에 따르면, 바울은 이 의무의 심각성과 동시에 실제적인 어려움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십시오(NASB)."

바울은 12장 17절의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그의 요구를 결코 우리 스스로 복수하지 말라는 명령을 통해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 이유는 한가지이다. 우리의 정의에 대한 이해는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가 도덕의 수호자로 나서기보다는 모두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신뢰해야만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실 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한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한다. "원수 갚은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 주겠다"(12:19)

우리의 의무는 악을 악으로 이기거나 복수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의무는 선의 힘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12:20-21을 보라)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분명하다. 만일 우리의 원수가 짚주림이라면 우리는 그의 무용함을 탓하거나 그의 고통을 기뻐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여야만 한다.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도록 해야한다.

### 사랑 : 율법의 요약이며 사례를 바라지 않는 의무 (13:8-10)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들에게 부과된 모든 것을 갚으라고 권면하고 있다(13:7). 그런 다음 그는 일반적으로 아무에게든 어떤 빚도 지지 말라고 권면한다. 그러나 결코 다하지 못하는 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 필요가 채워지기 전까지는 언제나 남아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의무이다.(13:8)

이 시리즈에서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관한 권면이 "사랑"이었음을 회상해 보라.(12:9)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행동의 요약으로 "사랑"이란 말로 정리하고자 한다.(13:10)

실제적인 의미에서, 율법은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완성되어 질 수 있다.(13:9-10) 그러나 누가 이 "이웃"이란 말인가? 성경의 이 부분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차용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바울의 이웃에 대한 정의가 예수님의 그것과 동일한 것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웃"은 누구나 될 수

있다. 유대인 혹은 이방인, 부자 혹은 가난한 자, 젊거나 늙었거나, 남자는 여자는 가리지 않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리에 있는 이가 이웃이다.(예를 들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복음 10:30-37)

마르틴 루터는 십계명의 두 번째 둘판이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행동과 구체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명령들로 불렀다.(출애굽기 20:12-17; 신명기 5:16-21) 이러한 명령들은, 대부분의 명령이 로마서 13:9에 언급되어 있다, 아마도 사랑하라는 권면 아래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것이다. 음란, 살인, 도적질 그리고 탐내는 것 그리고 그리하여 우리의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네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율법의 완성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에 대하여 행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약인 이번 본문에서 중추적인 것이다. 이것을 행하거나 관심 갖는 것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성김과 희생, 그리고 그의 대속적인 죽음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확대시키셨다.

### 질문들

1.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동시에 악을 미워할 수 있는가?(로마서 12:9) 예를 들어 설명해 보라.
2.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가운데 어떤 비유가 로마서 12:9-21의 권면과 비교될 수 있겠는가?
3. 로마서 12장 18절과 마태복음 5장 23-24절을 비교해 보라.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4. 로마서 12장 20절에서,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것이 어떻게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 두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을까?
5. 로마서 13장 8-10절과 병행을 이루는 또 다른 신약성서의 본문은 무엇인가? 특별히 10절을 기준으로 찾아보라.

### [보충]

#### 사랑과 성김

사랑과 성김은 바울의 사고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실제로 사랑과 성김은 그리스도의십자가와 성령의 사역에 대한 바울의 이해와 관련 있다.

예를 들어, 바울이 로마서 5장 5-11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논하는 것을 주의하여 보라.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5:5)에 관해 설명한다. 그런 다음 바울은 곧바로 예수의 죽으심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적 계시에 대해 논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5:8)

똑같은 견해가 로마서 8장 31-39절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8:31) 사실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8:37)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된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8:39)

이와 마찬가지로, 고린도 전서 12-14장에서 예언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보다 우위의 것임을 설명할 때에, 바울의 주된 논점은 예언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보다 우선한다고 설명한다. 그리하여 예언은 사랑에 가장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은사라는 것이다. 예언은 사랑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을 계발하고 세우는 역할을 한다.(고전 14:1-4)

"성김"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묘사하는 말로 종종 사용된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성기는 자의 삶을 살라고 권면한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성김을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빌립보서 2:8)으로 묘사하는 위대한 기독론 찬양을 인용하여 설명했다. 빌립보 교인들은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세를 갖도록 권면 받았다. 그것은 종의 자세와 생활방식 이었다.

로마 교인들은 성기는 자로서의 그리스도에 강조를 두었다.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셨다.(15:3)

성김, 사람, 온전케함, 성령의 역사,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보여진 그리스도의 삶은 다 실제적으로 신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들을 따로 따로 분리해서 이해되어질 수 없다.

## [보충]

### 목상

1. 여러분의 교회에서 교제의 상태는 어떠한가?
2. 스스로에게 다음의 질문을 물어보라: 당신의 가정이나 교회를 통해 볼 때 비판할 점이 칭찬할 점보다 더 많은가? 서로에 대하여 축복하는 것이 많은가 아니면 저주하는 것이 많은 편인가? 당신 스스로를 당신의

교회에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현신"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당신의 교회 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어느 정도 중요한 것인가?

3. 위의 질문들을 선택사항으로 여기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적인 측면이라고 여기는가?
4. 당신의 가정, 교회 혹은 공동체 가운데 깨진 관계가 있는가? 악을 선으로 갚기 위해 혹은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 당신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 4 단원

###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 제 12 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부에 대한 관계

##### 핵심 본문

로마서 13:1-7

##### 배경

로마서 13:1-7

##### 주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 정부에 그 역할을 이룰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드려야 한다.

##### 탐구 질문

교회와 국가, 그리스도인과 정부 사이의 올바른 관계는 무엇인가?

##### 학습 목표

반원들이 교회와 국가, 그리스도인과 정부 사이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가르침을 요약할 수 있도록 돋는다.

##### 강조된 텍사스의 우선 사역들

- \* 텍사스와, 온 나라와 세계의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라
- \* 교회 안과 온 세계에서의 사역을 위해 성도를 준비시켜라

##### 개요

다스리는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인간 정부에 순복해야 한다. 하나님의 법이 그리스도인의 최고 권위이기 때문에, 불공평한 인간이 만든 법률들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이 땅의 다스림이나 통치자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원칙이다.

1960년대 후반에 신학교 학생으로서 필자는 1968년 대통령 선거에서 아무 그리스도인이든지 선한 양심 가운데 투표한다면 지지할 후보가 오직 한 사람일 것이라고 확신했었다. 필자의 아내와 필자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의 친구들과 듣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했다. 필자가 다른 그리스도인이 다른 당의 후보자에 대해서 동일하게 강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놀랐었는지를 기억한다.

이제 필자는 한 정당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쉽게 분명한 사고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인지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자는 단지 투표할 뿐 아니라 정치와 이 세상의 정책들, 그리고 살아갈 건전한 도덕적인 법률의 제정에 깊이 관여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하게 믿고 있다. 동시에 다른 하편으로는, 우리 침례교 조상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하나님의 왕국과 이 땅의 특정한 정당, 어떠한 특정한 정부 혹은 어떤 특정한 정부 권세와의 연합도 거부해왔다.

### 정부 권세에 대한 순종 (13:1-2)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권세의 개념을 거부하는 것은 무정부 상태를 선택하는 것이다. 바울은 모든 정부나 모든 통치자들이 다 선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실지로 바울 자신도 불공정한 통치자로부터 고통을 받았었다. 그러나 정부와 세상 권세의 통치의 개념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굽복하라" (13:1)고 양심의 가책없이 말 할 수 있었다. 하나님 자신이 인생의 창조주이시며, 율법을 주신 분이시며, 피조 세계 전체 위에 최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예수의 주되심이 모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위에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에 대한 고백을 가져오게 한다.(골로새서 1:15-20을 비교해 보라)

권세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물리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 질서의 성격과 계획을 거부하는 것이다. 바울에게 있어서 존재하고 있는 권세는, 심지어 악한 권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과 세워주심이 아니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었다.

현대에 와서는 모든 권세를 경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되었다. 그러나 모든 권세에 반항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권세에 반항하는 것이 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그분의 권세를 받아드리는 것이다. 가족 가운데 산다는 것은 가족 구성원 가운데 누군가는 권세와 리더쉽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쳐진다. 이렇듯 삶에는 질서가 필요하다.

물론 통치자가 자신의 권세를 남용할 수 있다. 빌립보의 행정장관이 로마법을 따르지 않고 집행했을 때, 바울은 그의 권력의 남용에 대해 도전했다. 심지어 바울은 법대로 집행하지 않는 빌립보 행정장관을 당황하게 만들기까지 했다.(사도행전 16:35-49)

초대 교회가 막 형성되었을 무렵,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산헤드린 법정에 도전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들은 산헤드린이 가장 지고한 신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권세의 표현으로 여겼었다.(사도행전 4:18-21) 이 땅의 권세들에 대해 도전함으로써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궁극적인 권세에 순종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로 그의 지상 사역 가운데 정지 지도자들과(누가복음 13:31-33)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마태복음 23)에 대항하여 의분에 차서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권세의 적절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다.(마태복음 22:15-22)

또한 요한 계시록은 "큰 땅 바벨론, 음녀들의 가증한 어미"(요한계시록 15:5, 또한 14:8, 16:19, 18:2,21을 보라) 위에 임할 심판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그 거대한 정치적, 세상적 제국이 가장 높은 하나님에 대항하여 자신을 높였고,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설 것을 경고하고 있다. 실지로, 어린양의 추종자들은 이 악한 정치적 제국의 짐승의 표를 받지 말 것을 경고받고 있다.(14:8-9) 그러나 심지어 계시록이라 할지라도 권력 자체 때문에 비판받지는 않았다. 오히려 권력의 남용 때문에 비판받았으며, 이 땅의 왕들과 왕국들이 그들의 부패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자신을 놓으려 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교만한 시도 때문에 비난을 받았다.

그리하여 성경은 세상의 권세에 굽복하는 것과 대항하는 두 가지 예를 동시에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은 어려운 주제임에 분명하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마태복음 10:16)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명예롭게 살아야 하고 무엇이든 옳은 바를 행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이 고난이 이 땅의 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받는 것이라면(베드로전서 4:15-16)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 부를 수 없음에 대해 경고 받고 있다. 통치하는 권세들은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적절한 자리에 있다.

### 통치자들의 통치 (13:3-4)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통치자를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다. 다스리는 권세가 갖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좋은 통치자가 있다면 거기에는 통치자를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참된 목적은 악을 벌주고 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실지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든 사람들로부터 책임을 물게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다스리는 권세들도 우리로 하여금 책임 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다스리는 권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리고 개개인의 통치자들도 하나님의 뜻이 허락하는

가운데서 그들의 권력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권세들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책임성이 최후의 그 날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실 심판의 날을 생각나게 해 주는 이 땅에서의 암시 기능을 한다. 만일 우리가 악을 행한다면, 우리는 의심할 여지없이 "영혼과 육체를 지옥으로 던지시는 그분을 두려워할 것이다."(마태복음 10:28) 더 나아가 우리는 아마도 이 땅에서 선을 보호하고 악을 징벌하는 하나님의 세속적인 종들(세상권세)을 정당하게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바울의 생각에 따르면 악을 행하는 자는 다스리는 권세자들로부터 공적인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할을 정하셨다.

### 두려움과 양심(13:5-7)

다스리는 권세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정당하게 존재하고 적절하게 권세를 행사하는 권세들에 대하여 적절한 굴복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불의한 권세와 악한 통치자들이 적절하게 교체되고 심지어 내부에서의 윤리적인 문제로 인해 반대 당하는 수많은 성경적인 예들을 보아왔다. 베드로, 바울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불의한 권세에 대항하는 예가 된다. 바울의 생각에 의하면 정당하게 세움을 입은 권세에 대한 굴복은 두말 할 나위 없이 선한 것이다. 굴복은 인간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적절한 행동의 일부이다.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법률이 될 수 없다. 사실성, 법, 그리고 진리는 우리 밖에서 존재한다. 우리는 인간적인 취향에 따라 만들어 낼 수 있는 물건들처럼 법을 만들어 낼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선하고 참된 것 아래 내려놓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참되고 선한 것은 우리보다 먼저하나님 아래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자신을 모든 참되고 선한 것에 복종시켜야 한다. 이것은 불순종의 결과로 주어지는 진노를 두려워하기 때문만 아니라 동시에 그것이 옳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정하여진 올바른 권세들에 대하여 우리자신을 복종시킨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반드시 이러한 적법한 권세들에 복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이 공평하고도 올바른 것이다. 세금은 권세의 제도와 통치하는 사람들에게 지불해야할 합법적인 의무이다. 바울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야할 의무를 다하도록"(로마서 13:7) 권면하고 있다. 이러한 단어들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하신 말씀("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을 상기시켜 준다. 세금이든 관세이든, 두려워하든 혹은 공경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올바로 역할이 정하여진 이들에 대하여 양심의 책임으로서의 빚을 지고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 것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다스리는 권세로서

역할을 맡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뜻을 돌리는 것, 적절한 윤리적 도덕적 강제 아래에 있는 것, 우리의 헌신과 후원을 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를 자각하든 혹은 모르든 간에 우리에게 부과된 의무이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난 과에서 보았던 것처럼, 최고의 책무는 역시 사랑의 빛이다. 이것은 우리의 세금과는 달리, 우리가 다 갚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사랑의 빛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지고 있는 궁극적인 책무이다.(로마서 13:8)

로마서 13장 5-7절은 이 땅의 정부에 대하여 무작정 헌신하는 것이나 잘난척하는 자유주의자가 되도록 고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본문은 이 땅의 권세자들에 대하여 우리 양심을 따라 사려 깊고 적절한 굴복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권세들은 악을 벌하고 선을 고무하는 최상의 최고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다.

세금을 포함하여 "그들에게 주어야 할 것을 주라"(로마서 13:7)는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살 수 없음을 강력하게 지적해준다. 창조된 질서와 그 질서 가운데 있는 공적인 사회들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 진 것이다. 이 대중적인 영역은 또한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세상의 영역이기도 하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을 하심에 있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셨는데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 권세들을 최대한 고려하여 사역하셨다. 우리 주님께서는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그들에게 최대한 순종하셨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이 요구하는 곳에서는 그들을 반대하고 도전하셨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지역 교회로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놓여진 문제들에 대하여 쉽게 해결책을 찾을 길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명령과 어느 특정한 정당의 계획을 연결시키는데 있어 깨어 있어야 한다.

모든 나라, 정부 혹은 정당은 언제이건 무너질 수 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여야 한다. 이 땅은 우리의 진정한 거처가 아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한 어둠의 세력과 대항할 뿐 아니라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 대항하여 최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명령을 실현해 내며 살아야 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봉사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는 거저 이곳에 순례자로 나그네로 있음을 자각하여야 한다.

이 세상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과 동격의 것이 아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만큼,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들의 나라를 사랑하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여야 한다. 우리의 최고의 헌신의 대상은 우리 주님의 나라가 되어야만 한다. 이 세상의 나라들이 힘없이 무너질 때, 주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이다.(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보라)

## 질문

1. 출중한 통치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며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좋은 역할 모델이 되는 "이 땅의 통치자"의 예를 하나 혹은 그 이상 들 수 있는가?
2. 침례교도들은 계속해서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주장해왔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대한 역사적 침례교도의 견해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의무가 이 세상 안에서 사는 것이지 이 세상에 속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어떻게 연관지를 수 있는가?
3.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일부 매우 감정적인 정치적 주제들에 대해서 다른 견해들을 가졌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사형제도, 안락사, 학교 급식제도, 그리고 전쟁반대주의 등에 대해 어떻게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는가?
4. 지역 교회로서 교회가 어떤 특정한 지역의 현안에 대해 특정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주제들이겠는가?
5. 로마서 13장 1-7절은 정부의 다른 기능과는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겠는가? 악을 행하는 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서는 정부의 다른 기능들은 무엇이 있을까?
6. 우리가 미국 정부에 대하여 갖고 있는 태도와 독재정치에 시달리고 있는 다른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국 정부에 대하여 갖고 있는 태도는 어떻게 다를 것 같은가?

## [보충]

### 조지 트루엣: "침례교도와 종교의 자유"

조지 W. 트루엣은 텍사스가 낳은 침례교 지도자로 1920년 5월 16일 주일에 그의 가장 유명한 침례교 역사에 대한 설교를 했다. 그는 나라의 수도인 워싱턴 DC의 동쪽 계단에서 설교를 했다. 그는 워싱턴 침례교회의 요청에 의해 침례교 연차 총회와 관련하여 설교했었다.

그의 연설 "침례교도와 종교의 자유"에서 트루엣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세계가 이전 세계를 향한 가장 큰 공헌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공헌이다. 이것이 미국으로 하여금 문명을 이루도록 한 가장 주된 공헌이다. 역사적 공의가 나로 하여금 그것은 현저한 침례교의 공헌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한다."

침례교도에 관해 계속되는 설교에서 트루엣 박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지금 그들의 논쟁거리는, 예전에도 그러했던 것과 같이, 오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 되어지기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연적, 근본적인 그리고 파기할 수 없는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하는 것이다. 그들의 양심이 지시하는 대로 그리고 그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그 자신만이 모든 종교적인 신념과 행습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다..... 하나님은 자유로이 예배하는 자를 원하신다. 그 이외의 것을 있을 수 없다."

트루엣 박사는 자신이 말하는 소위 "근본적인 침례교 원칙들"에 관해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가 알리고자 했던 원칙들은 근본적으로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1) "절대적인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리고 (2)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행습을 정하는 것"이 그것이다.

트루엣 박사의 설교는 그의 특정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의 글은 오늘날까지도 침례교도들에게 즐겨 읽히고 있다.

트루엣 박사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대해 강력하게 지지한다. 동시에 트루엣 박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일에 깊이 관여해야 한다고 명하고 있다. 실제로 트루엣 박사는 "기독교가 없는 둔명은 결국 망하게 된다"고 느꼈다. 그는 더 나아가 기독교 학교의 가장 큰 책임은 "완전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침례교도들은 자유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있게 오래 사고하기를 계속 해야만 한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학교들, 대학들 그리고 신학교들을 지원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계속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고려는 단지 종교적 영역 뿐 아니라 정부와 비즈니스 방면의 지도자를 배출해내는 목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 [보충]

### 목상

5.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뿐 아니라 함께 예배드릴 때 복종하는 자세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라. 성경을 읽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열린 마음과 육상하는 마음, 순종적이고 경청하는 마음이 요구되어진다.
6. 당신과 당신 가족이 살고 있는 지역의 정부 관리들의 이름을 4-5명 말해보라. 또한 이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당면하게 되는 문제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라
7. 어떻게 당신이 정부의 합법적인 역할들을 지원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8. 주어진 "국가와 교회의 분리" 원칙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 혹은 교회가 정치적인 현안에 관여할 수 있다고 보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 제 13 과

나와 다른 그리스도인을 인정하라.

### 핵심 본문

로마서 14:1-4, 13-19; 15:1-7

### 배경

로마서 14:1-15:13

### 주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믿음을 다른 방식으로 나타내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

### 탐구 질문

당신과 다른 식으로 믿음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당신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 학습 목표

반원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판단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그러한 태도를 버리도록 인도한다.

### 강조된 텍사스의 우선 사역들

- \* 텍사스와, 온 나라와 세계의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라
- \*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간의 필요에 대해 사역하라
- \* 교회 안과 온 세계에서의 사역을 위해 성도를 준비시켜라
- \* 기존 교회들을 강화하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라

### 개요

로마서 전체를 통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들과 이방은 모두를 포함한다고 강조해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과 화해하도록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오셨다. 사람들이 믿음의 가족 안으로 들어올 때는, 자신들의 다양하고 독특한 모든 것들을 같이 가지고 들어온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헌신이다.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은 사랑과 인내로 서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침례교인들은 지난 40여 년 동안 논쟁을 해왔다. 이 기간동안 있었던 논쟁들은 1960년대에 있었던 창세기 주석에 대한 의견차이부터 시작하여 80년대와 90년대의 논쟁들에 이르기까지를 추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쟁들은 성경의 교리, 그리고 미남침례총회와, 여러 주총회들, 각 위원회들, 이사회들, 침례교와 관련된 교육 기관들 사이의 정치적 관계들과 함께 해야만 했다.

침례교인들은 논쟁하고, 언쟁하고, 싸워 왔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일로 의견 차이를 보여왔다. 이러한 불일치들은 아주 다양해서 완전히 새로운 침례 단체들과 서로 연합하는 새로운 방법들이 새로운 신학교와 함께 출현했고, 침례교 선거구 가운데 완전히 새로운 연맹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갈등만큼이나 심각하고 극단적인 또 다른 갈등들이 지역 교회에 여전히 남아있다. 지역 교회에 있는 이러한 갈등들은 내가 보기에는, 교단적 논쟁들보다 훨씬 더 분열적인 것으로 보인다. 나는 예배에 대한 의견 차이를 말하고 있다.

나는 지난 20여 년 동안 남침례교단을 돌아다니며 동서남북에 있는 여러 교회의 임시 목사로 있으면서 설교 해왔다. 과거 10여 년 동안 나는 침례교단 내에 음악과, 찬송과, 예배 양식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가속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다. 우리는 이제 "전통적 예배 (traditional worship)," "현대적 예배 (contemporary worship)," 그리고 "혼합 예배 (blended worship)" 등에 대한 용어에 익숙하다. 이러한 용어들은 음악 사역자들, 음악 목사들, 그 외의 사역자들이 의미 있는 예배를 인도하고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면하고 있는 도전을 묘사해 주고 있는 양상들이다.

이번 과목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소한 두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상기시켜준다. 첫째로, 우리는 어떤 것이 진실로 신학적, 윤리적으로 논쟁할 만한 것인지 구분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동료 그리스도인들간의 차이점들을 서로 사랑하며, 함께 예배 드리고 봉사하며 참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고린도 전서 8-10장의 우상 앞에 제사를 했던 고기를 먹는 문제가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문제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두 교회들에 대한 권고는 비슷하다. 두 경우 모두에서 바울은 서로 더욱 깊이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개인의 주장에 얹매이거나, 혹은 진실로 실질적이지 않은 문제들에 지나치게 고집스럽게 집착하는 것 보다 서로에게 선을 이루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해야 한다.

로마서 14-15장에서, -- 사실은 로마서 전체를 통하여 --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는 바울에게 아주 중대한 관심사였다. 우리의 핵심 구절은 바울서신의 이 부분의 중심적 권면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하는 것으로써 결론을 맺는다 --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로마서 15:7).

##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 : 그리스도인은 다양하다 (14:1-4)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유대교 법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하여 논쟁이 있었던 것 같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유대교 법을 신봉하고, 따르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음식에 관한 법이 여전히 마음에 걸렸다. 14:14-20절에 나오는 정한 것들과 정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설명에 주목하라.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적 배경은 종교적 절기를 준수하는 것에 대하여 염려하도록 만들었다.

바울은 "약한 자들"로써 절기와 음식에 관하여 더욱 전통적 유대주의로 인해 양심에 거리낌을 가지고 있던 무리들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다른 무리들을 "강한 자들"로 일컬었다. 이 용어들은 아마도 도덕적으로 강하거나 약한 것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양심에 관한 것이었던 것 같다. 즉, "약한" 자들의 양심은 그들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 혹은 모든 날들을 주님께 헌신하는 동등한 날들로 간주하는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강한 자들"은 음식이나 혹은 거룩한 종교적 절기 등에 대하여 거리낌이 없는 의식적으로 충분히 확신이 있는 자들이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그러한 강한 양심을 가진 자 쪽에 속해 있었다. 바울은 이 곳과 다른 상황 속에서도 음식에 관한 규정과 거룩한 절기에 대하여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다 (고린도 전서 8:7-9절; 골로새서 2:16-23절을 보라; 또한 마가복음 7:14-23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가르침을 보라). 진실로, 바울은 여러 가지 종교적 의식들을 구원의 필요 조건으로써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참을 수 없었다 (갈라디아서 2:11-14; 4:21-5:4절을 보라).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관습들이 구원에 필요한 것인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한, 율법의 의식들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확실히 따를 수 도 있었다 (고린도 전서 9:19-23, 사도행전 15:1-29절).

그리하여, 여기서 바울은 "강한 자들"에게 필수적이지 않은 문제들에 대하여 다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도록 권면하기도 했다. 게다가, 바울은 이러한 의미에서의 "용납"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비판"할 목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롬 14:1). 강한 양심의 소유자 "강한 자들", 즉 그가/ 그녀가 아무 것이나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에 관하여 교만한 우월 의식을 갖는 것은 잘못 된 것이다. 또한, 마찬가지로 음식이나 절기와 같은 비 필수적인 요소들에 대하여 종교적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특별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도 잘못 된 것이다.

두 무리의 그리스도인들 모두 각각 그리스도의 종들인 이상, 그러한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지, 그들의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했다. 다른 그리스도인을 판단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교만스럽게 차지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에 속한 모든 자들에 대하여 주인이시다 (14:4). 게다가, 그리스도는 모든 자들 앞에서 심판하실 분이신 것이다 (14:8-12; 고린도 후서 5:10).

### 필수적인 것들에 대한 집중 (14:13-19)

그리하여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 모두 -- 이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판단하지 말도록 권면했다 (14:13). 그들은 비 필수적인 의식에 관한 일들보다 동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충분할 정도로 지각 있는 자들이었음에 틀림없다. 동료 그리스도인의 앞에 거치는 것이나 부딪힐 것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성을 갖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의 교제관계를 깨지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동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맑는 길을 같이 가는 동료 순례자이다. 그리하여, 바울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여행할 때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앞길에 그러한 거치는 것들을 놓지 않기로 결정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했다.

바울은 유대주의적 감각에 매우 공통적인 음식의 정결 상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관한 종교적 의식들이,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책임만큼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우리 자신의 비 필수적인 확신들을 위해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해를 끼치는 것은 당신의 "음식"으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14:15). 바울은 확신들은 예수님께서 음식의 규례에 관한 종교적 외식보다 영적인 경건함과 내적 인격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신 것을 기억나게 한다 (막 7:14-23; 막 2:23-28절을 보라).

우리는 우리의 종교의식에 관한 확신들을 매우 중요하게 만드는 것으로써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선한 것을 비방 받게 만드는 것이다 (롬 14:16).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특정 짓는 것들이다. 하나님의 통치는 비 필수적인 의식의 음식들이나 혹은 특별한 종교적 절기에 집중함으로써 가장 잘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헌신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그리고 기쁨이 편만한 곳에 의해 통치를 이루셨다 (14:17). 그러한 성령의 관대함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하는 것이요 그분이 받을 만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료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을 받는다 (14:18).

바울의 논점은 명확하다. 예배의 의식에 관련된 것들과, 비 필수적인 관습에 있어서, 그리스인들은 교회를

갈라서는 안되고, 그리하여 서로 해를 끼쳐서도, 교회의 증거에 해를 끼쳐서도 안된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왕국과 맞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비 필수적인 것들에 관하여 교만한 마음으로 고집하는 것보다는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세워 주는 것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14:19). 그 결과는 그리스도의 몸이 평화로운 교제로 울려 퍼질 것이다.

###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살고 섬기라 (15:1-7)

바울은 "강한 자들"을 정의했다 (15:1). 여전히 바울은 그의 강한, 거리낌없는 양심이 교만으로 흐르지 않도록 명확하게 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교만이나 교리적 논쟁으로 훌러서는 안된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사용해야 되는 선물인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살지 않은 것처럼,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단지 자신들만을 위하여 살지 않도록 권면했다 (15:2-3). 그리스도께서도 종으로서 사셨다. 즉,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셨다. 우리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는 것은 윤리적 결정을 할 때 매우 중요하다 (롬 15:3-4).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이 깃든 마음과 뜻으로 하나되어 사는 것보다 더 위대한 과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수 없었다 (15:5). 바울의 시각에 있어서, 하나된 마음은 단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사랑하는 마음과 뜻을 가지는 것, 즉, 서로 다른 사람에게 선을 끼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을 의미했다. 여기에 있는 간단한 바울의 문장 "같은 뜻을 갖는 것"은 빌립보서 2:2-8절에서 그가 토론한 짧은 역이라 할 수 있다. "마음을 같이하여" (빌 2:2)는 그리스도인들 간에 하나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장 유통한 모범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본체를 스스로 희생적으로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을 말한다.

그러한 하나된 마음과 뜻은 심하게 갈라져서 파당이 생긴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종교적 의식의 차이들을 내려놓도록 이끌 것이다. 그들의 겸손한 척 하는 태도나 서로에 대한 비판적 태도에서 떠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된 마음과 목소리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임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15:6).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명령을 사도 바울로부터 받는다. 우리도 역시 성경과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계속되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도 역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서로 받아야" 하는 것이다 (15:7).

우리는 어떠한가?

많은 침례교인들은 찬송가와, 의식과, 성가대 복장과, 오르간, 음악 양식, 순백치는 것, 그리고 합창들에 대하여 깊이 분별 되어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성경과 그리스도의 삶에 관한 두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교만한 태도를 내려놓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우리는 비 필수적인 문제들, 즉 예배에 관하여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필수적인 헌신을 우리와 함께 하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분만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유일한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시며,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 질문

- 당신의 교회에서 예배의 양식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각각 매 주일 드리는 예배를 따로 드리는 것이 허용된다면 얼마나 다른 예배 양식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 갈라디아서 1:6-12절과 고린도 전서 9:19-23절을 읽으세요. 이 구절들은 바울이 신학적으로 중심이 되고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까?
-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이 비 필수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 비 필수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그것을 포기해야만 할 때 당신은 어떻게 결정할 것입니까?

### 【보충】

#### 종 되신 예수님

로마서 15:3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했다. 15:8절에서는 그리스도를 "할례의 수종자"로서 설명했다. 그리스도를 종으로써 표현한 이러한 직접적, 간접적 묘사는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이해에 대한 설명이었다.

"주의 종"이 이사야서 후반부에 언급되어진다. 이사야 40-66장은 자주 이스라엘 국가를 하나님의 종으로써 언급한다. 이사야서 40-66장은 또한 주님에 의해 선택된 한 신비한 인물에 대해 몇 가지 언급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사야 42:1, 52:13--53:12; 6:1-3).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소리가 예수님께서 그 "아들"이심을 입증했다. 이러한 설명들은 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사야

42:1절과 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시편 2:7절을 끓어준다 (마 3:17; 막 1:11;눅 3:22절을 보라).

게다가, 누가복음 4:16-30절에서, 누가는 예수님 사역의 취임 장면을 제시한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에서 주님의 종에 관한 기사, 즉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것을 읽는 행위로써 그 일들이 이루어 졌다고 선포하시는 기사를 읽으셨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 주의 종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셨다. 마가복음 10:45절과 14:24절도 또한 이사야서 52:13-53:12절 전체에 나오는 가장 신비한 종의 기사로부터 온 것이다. 이 구절은 종이 거절당하는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종국에는 그의 고통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구속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빌립보서 2:5-8절에서, 바울은 종의 용어로 예수님의 삶을 정확하게 이해했다. 마찬가지로 이 구절들의 배경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주의 종이다.

로마서 15:1-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의 본으로써 지적한다. 이러한 구절들은 명확하게 예수님의 삶을 종의 삶으로써 해석한다.

종의 역할을 우리 인생 사역의 특징으로써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은 성공과, 권세와, 부귀에 대한 오늘날의 요구를 잘라 버릴 것이다.

우리 주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섬기고, 자신을 희생적으로 드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유명해지고 인기를 끄는 것들을 버리는 것들이었다. 우리는 그러한 "뜻"으로부터 많이 배울 수 있었다.

## [보충]

### 개인주의와 교제

지난 125년에 걸쳐서 침례교 정체성은 미국 변경 지역의 강한 개인주의에 의해 좋은 쪽으로 혹은 나쁜 쪽으로 모양을 갖추어 왔다. 확실히 개인의 의사에 대한 침례교의 강조는 영혼들의 개인주의에 대한 동의와 함께 미국의 서부변경을 개척하기에 충분한 용기를 갖게 했다. 진실로 개인주의에 대한 특정한 부분들을 신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6:4-5절에서 바울은 우리 각자가 자기의 짐을 져야 함을 명확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침례교 전통은 교회의 중요성을 또한 강조해 왔다. 교회는 신자들이 그저 자발적으로 모인 조직이상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의 교제권 속으로 이끈다. 그것이 좋은 삶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몸의 자체들이다. 그들은 그리하여 다른

서로 사람의 자체가 된다.

우리는 서로 상호 의존적이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사람들을 함께 모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이전에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달랐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새 아담" (에베소서 2:11-12)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헌신한 모든 사람들은 "함께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다 (엡 2:21).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고백자로서 우리들은 "산 둘"이며,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2:5).

침례교도들의 초대 전통은 특별히 지역 교회를 강조했었다. 오늘날 침례교도들은 여전히 지역 회중의 자치성을 크게 평가한다.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모여 졌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 모두는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으로써 지역 교회들로써, 그리고 지역 교회들로써 하나님의 한 백성에 속한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유대인도, 이방인도, 구속이나 자유도, 남자나 여자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이다 (갈 3:28).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다 (엡 4:5). 또한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엡 4:4). 그것이 믿음의 필수적인 것들을 희생하지 않고 성취될 때,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사랑과 진리가 항상 우리의 의무이듯, 항상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 [보충]

### 목상

\* 당신 교회에 있는 다른 사람이 원하는 예배 방법들을 생각 해보라. 그 청년이 (혹은 당신 교회의 다른 세대들) 그 예배가 다른 양식으로 드려지기를 원한다고 가정하라. 예배 양식은 비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이 기독교 신학에 결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어떻게 하면 그것을 후원해 줄 수 있을까 하고 이해할 수 있겠는가? 최소한 몇 가지 경우, 즉 다른 사람들이 더 편하게 느끼는 방식으로, 동시에 모든 사람이 신학적으로 중요한,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일에 위배되지 않으며 서로 덕을 세우는 방식으로 말이다.

\* 당신 교회에서 분열적인, 하지만 교회의 사명에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을 떠 올려보라. 어떻게 하면 이 서로 다른 무리들이 단지 비 필수적인 문제만을 일으키는 이 것들에 대해 최소한의 일치를 발견 할 수 있겠는가?

\* 당신은, 당신의 주일학교 수업은, 혹은 이 과를 함께 공부한 다른 그룹은 당신과 갈라놓은 문제들을 토론하기 위하여 기꺼이 모이겠는가? 우리 자신의 권리가 아닌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에 집중하도록

해주는 사랑, 인내, 그리고 열린 마음들은 당신 교회를 치유하고 화해하는 일을 크게 도울 것이다. 당신은 기꺼이 시도하겠는가?

청.장년 성경공부

로마서: 어지러운 세상을 향한 복음

단원 1의 저자는 해리 (**Harry Lucenay**)이다. 해리는 Waco에서 태어났고 유년 시절에 거기에 있는 Columbus Avenue Baptist Church를 다녔다. 그는 Baylor University,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그리고 New Orleans Baptist Theological Seminary를 졸업했다. 해리는 텍사스와 미시시피에 31년을 목사로 시무 했고, 1994년부터 Longview에 있는 First 교회의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그는 주선교의회(State Missions Commission)에서 봉사하고 있고, 산 마코스 침례학회 (San Marcos Baptist Academy)의 이사이다. 또한 그는 카리브, 중.남미,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있다. 그는 달라스의 낸시 (Nancy Holland)와 결혼했고, 미국 전역에서 결혼생활 세미나의 지도자로서 섬기고 있다. 그들은 세명의 자녀들이 있다.

단원 2와 3의 저자, 밥 (**Bob Campbell**)은 휴스턴에 있는 Westbury Baptist Church의 목사이다. 그는 전에 갈랜드 Calvary 교회, 오클라호마의 Northwest 교회, Ardmore 교회, 브라운 우드의 Salt Creek 교회, 마릴리의 Plum Grove 교회의 목사로 시무 했다. 그는 또한 브라운우드에 있는 Howard Payne University에서 성서와 헬라어의 부교수로 일하며 가르쳤다. 그는 Louisiana College와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D., Th.D.)에서 공부했다. 그와 그의 아내 줄디쓰 (Judith)는 성장한 두 명의 자녀가 있다.

단원 4의 저자 로버트 (**Robert B. Sloan, Jr.**,)는 Baylor University의 총장이자 최고행정위원이다. 그는 Coleman에서 태어나서 Abilene에서 자랐다. 그는 Baylor University,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그리고 스위스에 있는 University of Basel (Th. D.)를 졸업했다. 그는 아빌렌 (Abilene)에 있는 Hardin-Simmons University,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한동안 강사로써 가르치다가 1983년에 베일러 (Baylor)의 종교학과의 교수로 발탁되었다. 1990년에 그는 베일러 전도학 분야에 있어서 George W. Truett 의 최초의 석좌 교수가 되었고 1993년, 그는 베일러의 George W. Truett 신학교의 학장으로써 임명되었다. 그와 그의 아내 수 (Sue)는 웨코 (Waco)의 제일침례교에 다니며, 일곱 명의 자녀가 있다.